

전남 고령친화산업 지역경쟁력분석 및 맞춤형 육성방안



전남 고령친화산업 지역경쟁력분석 및 맞춤형 육성방안



연구진

임 태 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진 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화가 절실한 실정임
 - 베이비붐 세대(준고령세대, 50~64세)의 소비력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 산업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가 새로운 지역산업의 성장 원동력으로 등장하여 가속화 될 전망
- 전남지역은 17개 시·도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아 향후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지만,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관련분야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목적

- 고령친화산업을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고려된 핵심정책분야 선정
 -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전남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산업성장 등의 실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
- 지역의 (현)핵심전략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고령화친화산업 구축·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전라남도 7기 핵심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안에서 총 35개의 세부과제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의 추진 프로젝트 안에서 연계해서 추진 될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세부분야 선정 필요

2.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지역경쟁력 분석결과

1)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종합

□ 전남 고령친화산업 규모 측정 종합

- 2015년 기준 전남의 경우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전체 종사자의 3.65%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12번째 해당
 - 2017년 기준 역시 3.66%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2017 사이 전남의 고령친화 산업 관련 종사자는 1,50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0.01% 증가율을 보임
-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부분별 현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군은 고령친화여가 산업으로 전체 47%(2017년 기준, 11,428명 종사)에 해당
 - 다음으로 고령친화요양산업(30%) 고령친화식품산업(12%)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고령친화용품산업(5%),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2%), 고령친화주거산업(2%), 고령친화금융산업(2%), 고령친화의약품산업(1%)은 고령친화산업 전체 5% 이하의 종사자 비율 보임

□ 지역경쟁력 분석결과 종합

- 2015~2017년 사이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양(+)의 지역할당 효과와 함께 타시도에 비해 전남의 고용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친화의료산업, 고령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금융산업** 분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양(+)의 지역할당 효과와 함께 전남의 고령친화식품산업 분야

- 에서 2015년 2017년 모두 1이상의 지역 특화도 지수를 보인 지역은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상대적 특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장성군**으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고령친화식품 분야에서 특화도 지수가 가장 크게 성장한 지역은 **담양군**으로 도출됨
 - 또한 양(+)의 지역할당 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난 고령친화의료산업 분야에서 2017년 기준 1이상의 지역 특화도 지수를 보인 지역은 **장성군**으로 나타남
 - 하지만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으로 증감율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0.96만큼의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용품 분야에서 2015년 2017년 모두 1이상의 지역 특화도 지수를 보인 지역은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상대적 특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함평군**으로 나타남
 - 함평군은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고령친화용품 분야에서 특화도 지수가 가장 크게 성장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장성군, 화순군은 지난 3년간 상대적 특화도 지수 하락한 것으로 도출됨
 - 고령친화금융 분야에서 2015년 2017년 모두 1이상의 지역 특화도 지수를 보인 지역은 **순천시**가 유일
 - 순천시를 제외한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1이하의 입지계수를 보여 특화도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정책적 시사점

□ 정책적 시사점

-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친화의료산업, 고령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금융산업**은 타 시·도에 비해 경쟁 우위로 평가됨

로, 향후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및 특성이 고려되어 도출된 위의 네 가지 분야에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유치, 고령친화산업 지원 확대 등에 관련된 지역 맞춤형 정책추진방안 마련 필요
 - 또한 한정된 예산과 인력 등을 이용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친화의료산업, 고령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금융산업** 중에서도 전남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 있음
 - 시간의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방향 마련 필요
- 산업구조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우선순위결정 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 문화, 예술, 환경을 고려한다면, **고령친화여가산업** 또한 핵심 전략산업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 「제6차 전라남도 관광개발계획」과 「전라남도 권역별 관광개발 목표」를 토대로 전남은 **관광**을 중요한 핵심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전남 지역의 관광사업의 내용과 고령친화여가산업을 연계하여 추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3. 전라남도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1) 복지가 아닌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

- 노령복지 확대 측면이 아닌 산업육성, 기업·핵심인력 유치·지원측면으로 접근하는 방향 설정 필요
 - 노령복지 측면이 아닌 산업육성, 기업·핵심인력 유치·지원측면으로 접근하는 방향 설정 필요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복지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은 부재되어 있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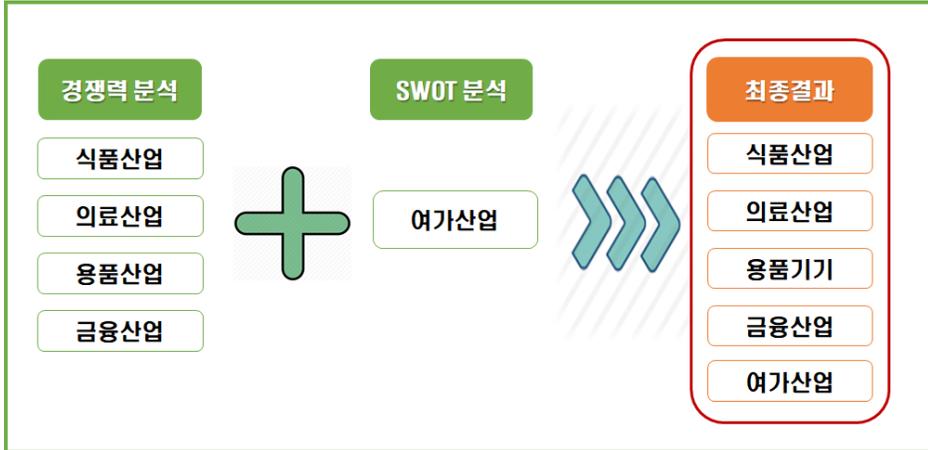
- 전남에서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전남 지역 내로 유치하기위한 노력이 시행되어야 하며,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하고,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향설정 필요
- 부산, 광주, 경기 정도가 고령친화산업 측면에서 R&D 지원, 인적자원지원 등과 같은 산업측면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
- 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해외시장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필요
 -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령친화산업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구축 필요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시킬 필요 있음

2)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부문 육성 및 융합적 접근

□ 특화·비특화 부분의 융합적 정책방향 설정 필요

- 고령친화산업 중 타·시도에 비해 경쟁력 우위로 선정된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 고령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 금융산업 분야를 기반으로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동시에 전남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 문화 예술 환경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여가산업과 연계하여 전남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융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령친화 세부분야가 다른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해 세부적인 융합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그림] 전남 고령친화산업 특화분야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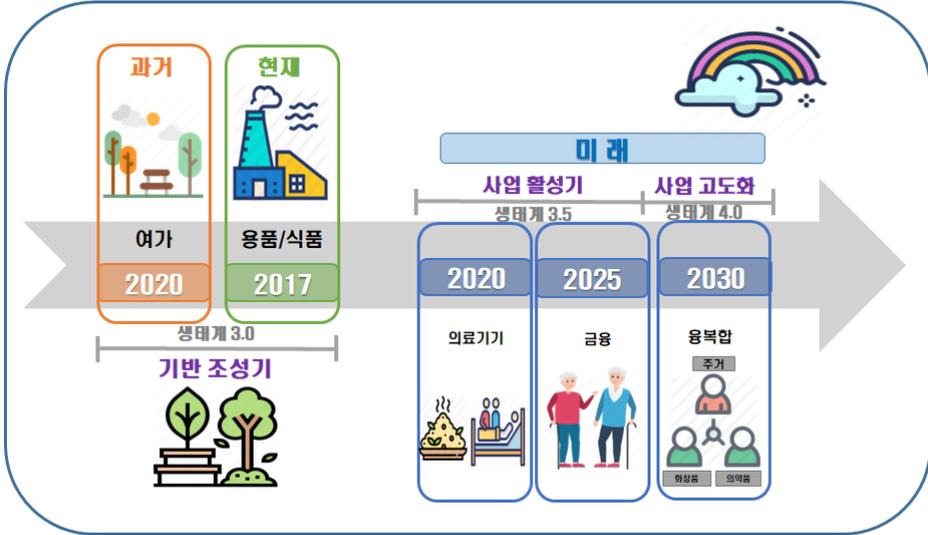


3) 분야별·단계별 추진

□ 분야별·단계별로 발전계획 수립 필요

- 한정된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여가산업, 고령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식품 및 의료기기산업, 고령친화금융산업 순으로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할 필요 있음
 - 현재 전남지역의 고용구조를 토대로, 고용비중이 높은 순으로, 분야별·단계별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정책방향성 설정이 필요함
 - 전남지역의 문화, 역사, 예술자원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보이며 동시에 높은 고용창출력을 보이는 고령친화여가산업과 고령친화용품 산업을 시작으로 기반조성기를 설정하고, 사업의 활성화에는 고령친화의료분야와 고령친화 금융분야를 집중하여 육성하는 기본방향 설정 필요
 - 그 이후에는 특화분야로 선정하지 않은 고령친화주거산업, 고령친화요양등과 융합하여 육성할 수 있는 전략마련 필요

[그림]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단계별 추진방향 로드맵



□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목표 및 육성방안 수립 필요

- 전라남도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육성방향과 육성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 있음
 - 지역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지역의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성과 육성방안을 설정한 후 구체적인 시책마련 필요
 - 시책은 복지가 아닌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전남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부문과 비특화부문을 융합적·단계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토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

[그림]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목표 및 추진방향(안)



CONTENT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1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이론적 논의	15
제1절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의	17
1.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의	17
2.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	18
제2절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20
1.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른 분류	20
2.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23
제3절 고령친화산업의 특성과 전망	31
1.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31
2. 고령친화산업의 전망	32
제3장 고령친화산업 국내정책동향 분석	35
제1절 중앙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정책	37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고령친화산업 정책	37
2. 관계부처 합동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방침	40
3. 부처별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42

CONTENTS

제2절 지방자치단체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정책	46
1. 서울특별시	46
2. 부산광역시	47
3. 대구광역시	51
4. 인천광역시	52
5. 광주광역시	53
6. 대전광역시	57
7. 울산광역시	58
8. 세종특별자치시	59
9. 경기도	59
10. 강원도	62
11. 충청북도	63
12. 충청남도	64
13. 전라북도	64
14. 전라남도	65
15. 경상북도	66
16. 경상남도	67
17. 제주특별자치도	71
제3절 시사점 도출	72
1. 중앙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정책 종합	72
2. 지방자치단체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정책 종합	73
제4장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지역경쟁력 분석	77
제1절 시도별 고령친화산업 현황분석	79
1. 연구범위 설정	79

2.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현황	79
3.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현황	81
제2절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지역경쟁력 분석	84
1. 변이할당분석	84
2.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분석	106
제3절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특화도 분석	110
1. 지역 특화도 분석	110
2. 지역 특화도 분석결과 종합	131
제4절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135
1. 분석결과 종합	135
2. 시사점	136
제5장 전라남도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139
제1절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방향	141
1. 복지가 아닌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	141
2.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부문 육성 및 융합적 접근	142
3. 분야별·단계별 추진	142
제2절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145
1. 전남 고령친화산업 특화부문 집중육성	145
2. 비특화부문인 고령친화여가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확충	152
3. 블루이코노미와의 정책연계성 강화	155
4. 고령친화산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기반 강화	159
【참고문헌】	163
【부록】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8

CONTENTS

표목차	[표 1-1] 전라남도 노인인구비중(2018년 12월 기준)	3
	[표 1-2] 전라남도 장래인구추이(2018년 12월 기준)	4
	[표 1-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5
	[표 1-4]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6
	[표 1-5]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8
	[표 2-1]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21
	[표 2-2] 고령친화산업 9대 영역별 개념	22
	[표 2-3] 고령친화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
	[표 2-4] 고령친화 용품산업 구분 및 내용	29
	[표 2-5] 고령친화 주거산업 구분 및 내용	30
	[표 3-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주요 정책 방향	38
	[표 3-2]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과제	39
	[표 3-3] 고령친화산업체 지원내용	44
	[표 3-4]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사항	45
	[표 3-5] 부산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전략과제	49
	[표 3-6]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기업지원 정책(2020년)	55
	[표 3-7]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기업 및 기술지원 사업	60
	[표 3-8] 경기도의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 분야(2020년)	61
	[표 3-9] 의령군 향노화산업 지원 내용	70
	[표 3-10]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주요내용	73
	[표 3-11] 지자체단체별 조례제정 현황 및 내용	75
	[표 4-1] 시도별 고령친화산업 종사자수 현황	81
	[표 4-2]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부분별 종사자수 현황	83
	[표 4-3]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전체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86

[표 4-4]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요양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	89
[표 4-5]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의약품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91
[표 4-6]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	93
[표 4-7]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95
[표 4-8]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	97
[표 4-9]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주거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	100
[표 4-10]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여가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102
[표 4-11]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금융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104
[표 4-12] 시·도 지역별 고령친화산업 전체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종합	106
[표 4-13] 시·도 지역별 분야별 고령친화산업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종합	108
[표 4-14] 고령친화산업 LQ분석결과	112
[표 4-15]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요양산업 LQ분석결과	114
[표 4-16]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의약품산업 LQ분석결과	116
[표 4-17]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식품산업 LQ분석결과	118
[표 4-18]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 LQ분석결과	120
[표 4-19]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용품산업 LQ분석결과	122
[표 4-20]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주거산업 LQ분석결과	125
[표 4-21]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여가산업 LQ분석결과	127
[표 4-22]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금융산업 LQ분석결과	129
[표 4-23] 전남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특화도 분석결과 유형화 ...	131
[표 4-24] 전라남도 시군구 단위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LQ분석결과 ...	134

CONTENTS

[표 4-25] 전라남도 권역별 관광개발 목표	137
[표 5-1] 지원내용 제안	146
[표 5-2] 전라남도 지역내 위치한 바이오분야 연구센터 현황	148
[표 5-3] 전라남도 SWOT 분석 결과	152
[표 5-4] 전남지역 내 호텔업 등록현황(2019년도 기준)	153
[표 5-5] 권역별 호텔업 등록현황(2019년도 기준)	154
[표 5-6] 체류기반의 숙박인프라 확충 방향성	155
[표 5-7]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의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 세부추진 사업	156
[표 5-8] 「신성장 관광벨트 프로젝트」 중점 추진과제	157
[표 5-9] 장수·건강·기능으로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안)	15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13
	[그림 2-1] 고용유발계수	33
	[그림 3-1]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제시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전략 ...	41
	[그림 3-2] 부산 고령친화산업진흥센터의 고령친화제품 사업성평가 사업 ·	50
	[그림 3-3]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	54
	[그림 3-4]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시설 설립	56
	[그림 4-1] 17 시·도별 고령친화산업 2015~2017 변화율	80
	[그림 4-2]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부분별 비중	82
	[그림 4-3] 지역 성장의 요인별 분류	85
	[그림 4-4] 변이할당 분석기법	85
	[그림 4-5]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 전체 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87
	[그림 4-6]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요양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89
	[그림 4-7]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의약품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91
	[그림 4-8]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의약품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93
	[그림 4-9]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96
	[그림 4-10]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98
	[그림 4-11]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주거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100
	[그림 4-12]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여가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103
	[그림 4-13]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금융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105

CONTENTS

[그림 4-14] 시·도별 고령친화산업 상대적 경쟁력지수	107
[그림 4-15] 전남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경쟁력 분석결과	109
[그림 4-16] LQ(Location Quotient)지수 산출식	110
[그림 4-17]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산업전체의 특화도 정도 (2017년도 기준)	113
[그림 4-18]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요양산업의 특화도 정도 (2017년도 기준)	115
[그림 4-19]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의약품산업의 특화도 정도 (2017년도 기준)	117
[그림 4-20]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특화도 정도 (2017년도 기준)	119
[그림 4-21]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의 특화도 정도 (2017년도 기준)	121
[그림 4-22]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용품산업의 특화도 정도 (2017년도 기준)	123
[그림 4-23]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주거산업의 특화도 정도 (2017년도 기준)	126
[그림 4-24]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여가산업의 특화도 정도 (2017년도 기준)	128
[그림 4-25]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금융산업의 특화도 정도 (2017년도 기준)	130
[그림 5-1] 전남 고령친화산업 특화분야 선정 결과	142
[그림 5-2]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단계별 추진방향 로드맵	143
[그림 5-3]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목표 및 추진방향(안)	144
[그림 5-4] 전남 바이오산업의 인프라 및 잠재력	149
[그림 5-5] 고령친화산업 발전협의회 구성(안)	160
[그림 5-6] WHO GNAFCC 가입현황	16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KRILA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전라남도 65세 이상 인구는 2040년 41.4%까지 늘어날 전망

-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4.3%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
 - 전라남도 65세 이상 인구는 39만 2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1.8%에 이르러 전국 평균 14.3%보다 7.5%가 높은 상황이며 2045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78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8년 전라남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8%로 고흥군, 보성군(35.8%), 함평군(34.1%) 순으로 높음
 - 전남지역 시 단위 지역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인구 비율은 낮은 반면 군 단위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전라남도 노인인구비중(2018년 12월 기준)

지역	여수시	순천시	담양군	목포시	구례군	영광군	광양시	화순군
비중	17.4	14.4	29.4	14.9	31.7	27.7	11.8	24.9
지역	강진군	나주시	곡성군	신안군	장성군	완도군	보성군	영암군
비중	32.6	21.7	33.7	33.7	28.3	30.6	35.8	25.2
지역	함평군	장흥군	무안군	고흥군	진도군	해남군	-	-
비중	34.1	332.1	20.2	38.8	32.4	30.3	-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예상

- 1955~1963년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준고령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고령친화서비스 시장이 대폭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
 -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으며 노인층에 비해 합리적이고 자산규모 또한 이전세대보다 높은 특징 보여 베이비붐 세대(준고령세대)가 앞으로 소비를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존의 수도적인 실버소비자와 달리,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며 시간적, 경제적 여유와 함께 적극적인 소비의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 특징을 보여 향후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견인 역할 할 것으로 예상
 - 전남의 준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7%인 39만 9천(2016년 기준)명으로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24.1%으로 증가할 전망

[표 1-2] 전라남도 장래인구추이(2018년 12월 기준)

(단위: 천명, %)

년도	구분	추계 인구	0~49세		50~64세		65세 이상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2016	전국	50,801	32,759	64.5	11,179	22	6,864	13.5
	전남	1,755	963	54.9	399	22.7	393	22.4
2020	전국	51,435	31,117	60.5	12,234	23.8	8,084	15.7
	전남	1,743	895	51.4	433	24.8	415	23.8
2030	전국	52,160	27,313	52.4	12,156	23.3	12,691	24.3
	전남	1,735	758	43.7	418	24.1	559	32.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전남지역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변화에 대응필요

-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화가 절실한 실정임
 - 베이비붐 세대(준고령세대, 50~64세)의 소비력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가 새로운 지역산업의 성장 원동력으로 등장하여 가속화 될 전망
 - 전남지역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2017년 기준) 사업체수는 110,539개(전국 총 사업체수 4,019,872), 종사자수는 707,983명(전국 총 종사자수 21,626,904)으로 이는 전국 대비 약 2.7~3.3%로 해당되는 수치로 그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전남지역은 17개 시·도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아 향후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지만,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관련분야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 전남은 휴양지역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접근 필요

[표 1-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구분	범위	산업코드 대분류	구분	범위	산업코드 대분류
1	고령친화 요양산업	87	6	고령친화 용품산업	13, 22, 27, 29, 32~33
2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21	7	고령친화 주거산업	16, 22
3	고령친화 식품산업	10~11	8	고령친화 여가산업	47, 90~91
4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20	9	고령친화 금융산업	66
5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27	-	-	

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 부록참고

[표 1-4]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다. 노인요양 서비스
 -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자료: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019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방침」 발표에 따른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정부는 2019년 11월 13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하락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고자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 발표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고령인력 활용도 제고방안’과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방안’으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요약됨
 -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방안은 고령자 신체 정보, 행동, 생활패턴 등 기초자료 확보 및 산업분석을 통해 고령친화 제품, 시스템,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
- 정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공동으로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전남지역 내 수요와 지역의 여건이 반영된 고령친화산업 관련 핵심 정책분야 부재**

- 전남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나, 고령친화산업 기반시설이나 기존 인프라에 대한 현황분석 부재
 - 산업구조분석을 통해서 고령친화산업에 관련된 전남지역의 특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객관화된 결과 도출 필요
- 전남지역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고령친화 산업 중에서도 지역 내 생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특정 핵심분야’ 선정이 급선무

2. 연구목적

□ **고령친화산업을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고려된 핵심정책분야 선정 필요**

-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전남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산업성장 등의 실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관련 기술 및 상품개발, 서비스 분야 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적극적으로 산업육성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
 - 고령친화산업에 관련된 전남지역의 특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객관화된 연구가 부재되어 있어 전남지역만의 고령친화산업의 종합계획을 논하는데 한계점 존재하며 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내 시군간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분석한 연구가 부재되어 있어 고령친화산업에 관련된 집중 투자영역을 발굴하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많은 제약 존재

□ 고령친화산업 중에서도 전남의 「6+3 플랜(블루 이코노미+3대 핵심과제1)」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세부분야 선정 및 연계방향성 검토 필요

- 지역의 (현)핵심전략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고령친화산업 구축·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전라남도 7기 핵심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안에서 총 35개의 세부과제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의 추진 프로젝트 안에서 연계해서 추진 될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세부분야 선정 필요
 - 구체적으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안에서도 세 번째 전략사업인 ‘블루 바이오’의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블루 프랜스포트’ 분야 또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연계 접근 가능성 존재
- 현재 전남에서 추진 중인 「전남 6+3 플랜(블루 이코노미+3대 핵심과제)」과 연계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추진 시킬 수 있는 방안도출 및 이행가능성에 대한 조사 필요

[표 1-5]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구분	6대 프로젝트	고령화산업과 연계 가능성
1	글로벌 에너지산업 수도 프로젝트	-
2	남해안의 기적, 신성장 관광벨트 프로젝트	○
3	바이오 메디컬 허브 프로젝트	○
4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중심 프로젝트	-
5	미래 생명산업의 메카 프로젝트	○
6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 프로젝트	-

자료: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실 내부자료

1) 의과대학설립,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정책수립 필요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브릿지플랜 2020」를 살펴보면 IT연계 스마트 케어활성화와 관련된 원격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등 ICT 서비스 플랫폼 개발, 의료서비스-IT 기술과 연계한 유망서비스 발굴 지원 등의 대책들이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추진되고 있음(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 전남지역에서도 고령친화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을 적용한 고령친화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접근 필요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는 전라남도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요구되는 방안을 마련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함
- 관련된 시책 비교를 위해서 전라남도지역 뿐만 아니라 국내 타도시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시간적 범위

- 전라남도 지역내 위치한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고령화 추이 현황 분석에 관련된 기초적인 통계분석 및 지역집적도 측정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15~2017년을 기준년도로 함

□ 내용적 범위

- 고령친화산업 관련제도 및 국내정책동향 분석
- 전남지역 고령화추이 및 고령친화산업의 산업동향분석
- 고령친화산업 시도단위별 지역경쟁력 분석
- 전라남도 지역내 고령친화산업 여건 및 특화도 분석

2. 연구방법

고령친화산업 관련 이론적 논의 검토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조작적정의 검토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내에서의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검토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검토
 - 고령친화산업의 특성과 전망 검토

고령친화산업 관련 국내정책동향 분석

-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검토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육성·지원정책 검토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현황 검토
 -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
 - 전라남도 차원에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정책 검토
- 전라남도 현 시행 정책의 시사점 도출
 - 17개시도 고령친화산업 정책현황 비교분석 후 시사점 도출

전남지역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산업동향분석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의
- 고령친화산업의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정의
- 시도별 고령친화산업 규모 측정
- 전라남도 시·군·구 단위에서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현황분석
 -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사업체수 현황 (시·군 단위) 분석 시행
 - 고령친화산업 종사자수 현황 (시·군 단위) 분석 시행
 - 고령친화산업 종사자수 기준 전국-전남 간 성장 추세 비교분석

□ 고령친화산업 지역경쟁력 분석

-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자료를 토대로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중에서도 타지역에 비해 전라남도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특정산업분야 선정
 - 17개 시도단위에서의 고령친화산업에 관련된 분야별(9개의분야)·지역별(시도별) 상대적 경쟁력 지수를 도출하여 산업적인 측면에서 전라남도가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특정 산업분야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에서 고령친화산업에 관련된 산업코드를 적용하여 시도단위에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측정 후 고령친화산업에 관련된 지역경쟁력지수(지역할당효과/총 종사자수) 도출

□ 전라남도 지역내 고령친화산업 특화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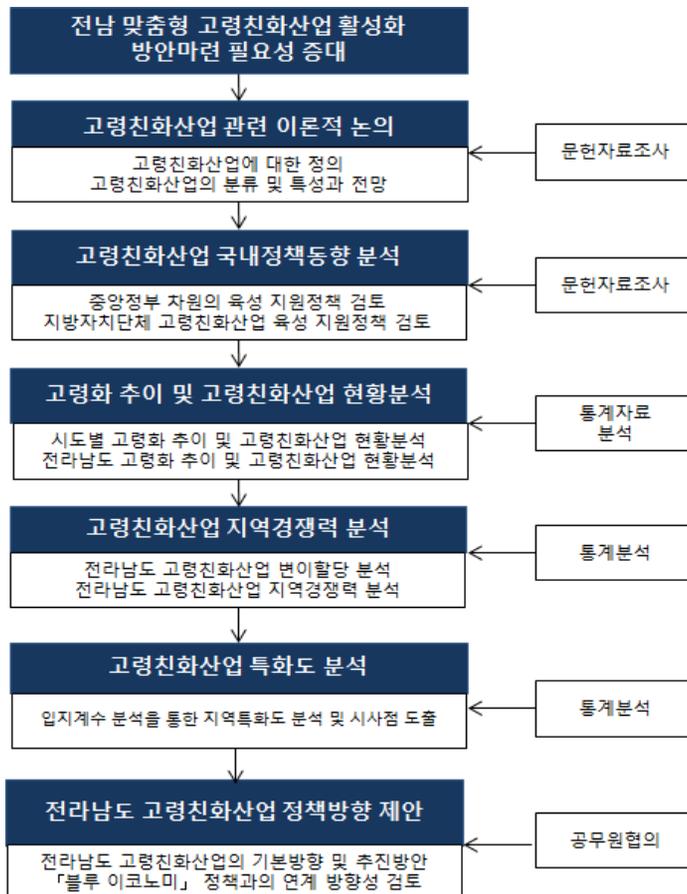
- 전남지역 고령친화산업 내 세부산업별 특화도 분석
 -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집중 육성되어야 하는 세부분야를 선별하기 위해 특화도 분석을 시행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집중전략산업 특정분야 선정
 - 2017년 고령친화 산업 분야별 종사자 수 데이터를 토대로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 측정하여 전라남도 지역 내에서 고령친화산업 분야 간 상대특화도 지수 도출

□ 고령친화산업관련 브레인스토밍

- 전문가 대상으로 전남 지역의 특화된 고령친화산업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 및 기존의 핵심프로젝트인 「블루 이코노미」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시행
 - 전통적 고령친화산업 외 정부가 육성코자 하는 고령친화산업(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등)과 연계되면서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정책과도 동시에 연계가능성이 있는 산업분야를 검토 후 성공적으로 육성·이행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중요요인에 대해서도 탐색

- 전라남도 산업구조특성이 반영된 고령친화산업 중점 세부추진분야 선정 및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안에서의 연계방향성 도출
-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라남도 산업구조 및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전남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중점 세부추진분야를 선정
 - 선정된 전남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세부추진분야가 현재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안에서 연계되어 시행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 및 제안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이론적 논의

제1절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의

제2절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제3절 고령친화산업의 특성과 전망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이론적 논의

KRILA

제1절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의

1.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의

□ 고령친화산업의 포괄적 정의

- 고령친화산업 발전 초기 해당 산업은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정의됨(이견직, 2006: 41)
 - 해당 정의에서 고령자는 특정 시점에서의 고령자 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이 편리하다”는 취지하에 미래의 모든 고령자들까지 포함한 개념(이견직, 2006: 41)
 - 위의 정의에 내포되어 있듯이 고령친화산업은 대상이 되는 소비자 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재분류된 산업이며,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특성을 지님(이견직, 2006: 41)
 - 즉 기타 산업분류가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니는 성질에 기반하여 범주화된 결과물인 것에 반해, 고령친화산업은 대상 집단에 근거하여 산업을 우선 분류하고 그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분화되는 방식으로 정의되는 것
 - 전술한 특성은 산업에 대한 실질적 정의를 도출하거나 그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데(이견직 외, 2005: 18, 따라서 산업의 정의나 이해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최근의 정의는 2018년 시행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약칭 고령친화산업법)에 기반하고 있음(신창호 외, 2018: 7)
 - 해당 법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건

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어(고령친화산업법 제2조2절2),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서비스 포함) 관련 산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령친화제품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고령친화산업법 제2조1절)

2.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고령친화산업

- 고령친화산업은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전 잠재력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
 - 전통적 가족구조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현상이 보편화 되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부양체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생산을 고령친화산업이 담당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층은 독립적이며 자아실현을 해 나가면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소비생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에 참여하는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은 더욱 성장 하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음
-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제품을 시장경쟁 원리를 적용해 고령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급부상
 -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노인 대상의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 고령친화산업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A%B3%A0%EB%A0%B9%ED%99%94%EC%B9%9C%ED%99%94%EC%82%B0%EC%97%85%EC%A7%84%ED%9D%A5%EB%B2%95#undefined>) (검색일: 2020.03.03.)

-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수요층으로 급부상하는 2020년 이후에는 블루오션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신세대 고령자가 소비시장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며, IT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촉진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미래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보여짐

제2절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1.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른 분류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정의와 분류

-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사용하는 용품 및 의료기기,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노인요양서비스 등 노인을 주요 소비자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이며, 구체적인 산업의 범위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되고 있음
 - 제품 및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기기, 금융자산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나 주요 수요층을 노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과 차별성 가짐(문혜선, 2019)
- 고령친화산업은 다시 제품과 서비스로 구분 가능(신창호 외, 2018: 8)
 - 우선 위의 표에서 제품의 생산 및 관리와 관련된 영역으로는 1) 용품/의료기기, 2) 정보기기, 3) 의약품/화장품, 4) 건강식품이 있으며, 서비스 영역으로는 1) 주거, 2) 요양, 3) 금융, 4) 여가/건강지원, 5) 농업, 6) 교통이 있음(신창호 외, 2018: 8)

[표 2-1]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다. 노인요양 서비스
 -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자료: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산업측면에서의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 고령친화산업의 이해를 위해 산업측면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공급자는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보건 및 영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한방, 장묘 등의 산업과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금융, 문화 및 여가, 전자 및 정보, 주택, 교육, 교통, 농업, 의류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요자는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뿐만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로 대표되는 준고령자도 포함되며, 특히 고령자의 간병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인, 도우미를 위한 소비 및 투자 제품과 서비스 등도 이에 포함됨(문환규, 200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9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선 제품 생산 및 관리에서 용품과 의료기기를 분류하고, 여기에 의약품, 화장품, 식품을 추가하여 총 5개 세부산업영역으로, 서비스에서는 농업

과 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세부산업영역으로 구분

- 산업의 현황이나 관련 정책 동향 등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9개 분류에 기반하여 수집 및 보고되고 있기에 이것이 실질적인 고령친화산업범위라고 볼 수 있음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고령친화산업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필요 충족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 개발, 유통, 제공 등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세부적으로 제품의 생산/관리 영역(용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식품)과 서비스 영역(주거, 요양, 금융, 여가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의 도출이 가능
- 고령친화산업의 9개 산업 영역별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2-2] 고령친화산업 9대 영역별 개념

영역		개념
제조 산업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고령자의 질병을 진단, 치료, 처치 및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신체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생산하는 산업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고령자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거나 저하된 신체 구조와 기능을 진단, 경감, 보정하는 목적으로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
	고령친화 식품산업	노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익숙하고 고령자의 신체에 적합하거나 유용한 원료와 성분으로 제조·가공된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고령자 신체 전반의 청결을 유지하고 피부와 모발을 미화하며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효과를 보이는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 (단, 의약품과 비교하여 경미한 효과가 있음)
	고령친화 용품산업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수발,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
서비스 산업	고령자를 대상으로 심신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며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간호 및 치료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영역	개념
고령친화 금융산업	고령자가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게 하거나 건강 관련위험을 보장받는 서비스 상품과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고령친화 주거산업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장기간 안정 적으로 확보 가능하며 고령자 대상 편의시설이 인접한 건축물의 전부 또 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제공하는 산업
고령친화 여가산업	고령자가 가처분소득을 이용해서 문화적 요소를 체험하거나 심신을 함양 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산업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7)

2.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 고령친화 요양산업

- 고령친화 요양산업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
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영역을 대상으로 함
 - 이 중 재가요양서비스는 방문간호, 간병·수발지원, 방문재활, 방문목욕, 복
지용구 대여 및 지원 등의 서비스로 필요한 이용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
여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간호,
훈련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을 의미(문환규, 2006)
 - 또한 시설요양서비스는 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원)자에게 신체
적·정신적 상태 및 욕구 수준에 적합한 의학적 치료, 간호, 재활 및 일상활
동 지원서비스, 급식 등과 함께 기능회복,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참가기회를 제공하여 입소자의 총체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을 뜻함

□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범위를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에서 살펴보면, 인간
의 각종 질병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 즉, 항생 의약품질, 생물학적 제
제, 의료 화합물 등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 및 이들 의약품의 도·소매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문환규, 2006)

-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은 앞서 정의한 의약품산업의 범위 내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소비하는 비중에 따라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문환규, 2006)
- 고령친화 의료품 산업에는 인구고령화·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의약품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성 질병에 대한 의약품과 질병의 치료목적 이외에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음(문환규, 2006)

[표 2-3] 고령친화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구분	산업코드 (5digit)	산업 세세명
고령친화 요양산업	Q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Q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Q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9	그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C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C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C21220	한의학품 제조업
	C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고령친화 식품산업	C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C10309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C10795	인삼식품 제조업
	C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C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C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C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C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C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C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C20433	화장품 제조업
고령친화	C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구분	산업코드 (5digit)	산업 세세명	
의료기기산업	C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C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고령친화 용품산업	C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C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C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C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C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C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C22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C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C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C27310	안경 제조업	
	C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C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C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C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C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C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C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C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고령친화 주거산업	C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C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C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고령친화 여가산업	G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G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R90110	공연시설 운영업	
	R90121	연극단체	
	R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R90123	기타 공연단체	
	R90191	공연 기획업	
고령친화	R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구분	산업코드 (5digit)	산업 세세명
여가산업 (계속)	R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R90221	박물관 운영업
	R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R90232	자연공원 운영업
	R90290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R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R91113	경주장 운영업
	R91121	골프장 운영업
	R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R91133	수영장 운영업
	R91134	볼링장 운영업
	R91135	당구장 운영업
	R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R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R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31	낚시장 운영업
	R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1	무도장 운영업
	R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R91293	기원 운영업	
R9129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고령친화 금융산업	K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K66199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 고령친화 식품산업

-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생리적인 노화가 진행되어 면역기능의 약화, 소화기능의 저하, 근골격의 약화 등으로 각종 질병이나 상해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체의 기능적인 쇠퇴를 최소화하고자 개발·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 식품산업분야의 유망산업으로 적절
-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범주에는 ① 일반 식품산업 (고령노인비율에 따른 시장규모 산정) ② 일반식품 중에 정상적으로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노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가공된 특수의료 용도식품산업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의 시장규모) ③ 건강기능식품산업 전체를 포함하고 있음

□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 인구구조의 고령화, 웰빙 트렌드, 미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능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친화 화장품 산업은 고령자의 피부타입 및 신체 기능약화에 따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 뜻함
- 고령친화 화장품 산업은 피부과학을 중심으로 한방, 천연물, 합성성분, 피부측정 등 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이 될 수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친화화장품 산업은 2020년 2조 1,6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이는 전체 화장품 산업 비중의 12%를 차지하는 수치로 해석됨

□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이란 각종 소모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현재 고령자, 예비고령자 계층 등이 쾌적한 노후와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의료복지기기를 제조하는 산업군을 의미
 - 의료기기 및 복지기기의 특징은 BT, IT, NT 지능형 융합기술 산업으로써 기존생활 및 건강용 의료복지기기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개선시킨 Universal Design 제품군을 의미
 - 고령친화폰, 재택원격 헬스케어 시스템, 모듈형 휠체어, 인공 의수족, 전동식 침대 및 생활 건강용품 등이 대표적인 예로 소량 다품종의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전기, 전자 등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과 연관성이 높음

□ 고령친화 용품산업

- 고령친화용품이란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수발, 일상생활, 여가 문화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용품을 말하며, 현재 고령친화 용품관련 품목분류는 의료기기와 재활보조기구 영역과 겹쳐있는 상태
 - 고령친화 용품산업은 크게 치료분야, 개인건강 의료용품, 기능저하 예방용품, 이동기기, 목욕용품, 배변용품, 침구용품, 가사용품, 주거설비용품, 정토봉신기기, 여가 용품으로 구분되어짐
 - 타 산업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일본 및 미국에 비해 고령친화 용품산업의 수준은 떨어지는 편이며, 국내에서는 주로 개인건강 의료용품과 여가용품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함(문혜선, 2019)

[표 2-4] 고령친화 용품산업 구분 및 내용

품목	내용(제품)
개인건강, 의료용품	건강측정용품, 호흡기치료용품, 투약용품, 욕창예방용품, 온열·한냉용품, 안마기, 자극기, 한방기기, 신발·의류, 신체보호용품
기능저하예방용품	유산소운동용품, 근력운동용품, 기능훈련용품, 근력 및 운동기능 측정용품
이동기기	한손조작보행용품, 보행보조기, 복지차량,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변환 용구, 리프트, 보행보조기 부착품, 휠체어 부착품, 자동차 개조용 부품
목욕용품	목욕보조용품, 기타 목욕 용품
배변용품	배변처리기, 기저위 용품, 화장실 용품
침구용품	침대, 매트리스·모포 및 배개, 침대용 탁자, 침대부품
가사용품	취사용품, 세척용품, 식사용품, 청소용품, 의류제작 및 수선용품, 탁자
주거설비용품	조명기구, 의자용기구, 수납기구, 가구높이조절장치, 안전손잡이, 문·창·커튼 개폐장치, 주택용 건축부품, 수직승강장치, 건축물용 안전장치
정보통신기기	시각용품, 청각용품, 발성용품, 그리기·글쓰기용품, 전화기·통화용기기, 신호표시기·경보기
여가용품	완구, 게임, 스포츠용품, 악기, 사진용품, 수공예용품, 애완용품

자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2012)

□ 고령친화 주거산업

- 고령친화 주거산업이란 고령자만 거주해도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산업과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전용 주거를 공급하는 산업을 의미

[표 2-5] 고령친화 주거산업 구분 및 내용

구분	내용
주택개조	신체적 노화에 대응하는 평면 및 설비를 갖춘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고령자를 위한 주거관련 설비(욕조, 손잡이, 수변장치, 문짝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 생산
고령자 주택공급	고령에 맞는 주거공간을 갖춘 독립된 주호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양로시설, 주택공급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조리, 청소 또는 개인적 간호,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거주하기 쉽도록 서비스와 설비를 갖춘 주택 및 시설 제공 고령자주택에 요양시설, 병원 등을 병설한 통합형 주거로 제공

자료: 문환규(2006)

□ 고령친화 여가산업

- 고령친화 여가산업은 문화산업, 여행/레저산업, 스포츠산업으로 분류가능
 - 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가활동에는 TV시청, 놀이·오락, 음주·차마시기, 취미활동, 문화활동, 운동, 여행, 만남, 종교활동, 노인회관 참여, 학습활동, 사회봉사활동, 쇼핑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고령친화 여가산업과 관련된 것은 크게 ① 문화산업, ② 관광레저산업, ③ 운동·스포츠시설운영 등 스포츠 산업으로 분류 가능

□ 고령친화 금융산업

- 고령친화 금융산업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계층이 안게 될 생존리스크, 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에 대응하여 안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담당
 - 생존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개인연금, 역모기지 제도 등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
 - 건강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재무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서비스가 포함

제3절 고령친화산업의 특성과 전망

1.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 고령친화산업의 공급과 수요측면에 따른 특성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상기의 정의에 따를 경우, 해당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됨
 - 고령친화산업은 “현 수준보다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 아니라, 저하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저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욕구 충족을 위한 산업”(문명국 외, 2018: 25). 이러한 특징은 한 사회에서 각종 능력 저하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개인들의 보호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관점에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으로 귀결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산업이 사회, 신체, 경제적 능력 저하를 경험하는 이들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한국은행, 2007). 즉 고령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공공성 측면과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측면이 병존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것(한국은행, 2007: ii). 이러한 특성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나 역할이 노인복지 영역과 같을 수 없음을 의미함
 - 또한 고령친화산업이 산업이나 제품, 서비스의 특성에 기반하여 구분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었다는 점은 이 산업이 “세분화된 소형 시장의 합”(문명국 외, 2018: 26)이라는 특징을 지니도록 만들. 따라서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역시 다른 산업 영역과는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산업 정책이 규모의 경제보다 ‘범위의 경제성 및 연결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음(문명국 외, 2018: 26)

2. 고령친화산업의 전망

□ 고령친화산업의 공급측면

○ 영세한 산업구조

- 고령친화용품 산업체는 평균자본금 8억원, 평균종사자수 18명 수준으로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 형태로 운영(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2007, 20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2012)
- 복지용구 등 대부분은 일본, 유럽 제품을 단순 카피 수준으로 제품 기술격차도 미미하고, 고령친화 관련 국내 특허등록은 43건으로 낮고, 이중 제약분야가 21건(48.8%)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 2012)
- 경쟁력을 갖춘 산업체는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을 모색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개발동향, 시장정보 등 현황파악이 어려움

○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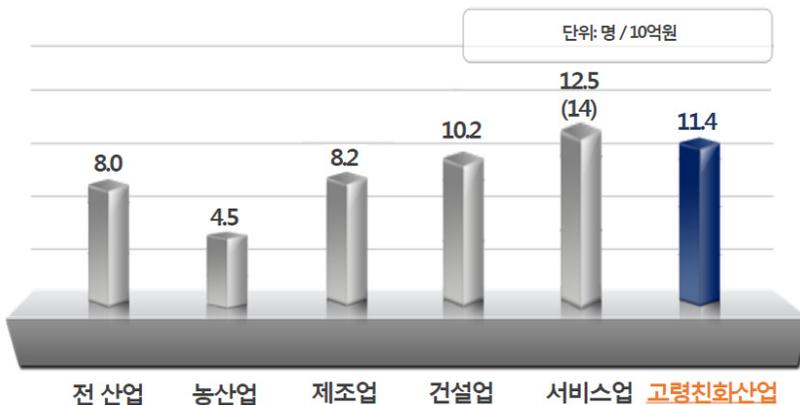
- 고령친화산업 공급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실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관련 기업의 역량 제고를 통해서 차별적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고기능 고품질의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문혜선, 2019)
- 고령친화산업 공급자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건강과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보건 및 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한방, 장묘 등의 산업과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금융, 문화 및 여가, 전자 및 정보, 주택, 교육,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령친화산업 발전 위해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

- 공급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중소기업 적합산업으로서 수요자측면에서 고령자들이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 니즈를 파악한 후 낙후된 R&D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필요

- 4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고령친화산업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 예상
 - 고령친화산업은 11.4%(2018 기준)로 높은 고용유발계수 나타냄
 - 고령친화산업에 관련된 직업군 중에서도 자동화로 할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직업군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일자리 공급의 측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 필요

[그림 2-1] 고용유발계수



자료: 한국은행(2018) 산업연관표

□ 고령친화산업의 수요측면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는 확대될 전망
 -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수요자는 고령자(65세 이상)이며 장래 주요 수요자로 베이비부세대(1953~1965년생)로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이해
 - 경제력을 갖춘 최대 소비층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와 2026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20%로 접어들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4)

- 고령층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필요
 - 고령자를 소비 주체자로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고령층의 수요파악에 관련된 종합적인 실태조사 필요
- 수요기반 창출 필요
 - 고령친화산업 수요기반 창출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인식제고를 위한 고령친화 캠페인 사업 개발 및 운영, 고령친화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활동의 활성화 필요
- 고령자 및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통합적 접근 필요
 -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소개, 각종 정보에 대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소득공제 등 소비촉진을 위한 one-stop 통합 플랫폼 마련 필요

제3장

고령친화산업 국내정책동향 분석

제1절 중앙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정책

제2절 지방자치단체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정책

제3절 시사점 도출

제3장

고령친화산업 국내정책동향 분석

KRILA

제1절

중앙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정책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고령친화산업 정책

□ 고령친화산업 관련 국내 정책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을 바탕으로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음
 -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 이어 현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이 추진 중이며, 제3차 계획에서는 고령사회의 대응 분야를 일자리,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4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의 계획을 제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 육성관련 사항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주요 정책 부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될 중장기적 의제는 현재 논의 중
 - 제1차 계획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제품 품질 표시, 우수 서비스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등으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중점(문혜선, 2019)
 - 제2차 계획에서는 고령친화제품 상용성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표시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고령친화 해외

- 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한 시장 진출 지원 계획이 제시됨(문혜선, 2019)
- 제3차 계획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IT 연계 스마트케어, 고령친화 관광산업, 고령친화식품산업 등을 육성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사용자 중심 제품개발을 강화하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등 고령친화산업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문혜선, 2019)

【표 3-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주요 정책 방향

제1차 계획 (2006~2010)	제2차 계획 (2011~2015)	제3차 계획 (201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산업발전 기반마련 • 우수제품 상용화 기반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사용화 지원 확대 •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등 수요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시대로 고령친화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 고령친화산업 육성(IT 연계 스마트케어, 관광, 식품 등) • 사용자 중심 제품 개발 • 종합지원체계 마련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고령친화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 「저출산 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친화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IT분야와 연계하여 스마트케어, 고령친화 관광산업, 고령친화 식품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사용자 중심 제품개발을 강화하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 두고 있음
- 특히, 돌봄, 의료, 웨어러블, 물류 등 4대 분야에 관련된 기술개발 집중 지원 예정이며 신약 의료기기 로봇,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인력양성을 확대할 예정

【표 3-2】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과제

고령친화산업 육성 과제명	소관부처
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개방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원격의료)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산업부 바이오나노과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문화부 관광정책과
고령친화 식품산업 육성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과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체계 강화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산업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고령친화산업 인식 증진 및 소비 활성화 기반 마련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의 표준화 인증 활성화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의 표준화 인증 활성화 (국내외 표준화 추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기반 강화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과학기술부 생명기술과

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 관계부처 합동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방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 발표³⁾

- 2019년 범부처 인구구조 TF의 구성 운영을 통해 생산 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의 4대 전략이 제시됨
 - 노동, 복지, 산업, 재정, 국방 등 전반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단기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제로서 두 번째 대응책으로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이 제시됨

□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주요내용

-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기반조성
 - 고령친화산업의 범주 재정립, 영역별 산업현황(필요기술, 적용수준, 업체 등)과 고령자의 욕구·소비 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고령친화 신산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령자 니즈 파악과 지원을 위해 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
 - 고령자 생활패턴 등에 관련된 기초자료 확보 및 산업분석을 통한 고령친화 제품·시스템·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립
- 고령친화 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 창출
 - (규제·제도개선) 고령친화제품의 품질기준 강화와 우수 제품 지정 확대, 우수제품의 복지용구 등재시 유통실적 제출 면제 및 규제샌드박스 활용 실증 특례 부여
 - (사용자 연계형 기술개발) 고령자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의료기기,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新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 인력 양성
 - (서비스 로봇) 돌봄, 의료, 웨어러블, 물류 등 4대 분야 기술개발 집중 지원

3) 2019.11.13.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sessionId=r7385DC0pSh0bM7H8aVdlV+1.node30?atchFileId=ATCH_000000000012349&fileSn=2

-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차량 및 온디맨드 시스템 개발 공동기획(21~)
- (초기시장 창출) 의료기기와 교육·서비스 패키지 수출지원, 국산 제품·서비스 사용 인센티브 부여,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
-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 추진
 - 정부는 기재부·복지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그림 3-1]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제시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전략

4대 전략 및 20개 정책 과제	
전략 1: 생산연령인구 확충(3)	전략 4: 복지지출 증가 관리(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정책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전략 2: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8)	전략 3: 고령인구 증가 대응(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기본계획 이행 및 제4차 수립 ▪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 ▪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 ▪ 군인력 충원체계 개선 ▪ 공공생활 서비스 체계 개편 ▪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 ▪ 지역공모사업 연계·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 주택정책 방향 전환 ▪ 인구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 주택연금 활성화 ▪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경제 활력 대책회의 자료

3. 부처별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1) 보건복지부

고령자의 건강산업 분야에 대응

- 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산업 분야의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 시행 중이며, 2002년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16~2020)에서는 건강한 생활의 실천 및 확산, 감염질환 관리, 안전 환경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또한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16)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 계획을 실행해 오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 및 제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지원도 함께 수행
 - 고령친화용품, 고령친화식품, 활동적 노화 지원, 고령화 대응 기술개발, 노인 코호트 구축 등을 지원
-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치매 안심 R&D기술 추진, 맞춤형 돌봄 재활 로봇, 장애 해소 기술개발, 맞춤형 정밀의료 및 바이오 재생의료 기반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2) 산업통상자원부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사업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담당할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
 - 고령친화산업 업무수행 정규 전담인력(4인 이상) 및 조직을 보유하고, 최근 2년간 고령친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가로 산·학·연 및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인력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기관을 2년 동안 지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노령인구의 생활 복지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령친화기기·시설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보급하는 사업에 중점
 -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고령자의 저하된 신체기능 회복과 재활, 복지형 헬스케어에 관련된 제품과 기술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령자 인지기능, 행동패턴 기반의 안전성, 편리성, 자립성 확보를 위한 제품, 서비스디자인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생활안전, 이동기기, 보조기기, 사회적자립 등)

4) 문화체육관광부

고령자의 문화·예술·체험 관련 R&D 개발 추진

- 제3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2019)에는 문화 복지 체감 서비스 구현의 일환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의 문화 예술 창작과 향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의 개발, 가상체험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 중
 - 시니어 인지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고령자의 문화 활동 기반 구축 추진

5) 중소벤처기업부

고령친화 산업체 지원사업

- 국내 고령친화산업 관련 산업체의 제품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 등 글로벌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해외박람회 참가 등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
 -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의 고령친화아이템을 보유한 국내 고령친화산업체 지원하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5G 기술 등을 보유한 업체 우선적으로 지원
 - 사업화 진단을 통한 시장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산업체가 제출한 비즈니스 모델 및 요구사항 등을 기반으로 기술 수요자 발굴, 자금흐름 등을 파악하여 시장진출 전략 수립 지원
 - 사업화 및 시장진출 지원 : 아이টে에 관심 있는 기술 수요자 파트너링, 라이선싱, 유통·판매 등 협상 및 계약 지원

[표 3-3] 고령친화산업체 지원내용

지원명	지원내용
품질 개선 지원	컨설팅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스마트 웰니스(wellness)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 규제혁신 통해 스마트 웰니스에 관련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장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 스마트 웰니스 산업육성을 통해 첨단의료기기 기술사업화 실증지원, 스마트 임상플랫폼 실증 사업화 지원, 지능형 의료 웰니스 실증사업화 지원

[표 3-4]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사항

세부사업명	특례부여 현황
첨단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 및 품질 책임자 공동 지정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 공동제조소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 업무위탁 증명자료(위수탁계약서) 제출, 품질책임자 지정 교육의무 준수 <p>* 품질책임자는 대표지정, 품질관리 업무 위탁</p>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 허용 <p>→ (부대조건) 인체유래물(지방) 기증자에 대한 동의 등 윤리적 측면과 기증자 적합성, 콜라겐 제조공정의 안전성, 기증자 추적 및 병력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검증하는 등</p>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택수집 데이터 전송 및 피임상자 관리안내 기반의 임상시험 허용 • 의사가 환자상태를 모니터링(내원 안내) 및 상담(교육·안내) 하고, 원격으로 수집된 정보는 대면진료시 활용 가능 • 수집된 의료정보의 저장·관리는 의료법 등 관련 규정 준수 필요 • 모니터링 기기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시, 실증특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허가사항(기기→ 서버로 데이터 전송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관련
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플랫폼구축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클라우드 기반 비식별 웰니스 데이터 저장관리 공유 허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41호

제2절 지방자치단체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정책

1.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 조례제정 일자

- 서울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8년 1월 4일 제정

□ 조례 주요내용

- 해당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 때 종합계획에는 1)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목표, 2) 재원조달 방식, 3)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제4조)
-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인적자원 확보, 재정지원 필요성 명시
 - 고령친화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시 차원의 노력 이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제6조), 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 안의 재정지원이 가능함 역시 명시(제8조)
-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을 명시(제5조)
 -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품목 중에는 의약품 등 부작용 발생 시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도 있기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거나, 사례 발생 시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명시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 사업의 추진내용

- 서울시는 2013년 국내 최초로 GNFAFCC⁴⁾에 가입하면서, 고령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고령친화서울, 2020)
 -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고령친화산업 지원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여기에 시설과 관련된 정책(노인종합복지관 기능개편, 복지시설 확충,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이 포함되어 있고,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⁵⁾하는 등 주택과 시설 관련 지원 정책이 일부 포함(서울시, 2012)

2. 부산광역시

1)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 조례제정 일자

- 부산시의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6년 9월 제정
 - 부산시는 국내에서 제일 빠르게 조례안 제정

□ 조례 주요내용

- 해당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상기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 정부가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

4) WHO 산하 고령친화도시글로벌 네트워크(WHO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고령친화도시 인증 실시 중

5) 임대주택의 저층부 1~2층을 고령자용으로 공급하는 등,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주거 환경 제공(서울시, 2012: 36)

- 이 때 종합계획에는 1)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분석, 2)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목표, 3)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방식, 4) 기업 유치 및 지원 정책의 내용, 5) 제도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제4조)
- 고령친화산업 육성 위해 인적자원 확보, 재정지원, 판로개척 등의 정책 지원
 -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 재정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7조)
 - 이와 함께 지역내 고령친화산업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제8조), 국제동향 파악은 물론 판로개척의 임무 역시 명시(제9조)
 -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정부 차원에서의 고령친화산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제10조~11조)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 사업의 추진내용

-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지원 조례를 마련한 만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김도관, 2018)
 - 부산지역은 2005년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가 설립되었을 만큼 상대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생태계 다양성을 갖추고 있고, 2008년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⁶⁾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원 조례를 마련할 만큼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는 특징을 보임(김도관, 2018: 56)
 - 18년에는 ‘부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⁷⁾

6) 2020년 3월 기준 부산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부산테크노파크내 라이프케어기술단 소속으로 편재(<http://www.btp.or.kr/?action=CM0010S&pagecode=P000000262&language=KR>)(검색일: 2020.03.23.)

7) 조례가 개정된 후 부산시에서 최초 수립된 종합계획이자, 전국 기준으로도 최초 종합계획(부산시 보도자료. 2018.12) <http://www.busan.go.kr/nbtnews/1356020?curPage=&srchBeginDt=2018-12-01&srchEndDt=2019-01-01&srchKey=&srchText=> (검색일: 2020.03.23.)

[표 3-5] 부산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전략과제

전략	목표	세부과제	
기업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국산 의로기기 개발 활성화	고령친화산업체 R&D기획 및 제품 성능테스트 지원	- 제품·서비스 개발 연구회 운영 지원(4개사), 특허전략 수립 지원(4개사) - 시험인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차세대 재활복지 의로기기 육성	- 장비 구축 45종, 분야별 공인인증 자격 확보 - 헬스케어를 주제로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 4회 개최 -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제품 고급화를 위한 지원 등
		고령친화산업융합협의체 운영	- 고령친화산업융합협의체발대식 개최, 연2회 이상 운영
		고령친화산업 기술세미나 개최	- 최신 기술 정보 공유를 위한 기술세미나 연2회 개최
판로 개척 및 홍보강화로 생태계 조성	고령친화산업의 민간시장 확대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확충	- 영세기업의 판로 창구 및 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체험관 매년 1개소 확충
		국제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 개최	-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로 계약 달성
		고령친화산업 빅데이터 구축	- 데이터 수집 및 기업 실태조사로 종합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요양시설 내 재활훈련기기 보급	- 시 직영 요양시설 5개소 내 신체 및 인지 재활기기 보급
소비자 중심 R&D 활성화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 및 건강 증진 기여	가상현실기술(VR·AR·MR) 적용 재활운동·의료기기 개발	- 추억을 VR에 담기 기억을 되살리는 인지 훈련기기 및 고령자용 운동기기 개발
		고령자용 스마트 기능회복·훈련 및 돌봄 로봇 기술개발	- 보행지원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반력 로봇, AI 기능 침대 또는 휠체어 개발
		고령자 생활안전 및 홈헬스케어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실증	- 독거 노인의 주택 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IoT 적용 홈 시스템 개발 및 보급
기술·기기를 활용한 독립생활 지원	복지차원에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복지용구 대여서비스 기능 강화	- 장기요양보험 미 혜택 노인을 위한 복지용구 대여 및 소독 서비스
		노인생활체험관 교육지원센터 운영	- 노인 및 부양자 대상 사회, 문화, 건강 등 다양한 교육 지원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지원	- LED 취침등 교체, 야광 안전고리 설치, 문턱 제거 등으로 안전한 주거 생활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 계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자료: 부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종합계획(2018.12)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산업지원 노력 이행
 - 부산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술역량 강화 및 기업지원, 용품의 공동연구 및 인증 지원, 재활복지의료기기 인프라구축은 물론 찾아가는 이동노인복지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품과 서비스 영역 모두를 담당(부산테크노파크, 2020)
 - 특히 20년에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사용성평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고령친화제품에 대해 수용자중심의 전임상적 시험을 담당하게 됨(부산시 보도자료, 2020.03)⁸⁾
 - 이를 통해 우수제품 발굴 및 시장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내 고령자층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꾀하고 있음

[그림 3-2] 부산 고령친화산업진흥센터의 고령친화제품 사업성평가 사업



자료: 부산시 보도자료(2020.03)

8) 부산시 보도자료, 부산시, 고령친화제품 산업 도약의 기반 마련(2020.03.20.). <https://www.busan.go.kr/nbtnewsBU/1426203?curPage=&srchBeginDt=2020-03-17&srchEndDt=2020-03-24&srchKey=&srchText=> (검색일: 2020.03.23.)

3. 대구광역시

1) 대구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관련조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사업의 추진내용

- 대구시니어체험관 운영
 - 대구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대구시니어체험관을 운영. 해당 기관을 통해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 및 판매, 관련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진행(매일신문, 2018.06)
 - 해당 체험관은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종합체험관 구축을 통해 산업 육성, 대구경북의 고령친화산업 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됨(박민규·함윤주, 2015: 59)
 - 해당 시설을 통해 고령친화 여가용품, 이동기기, 의료용품등의 전시관 및 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이 외에 고령자 대상 교육시설, 사용성평가센터, 기타 기업 지원시설 운영(박민규·함윤주, 2015: 60-6)
 - 그러나 최초 목적과 달리 시설이 복지 프로그램(고령자 대상 운동 프로그램 및 사교프로그램 등) 위주로 운영되고, 그로 인해 기타 노인복지시설과의 차별성 확보에 실패하여(박민규·함윤주, 2015: 70-1) 2018년 폐관
 - 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노인복지 사업 지원과는 그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⁹⁾

9) 또한 대구에는 고령친화산업 지원 및 체험관에 대한 시 조례가 없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컸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됨(김정득 외, 2018: 68)

4. 인천광역시

1) 인천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관련조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를 만들어 고령친화환경 조성 위한 노력

- 인천시는 아직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노력이 고령친화환경 조성에 집중되어 있음
 - 고령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2017년 설립된 인천 고령사회 대응센터
 - 해당 센터를 통해 설계된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8~2022) 수립에도, 고령친화산업 지원 및 육성 내용은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음
 - 해당 계획에는 교통환경 개선(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이나 기타 시설관련 인프라 확충(노인여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등) 노력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업 육성 및 지원보다는 복지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는 특징을 보임

5. 광주광역시

1)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광주시의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3월 1일 제정

조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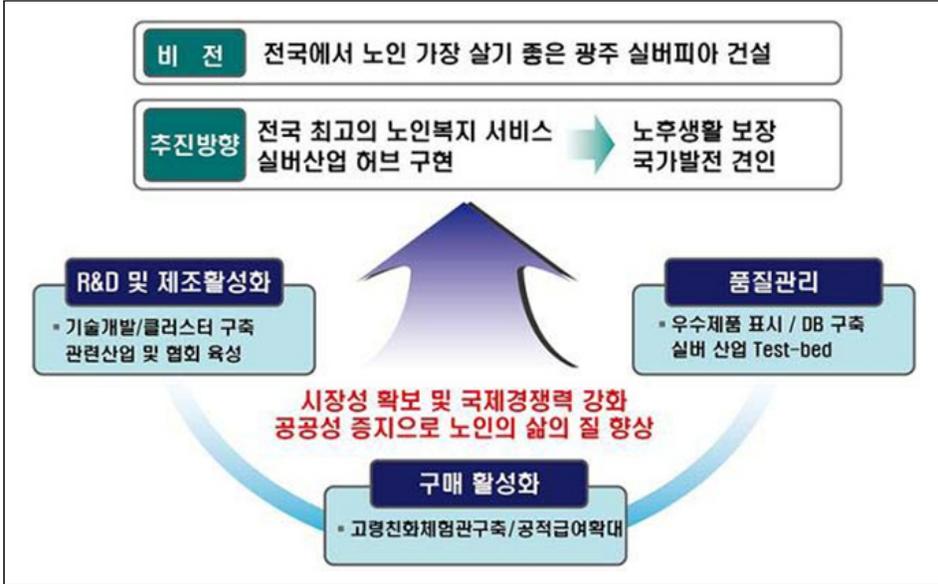
- 해당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제1조)
 - 목적 달성 위해 1)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설정, 2) 재원조달 방식, 3)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함(제4조)
- 고령친화산업 육성 위해 인적자원 확보, 재정지원, 기업유치 등의 정책 지원
 - 광주시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소비자권익 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실태조사 및 DB구축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명시(제5조)
 - 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협력을 위한 상시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제10조~11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마련

- 광주시는 2016년 6월 고령친화산업 지원 및 육성을 담당하게 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¹⁰⁾
 - 해당 기관을 통해 고령친화제품 체험, 제품의 기술개발이나 표준화 지원, 산업관련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제4조)

10)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립조례는 2012년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연혁 참고)

[그림 3-3]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



자료: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육성 종합계획 (2018)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운영

- 광주시는 고령친화산업을 지역 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그 일환으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 산업지원센터는 최초 고령친화체험관으로 시작하였으며, 2016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 산업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020)
- 지원센터는 지역내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수행
 - 사업은 기술지도 및 이전, 시제품제작, 서비스모델 발굴, 판로개척, 산업특화분야 발굴, 신규 국비사업 수주 등으로 구성(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020)

- 사업 지원과 함께 상품 및 서비스의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 봉사단 운영, 애로기술상담 등의 사업 역시 병행
- 2020년에도 고령친화제품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수행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3-6】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기업지원 정책(2020년)

지원내용	세부내용	비고
시제품 제작지원	고령친화관련 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	총 3건(최대 8,000천원/건)
마케팅 지원	기업 홍보마케팅 향상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지원 기업제품 판매향상을 위한 제품 E카달로그 제작 지원 그 외 제품 인지도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위한 지원	총 6건(최대 3,000천원/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국내외 인증 관련 심사/컨설팅/시험/인증 비용 지원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및 관련 컨설팅비 지원	총 3건(최대 5,000천원/건)
기획 지원	초고령사회 대응 우수기술 개발 및 사업화 관련 기획연구 지원	총 2건(최대 5,000천원/건)
사용적합성 평가지원	수혜기업 의로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지원	총 1건(최대 8,000천원/건)
임상의사 매칭 프로그램 및 임상시험 설계 자문	임상의사 매칭 프로그램 및 임상시험 설계 자문 (인프라 활용관련 임상의와 매칭 지원 / 예산은 매칭 임상전문의 자문료로 지급)	총 3건

자료: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http://gstc.or.kr/business_1/11975) (검색일: 2020.03.26.)

-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및 지역연고기업 지원 사업도 병행
 - 지원센터는 퇴직 우수 기술전문가를 활용, 중소기업대상 멘토링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우수인력 양성을 가능하도록 함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020)
- 고령친화 상품 및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운영
 - 아동, 청소년, 성인은 물론 고령자, 전문종사자, 기업 등에게 다양한 친고령 제품의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합적 기능

을 수행(김정득 외, 2018: 51)

- 특히 센터 주변에 광주 빙고을건강타운, 요양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지역 내 많은 고령자들이 시설을 방문, 상품 및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리적 이점 역시 존재(김정득 외, 2018: 56)

○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연합뉴스, 2018.08)

[그림 3-4]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시설 설립



자료: 김정득 외(2018: 56)

6. 대전광역시

1)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대전시는 2020년 3월 기준,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를 공지한 상황
 - 조례안 예고를 통해 해당 조례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전시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다고 밝히고 있음(대전광역시 의회, 2020)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사업의 추진내용

- 2015년, 대전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연합뉴스, 2015.09)
 - 2015년 대전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방안 토론회에서 대전이 지닌 첨단과학 도시, 고학력 도시, “고령화라는 특징을 활용해 실버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경제 저성장과 같은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일 수 있기에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연합뉴스, 2015.09)
 - 이러한 지적은 2020년에도 제기됨. 대전의 2047년 고령인구가 36%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신중년 일자리를 확보해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대안으로 고령친화산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금강일보, 2020.01)
 - 이러한 지역 내 문제 인식이 관련 조례 제정예고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대전지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7. 울산광역시

1) 울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울산은 2020년 3월 기준, 고령친화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
 - 다만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2019년 8월 제정) 안에서 부분적으로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음¹¹⁾
 - 하지만 고령친화산업의 정의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는 노인복지와는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며, 따라서 해당 조례 안에서 유사한 목적(고령자를 위한 시설확충, 편의증진 등)을 지닌 조항이 있다고 하나 산업지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사업의 추진내용

- 울산의 정책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조례가 친화도시 구성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정책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
 - 울산시는 WHO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음

11) 이와 유사한 광역 단체(고령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조례만 제정)에는 대구, 인천, 세종, 충청남북, 전북, 경상남북이 있음. 단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황(2020.03 기준)

8. 세종특별자치시

1)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관련조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사업의 추진내용

- 2033년 세종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세종시, 2020)
 - 하지만 고령친화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에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음

9. 경기도

1) 경기도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경기도는 2019년 1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조례 주요내용

- 해당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제1조)
 -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설정, 2) 재원조달 방식, 3)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함(제4조)

- 고령친화산업 육성 위해 인적자원 확보, 재정지원, 기업유치 등의 정책 지원
 -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제6조)
 - 이와 함께 연구개발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상시적인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 강조(제7조~9조)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의무 역시 명시(제5조)
 - 이를 통해 고령 친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개인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건전한 소비를 위한 홍보, 교육, 연구 등의 사업 수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 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고령친화산업 체험관인 고령친화체험관을 성남에 운영(2008년 개관, 성남고령친화체험관, 2020)
 - 을지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제품 체험관은 물론 R&D지원 센터도 운영함으로써 기업 및 기술지원 사업 수행

[표 3-7]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기업 및 기술지원 사업

사업	주요전략	세부사업
기업지원 사업	고령친화산업 동반협력기업 지원 고령친화산업 동반협력기업 1:1 매칭 첨단기술 융복합 고령친화용품 기술고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대상 실태 및 수요조사 • 현장 맞춤형 기술자문 사업 • 현장 애로기술 해결 • 기술개발 지원 • 스피스 서비스 및 사업화 지원 • 해외 판로개척 지원 • R&D 교육지원 • 기술성장 위한 전문가 매칭 • 상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 고령친화기술 고도화 • 국가과제 기획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	주요전략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인증서비스 지원 고령기술자문단 운영
기술지원	고령친화 기술고도화 위한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작분석실 운영하여 고령자의 일상생활 동작 등의 특성 평가 생체계측실 운영하여 상품 사업성평가 시 고령자 생체신호 데이터 생성 통해 기술적 요소 제공 운동기능학 평가실 운영 통해 고령자의 근골격계 특성평가 지원 시제품 제작실 통해 고령친화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R&D 활동 지원 및 개발된 제품의 효용성 검증 지원
한국시니어리빙랩	사용자 패널을 구축, 리빙랩 서비스 제공하여 소비자 중심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시니어 평가단 발대 및 운영

자료: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2020) http://www.miraeseum.or.kr/contents/business_0401.php?breadcrumb=3_4_1 (검색일: 2020.03.27.)

2020년 도내에서는 최초로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 사업 실시

- 도내 고령친화 비영리 사회적경제 기업 및 기타 비영리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산업 공모 실시
 - 이는 경기도에서 최초 실시되는 지원사업(경기평화신문, 2020.02)

[표 3-8] 경기도의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 분야(2020년)

분 야	사 업 유 형
교 육	고령친화제품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
고령친화 기술개발	생활밀착형 고령친화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활동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및 규격인증
고령친화 제품마케팅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무역상담회) 개최 및 참가
	고령친화 판매홍보(홈페이지 구축, 팸플릿 제작, 체험관 운영 등)
기 타	노인 돌봄, 노인 안전보호 등 고령친화 산업 관련

자료: 경기도 공고(2020)

10. 강원도

1)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강원도는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광역단체 중 가장 최근인 2020년 3월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조례 주요내용

- 강원도의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제1조)
 -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발전시책, 2) 산업 기반조성, 3) 재원확보 및 배분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수의 사업을 추진 가능하도록 함
 - 광역단체 수준에서 산업의 기반구축, 기술개발, 산업의 홍보, DB 구축, 공청회 개최 사업을 추진 가능하도록 명시(제5조)
-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의무 명시
 -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제6조~7조)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사업의 추진내용

- 강원도는 고령친화산업 초기부터 산업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진행
 - 강원은 국내 고령화 상황과 도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 현상이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¹²⁾을 토대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필

요성을 인식(김진기, 2006: 4-6)

- 초기 보고서를 통해 강원도의 경우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식이나 저변이 부족하기에, 기구나 조직적 정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관련 조례가 2020년 제정될 만큼 아직 산업육성을 위한 노력이 초기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음

11. 충청북도

1) 충북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관련조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사업의 추진내용

- 지방정부 차원의 육성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음
 -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아직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 집행의 노력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3년까지 고령친화산업 부문 종사자 증가율이 24.3%로 전국 평균인 14.3%보다 높고(충북일보, 2016.01), 2016년 기준 관내 관련 산업체가 전체 산업체의 약 4.9%를 차지(동양일보, 2017.05)
 - 또한 관내에 고령친화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 위치¹³⁾하고 있고, 다양한 국책기관 역시 입지해 있기에 이를 연계할 경우 큰 시너지효과를 창

12) 초기 보고서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찾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를 공공 재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고령친화산업을 통해 양질의 복지 공급은 물론 국가의 재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김진기, 2006:6)

13) 충북에 오송첨복단지, 제천한방타운 등 R&D와 생산, 테스트와 관련된 클러스터가 자리잡고 있어 고령친화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하다는 지적(동양일보, 2017.05)

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도 함(동양일보, 2017.05). 이에 따라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 아직 광역정부 차원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내 괴산군이 지역 대학과 함께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기도 함(충북경제신문, 2019.10). 이를 통해 지역 특화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 시니어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

12. 충청남도

1) 충남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관련조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사업의 추진내용

- 초고령사회를 대비, 충남 역시 지역정부 차원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충남은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지원조례를 시행,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복지제도 마련, 일자리 제공 등의 노력을 이행하도록 했지만 이것이 고령화에 따른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지적됨(보령뉴스, 2019.01)

13. 전라북도

1) 전북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관련조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 사업의 추진내용

- 전북은 고령친화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음
 - 고령친화산업이 사회적 관심을 받던 2000년대 중반, 전북 역시 고령친화산업을 세부적인 산업 및 서비스 항목으로 구분, 부서별로 특화해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컨트롤타워 및 관련 조례의 부재로 인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전북일보, 2015.10)
 - 2018년 전라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살펴보면,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인시설(노인복지관) 확대, 노인은퇴자의 작업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만(전라북도, 2018: 346-58) 고령친화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미비한 상황

14. 전라남도

1)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 조례제정 일자

- 2019년 7월 9일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부록]참고)
 - 조례제정을 토대로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전남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전략사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주된 목적으로 함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사업의 추진내용

- 현재 추진 중인 세부사업은 없으나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토대를 마련 중에 있음
 - 전라남도는 또한 고령친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음
- 전라남도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추진 중인 세부사업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지만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블루 이코노미」 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
 - 구체적으로 「블루 바이오」, 「블루 투어」, 「블루 트랜스포트」, 「블루 농수산」, 「블루 시티」 프로젝트 안에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고령친화 세부 추진사업 모색

15. 경상북도

1) 경북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관련조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사업의 추진내용

- 고령친화산업을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목표 제시
 - 경북은 13년, 고령친화산업을 지역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음(대구신문, 2013.07). 경북은 고령친화산업 모태산업의 발전여건을 형성한 바 있고, 그동안의 지역산업육성정책 경험과 거점대학 등을 보유하고 있기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정만태, 2012: 147-9)

- 하지만 동시에 2000년대 중반 이후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설립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령친화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 부재하고, 관내 관련산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량 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지녔다고 설명(정만태, 2012: 153-4)
- 그에 따라 2013년 산업지원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2018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다시 한 번 수행하여 고령친화산업 전문단지 구성, 고령친화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중앙부처 정책과의 연계강화 등의 전략을 도출하기도 하였음(김상우, 2018)

16. 경상남도

1) 경남 안동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경남의 경우, 광역이 아닌 안동시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안동시는 2019년 11월 「안동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조례 주요내용

- 안동시의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제1조)
 -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목표, 2) 재원조달,

3) 제도개선 필요 사항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매해 시행하도록 의무화(제4조)

-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재정은 물론 협력체계구축의 노력 이행을
 명시
 - 고령친화산업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재정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역시 이행하도록 명시(제6조~7조)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 사업의 추진내용

- 경상남도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
 - 경상남도는 2018년 기준 고령화 대책 사업을 12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등 대부분 복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산업으로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박승규·김도형, 2018: 47-78). 대표적인 경남의 사업내
 용은 고령친화도시 육성, 시니어창업지원, 항노화의료산업 시행 중
- 고령친화 도시 육성 (남해)
 - 남해시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 도시 지정을 받음. 경
 상남도에서는 최초로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쾌적하고 안전한 삶, 참여와 소통의 공동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목표로 52개 실행계획을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이루어진 고
 령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단을 4월 24일 위촉함.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52개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상 속 노인의 관점에
 서 불편사항을 발견해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
-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 전환 사업 (김해시)
 - 김해시의 고령친화 사업은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 전환 지원 사업과

시니어 기술 창업 센터 지원 사업 시행(박승규·김도형, 2018: 122)

- 향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하여 미래 유망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으로 업종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기업체 중 정밀기계, 정밀가공, 소재부품, IT 기술 등을 보유하고, 의료기기 산업으로 업종전환 또는 업종 추가, 품목 추가가 가능한 기업으로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사업에 5년간 21억4000만원의 사업비 투입
-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김해시)
 - 중소기업청 주관하는 특화형 시니어 기술창업 센터 유치. ‘기계부품 특화형’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3년간 총 사업비 6억2800만원을 투입해 40세 이상 시니어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네트워킹 지원, 교육 및 현장견학, 지역 기업과의 연계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들의 사업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노령친화산업 육성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함
- 양방향노화 의생명 R&D 센터 구축사업 (양산시)
 - 양방향노화 산학융복합센터는 양산부산대 부지에 8천896m² 규모로 조성. 국비 115억원과 도·시비 8억원, 양산부산대 41억원 등 총 164억원을 투자 지원함. 양방향노화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 등이 입주 하여 공동·종합연구로 관련 산업 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양방향노화 의생명 R&D센터 구축 및 상용화 지원사업에는 총 93억원이 투입
 - 양방향노화특화센터 설립은 경남도의 산업지원거점사업은 물론 양산시의 양방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향노화산업 지원센터 (의령군)
 - 경남 의령군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노화 산업의 15개 세부사업을 정하고 앞으로 10년간 1천509억원을 투입해 체류형 멘탈 힐링 과 향노화 명소 육성 목표. 이를 위해 의령군은 ‘향노화 산업육성과’도 신설
 - 향노화 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 관리할 향노화 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향노화 산업 전문기관 등을 통해 향노화 R&D산업 지원산업을 추

진해 기술개발 및 지원도 추진

- 향노화산업 기술 개발 사업 목적은 의령군 향노화산업 유망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향노화산업 관련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이며 의령군내 향노화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기술 지원 및 사업화 지원. 지원 대상은 건강식품, 화장품, 의료용품, 의료기기 등 향노화 관련 제품의 사업화 및 공정기술 개발, 규격/인증 획득,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기업

[표 3-9] 의령군 향노화산업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세부지원내용	최대지원금액
기술개발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물생리활성물질 기술개발 • 천연물 소재 약리독성연구 및 생리활성 합성연구 • 특용 천연물자원의 개발 및 활용 기술개발 	최대 35,000천원
기술지원	기술이전 및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료 및 지적재산권 출원비 등 	최대 10,000천원
	시제품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제작 관련 지원 • 시제품 제작 관련 시험평가분석 및 공동장비 활용 지원 	최대 20,000천원
	고급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품의 고급화 지원 	최대 20,000천원
	특허출원, 등록 및 인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지원 • 국내외 공인시험 지원 및 규격 표준 획득 지원 등 	최대 10,000천원
사업화 지원	디자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최대 10,000천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홍보물, 브로셔, 홈페이지 제작 등 • 온라인 마케팅 구축 지원 등 	최대 10,000천원
	시장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마케팅지역 시장 및 동향 정보파악 등 	최대 10,000천원

자료: 경남테크노파크(<http://www.technopark.kr/businessboard/35843>) 직접인용

17.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일자

- 관련조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

2)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정책

사업의 추진내용

- 고령친화산업 도입 초기부터 제주지역 관련 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제기
 - 제주가 가진 특성을 활용, 도시의 은퇴자들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기에, 의료분야나 시설분야 위주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한국은행, 2007)
 - 제주도는 은퇴자 마을 등을 집중 육성하여 제주의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이를 육성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 중(제주매일, 2007.04)
 - 제주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만의 특성을 활용한 육성기본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진흥원 등 책임기구 설립등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고승한, 2012: 67), 아직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은 미비한 상황

제3절 시사점 도출

1. 중앙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정책 종합

□ 정부종합정책

- 정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전담 조직을 운영
 -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제로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이 제기되었고,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기반조성, 고령친화 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 창출,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이 세부과제로 추진 중
 - 고령친화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정립하고 영역별 산업현황(필요기술, 적용수준, 업체 등)과 고령자의 욕구·소비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예정
 - 고령자 신체 정보, 행동·생활 패턴 등 기초자료 확보 및 산업분석을 통해 고령친화 제품·시스템·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수립예정
 - 고령 친화 제품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¹⁴⁾’를 적용한다는 방침
- 우리나라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을 근로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상태

14)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

-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계획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IT 연계 스마트케어, 고령친화 관광산업, 고령친화식품산업 등을 육성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사용자 중심 제품개발을 강화하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등 고령친화산업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

[표 3-10]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정책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마련 • 고령친화산업 발전협의체(가칭) 운영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포럼 운영
산업체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기적 관점의 산업체 지원 • 고령친화우수제품 서비스 지정제도 활성화 • 사용성 평가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시장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판로개척 지원 • 해외진출 촉진
고령친화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고령특성화대학원 운영 • 복지용구상담원, 고령친화 주택개조사, 고령자 심리상담원 등 국가 자격증화의 타당성 검토

자료: 김기향 외(2017) 내용 토대로 저자 재구성

2. 지방자치단체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정책 종합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종합

○ 조례제정 현황 및 특징

-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장 먼저 제정된 지자체는 부산(16년도 제정)이었으며 가장 최근 강원(20년도 제정)에서도 조례제정
- 관련 조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빨리 제정된 광주의 경우 별도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를 마련, 해당 센터를 통해 지원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

- 유사 센터가 설립된 곳으로는 경기성남, 광주, 부산이 있었으며, 대구는 2018년 폐쇄
- 전반적으로 관련 조례가 지자체 단위에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도 ‘산업진흥’으로까지 연계되어있는 못한 실정
-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경우 주로 종합계획을 수립 → 인적자원 확보 → 연구 활동을 지원 → 사업관련 단체에 집중 재정지원 → 산업관련 DB 구축 → 학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 순으로 단계적 접근 전략을 시행중

□ 지방자치단체 정책현황 종합

- 산업 측면이 아닌 복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다수
 - 많은 경우 정책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복지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지자체는 소수
 - 부산, 광주, 경기 정도가 고령친화산업 측면에서 R&D 지원, 인적자원지원 등과 같은 산업측면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
-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핵심요인
 - 대구의 경우 상당히 초기에 고령화산업 부분을 책임질 센터를 만들었으나,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이 어려웠고, 초기 목표와는 달리 고령친화산업 지원이 아닌 고령자 대상 복지프로그램 제공이 정책의 주된 방향성이 되면서 결국 「대구시니어체험관」 폐관
- 노인복지 사업과의 방향성과는 차별화하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정책 발굴 및 기획·연구, 사업지원이 필요

[표 3-11] 지역자치단체별 조례제정 현황 및 내용

구분	조례		종합계획 수립	소비자보호	인적자원	R & D 지원	금융지원	네트워크	판로개척	위업회설치	DB구축	기관설치	홍보
	제정	시기	주요내용										
서울	○	18.01.	정책의 목표 제정 / 재원조달 / 제도개선	○	○	○	○	○					
부산	○	16.09.	산업현황 및 전망 분석 / 정책의 목표 제정 / 재원조달 / 제도개선 / 기업 유치 / 지원정책의 세부 내용		○	○	○	○	○	○			
대구	X												
인천	X												
광주	○	17.03.	정책의 목표 제정 / 재원조달 / 제도개선	○	○	○	○	○			○	○	△ ¹⁾
대전	△ ²⁾												
울산	X												
세종	X												
경기	○	19.01.	정책의 목표 제정 / 재원조달 / 제도개선	○	○	○	○	○					
강원	○	20.03.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발전시책 / 산업 기반조성 / 재원확보 및 배분			○	○	○			○		○
충북	X												
충남	X												
전북	X												
전남	○												
경북	X												
경남	△ ³⁾	19.11.	정책의 목표 제정 / 재원조달 / 제도개선 / 매년 계획 수립	○		○	○	○			○		○
제주	X												

1)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 해당 기관을 통해 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2020년 3월 2일 조례안 제정 예고

3) 안동시 조례

제4장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지역경쟁력 분석

제1절 시도별 고령친화산업 현황분석

제2절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지역경쟁력 분석

제3절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특화도 분석

제4절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지역경쟁력 분석

제1절 시도별 고령친화산업 현황분석

1. 연구범위 설정

연구의 시간적 범위 설정

- 본 연구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5년과 2017년을 기준으로 함
 - 본 연구는 2013년 고령친화산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어짐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2015년과 2017년도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

2.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현황

시도별 종사자수 현황

- 2015년 기준
 - 2015년 기준 가장 많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종사자수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인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서울, 경북, 경남, 충북,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강원, 전북에 이어 12번째로 고령친화산업 관련 종사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고령친화산업 분야 전체 종사자의 3.65%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전남에 분포
- 2017년 기준
 - 2017년 기준 가장 많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종사자수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충북, 인천, 충남, 대구, 강원, 전북에 이어 11번째로 순으로 관련 종사자가 많이 분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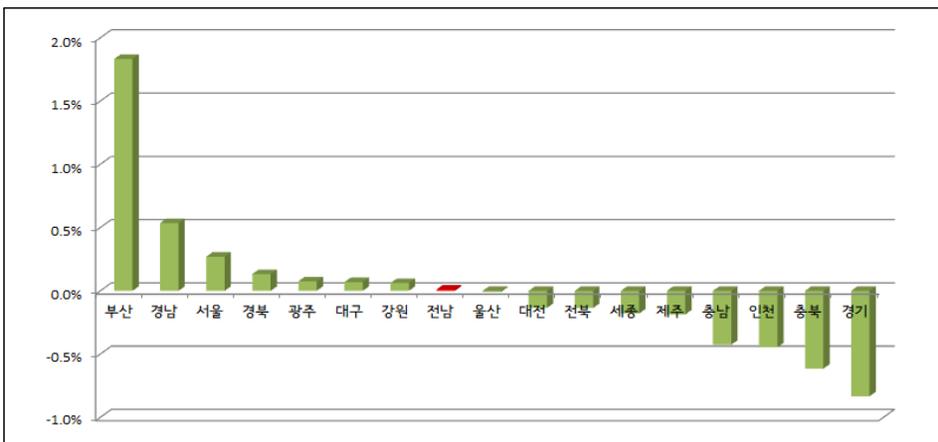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전남은 전체 고령친화산업의 약 3.66%에 해당되는 종사자가 분포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 관련 가장 많은 종사자수가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33%)를 제외하고 서울, 경북, 경남, 충북, 인천, 충남이 약 6~7% 사이의 해당되는 종사자의 고용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강원, 전북, 전남이 약 5~6%대의 고용을 차지, 나머지 대전, 광주, 제주, 울산, 세종이 약 1~3%대의 고용 차지 비율 보임

○ 2015~2017 변화율

- 종사자수의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전남의 고령친화 산업 관련 종사자는 1,50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부산(1.83%, 14196명)으로 확인되며, 전남(0.01%)은 경남(0.54%), 서울(0.27%), 경북(0.13%), 광주(0.07%), 대구(0.07%), 강원(0.06%)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울산(-0.01%), 대전(-0.13%), 전북(-0.14%), 세종(-0.18%), 제주(-0.19%), 충남(-0.43%), 인천(-0.45%), 충북(-0.61%), 경기(-0.83%)는 2015년 대비 2017년 고령친화산업에 관련된 고용수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17 시·도별 고령친화산업 2015~2017 변화율



[표 4-1] 시도별 고령친화산업 종사자수 현황

시도	2015		2017		변화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서울	41,692	6.64%	46,084	6.91%	4,392	0.27%
부산	31,888	5.08%	46,084	6.91%	14,196	1.83%
대구	29,688	4.73%	31,993	4.80%	2,305	0.07%
인천	35,917	5.72%	35,178	5.28%	-739	-0.45%
광주	13,799	2.20%	15,156	2.27%	1,357	0.07%
대전	16,042	2.56%	16,141	2.42%	99	-0.13%
울산	10,215	1.63%	10,788	1.62%	573	-0.01%
세종	3,853	0.61%	2,896	0.43%	-957	-0.18%
경기	204,966	32.66%	212,165	31.83%	7,199	-0.83%
강원	28,702	4.57%	30,899	4.64%	2,197	0.06%
충북	37,002	5.90%	35,207	5.28%	-1,795	-0.61%
충남	35,037	5.58%	34,379	5.16%	-658	-0.43%
전북	23,348	3.72%	23,896	3.59%	548	-0.14%
전남	22,919	3.65%	24,420	3.66%	1,501	0.01%
경북	39,720	6.33%	43,074	6.46%	3,354	0.13%
경남	38,153	6.08%	44,100	6.62%	5,947	0.54%
제주	12,539	2.00%	12,074	1.81%	-465	-0.19%
총합계	627,495	100%	666,551	100%	39,056	-

※ 17개시도 각각의 데이터에 나타난 플래그 값(flag value)은 전국 데이터 수치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해 중위도 값으로 처리됨에 따라 17개 시도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나타난 종사자수의 원 데이터(raw data) 값을 토대로 계산된 총합계와 위의 표에 나타난 총합계의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현황

□ 고령친화산업 부분별 종사자수 현황

- 앞서 제시된 고령친화산업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부분별 현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군은 고령친화여가산업으로 2017년 기준 11,428명의 종사자가 고령친화여가사업 부분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전체 47%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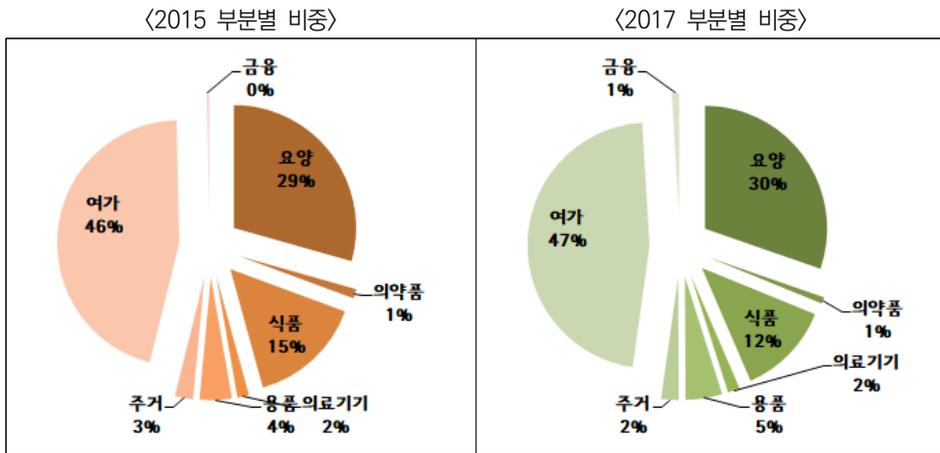
○ 2015 부분별 비중

- 2015년 기준 여가산업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고령친화요양산업(29%), 고령식품산업(15%)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고령친화용품산업(4%),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2%), 고령친화주거산업(3%), 고령친화금융산업(0.3%), 고령친화의약품산업(1%)은 고령친화산업 전체 5% 이하의 종사자 비율 보임

○ 2017 부분별 비중

- 2017년 기준 여가산업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고령친화요양산업(30%), 고령식품산업(12%)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고령친화용품산업(5%),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2%), 고령친화주거산업(2%), 고령친화금융산업(2%), 고령친화의약품산업(1%)은 고령친화산업 전체 5% 이하의 종사자 비율 보임

[그림 4-2]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부분별 비중



○ 부분별 변화율

-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산업규모가 증가한 양상을 보인 부분은 요양, 용품, 여가 부분
-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산업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부분은 의약품, 식품 부분
-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가산업 부분은 2015년 대비 2017년 1,000명의 종사자가 늘어 10%의 증가율을 보임
-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여가산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부분은 2015년 대비 2017년 704명 규모의 종사자가 늘어 11%의 증가율 보임
-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식품산업부분은 규모의 비중에선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2015년 대비 2017년 총 431명의 종사자가 감소하여 1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4-2]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부분별 종사자수 현황

부분	2015	2017	증감	변화율
요양	6,690	7,394	704	11%
의약품	282	210	-72	-26%
식품	3,446	3,015	-431	-13%
의료기기	349	387	38	11%
용품	969	1,183	214	22%
주거	549	564	15	3%
여가	10,428	11,428	1,000	10%
금융	80	239	159	199%
화장품	126	-	-	-
총합계	22,919	24,420	1,501	7%
전국총산업	20,889,257	21,626,904	73,7647	4%

※ 17개시도 각각의 데이터에 나타난 플래그 값(flag value)은 전국 데이터 수치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해 중위도 값으로 처리됨

※ 고령친화화장품산업에 관련된 부분 중 C20433에 관련된 수치의 자료부재로 불포함

제2절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지역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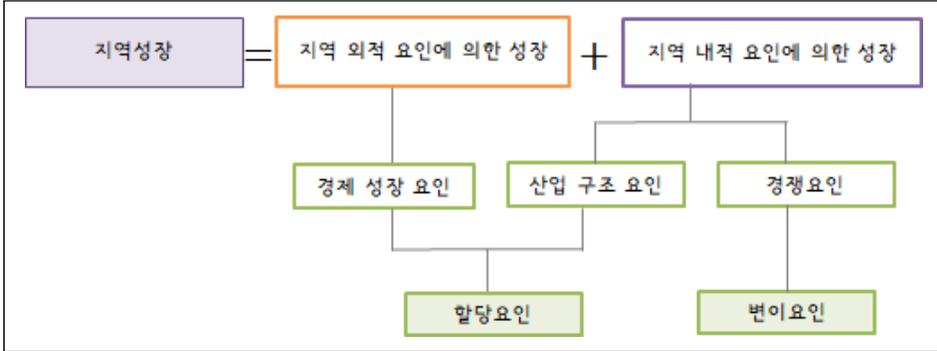
1. 변이할당분석

1) 고령친화산업전체

□ 분석개요

- 변이할당 분석기법(Shift Share Analysis)은 지역의 성장을 산업별 성장에 의한 결과로 보고, 산업 성장의 요인을 3가지로 분류하여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방법(Dunn, 1960)
 - 여기서 말하는 3가지 성장요인이란 전국의 경제 성장요인(national growth component), 산업구조요인(mixed-industry component), 그리고 지역할당요인(competition component)으로 구성
 - 경제성장요인은 국가성장효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전국의 경제성장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며, 해당 기간 동안 총 고용증대에 따른 지역 내 노동자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수치로, 해당 지역의 고용이 국가 전체의 고용과 동일한 성장률로 성장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함(Dunn, 1960)
 - 산업구조요인은 산업의 전국적인 성장 특징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키는 수치로, 해당 지역 산업의 특화정도(specialization)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로 나타남(Dunn, 1960)
 - 지역할당요인은 지역의 경쟁요인으로서 이는 지역의 생산 환경 특징으로 인한 지역의 성장을 뜻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특정 산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이 국가 전체와 비교하여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나타냄(Dunn, 1960)
 - 특정 산업분야에서 지역할당 효과에 해당하는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나 산업 구조적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Dunn, 1960)

[그림 4-3] 지역 성장의 요인별 분류



자료: 김홍배(2016)

○ 변이할당 분석기법(Shift Share (SS) Analysis)

- 변이할당 분석기법(Shift Share (SS) Analysis)은 아래의 수식을 사용하여 국가성장효과(NS), 산업성장효과(MI), 지역할당효과(RS)에 관련된 값이 도출되어짐¹⁵⁾

[그림 4-4] 변이할당 분석기법

$$\begin{aligned} \text{국가성장효과(NS)} &= E^{r_{i,t-1}} * \left(\frac{E_t^n}{E_{t-1}^n} - 1 \right) \\ \text{산업성장효과(MI)} &= E_{i,t-1}^r * \left(\frac{E_{i,t}^n}{E_{t-1}^n} - \frac{E_t^n}{E_{t-1}^n} \right) \\ \text{지역할당효과(RS)} &= E_{i,t-1}^r * \left(\frac{E_{i,t}^r}{E_{i,t-1}^r} - \frac{E_{i,t}^n}{E_{i,t-1}^n} \right) \end{aligned}$$

이때, E는 종사자수
n은 국가전체, r은 해당 지역
i는 특정 산업
t는 기준연도

15) 상대적 경쟁력=(지역할당효과/총 종사자수_{t-1})×100

□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전체의 분석결과

-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 8번째로 고용이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남
 - 전남은 서울 경남 부산 광주 경북 대구 강원 에 이어 8번째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높은 상대적 경쟁력 수치를 보임¹⁶⁾
 - 전국의 경제수준이 상승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되고,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용이 증대하게 되는데,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고용 변화 중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에 의해 증가된 고용인원은 약 809명
 -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고령친화 산업구조에 의한 고용 성장은 대략 77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지역할당 효과에 따른 고용증대는 대략 614명으로 나타남. 이는 전남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의 경쟁요인에 의한 고용증대 효과로 볼 수 있음
- 지역의 산업규모를 고려한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한 상대적 경쟁력 개념을 적용하며 살펴보면 전남 고령친화산업에서 지역할당효과(전남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고용은 2015년 대비 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전체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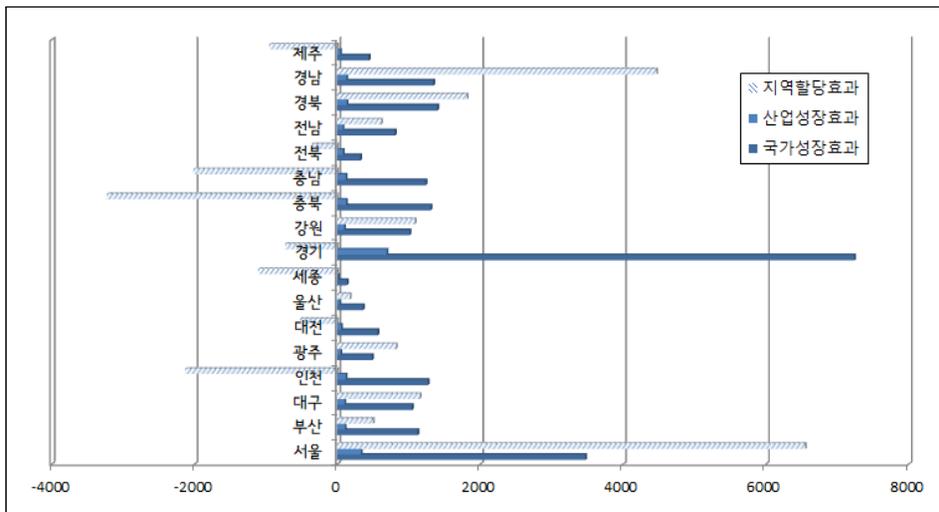
시도	국가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	지역할당효과	상대적경쟁력지수
서울	3471.514	332.5789	6552.166	0.24
부산	1126.038	107.877	501.0855	0.05
대구	1048.351	100.4344	1156.215	0.03
인천	1268.311	121.5071	-2128.82	-0.05
광주	487.274	46.682	823.044	0.05
대전	566.4794	54.27002	-521.749	-0.03
울산	360.7148	34.5573	177.7279	0.01

16)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총 종사자수는 2015년 22,919명에서 2017년 24,420명으로 증가된 총 고용인원은 1,501명

시도	국가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	지역할당효과	상대적경쟁력지수
세종	136.0582	13.03468	-1106.09	-0.28
경기	7237.814	693.3991	-732.213	-0.003
강원	1013.533	97.098	1086.369	0.03
충북	1306.624	125.1776	-3226.8	-0.08
충남	1237.24	118.53	-2013.8	-0.05
전북	324.471	78.9862	-355.46	-0.01
전남	809.3218	77.534	614.1433	0.026
경북	1402.603	134.3726	1817.024	0.04
경남	1347.269	129.0714	4470.66	0.11
제주	442.7805	42.41938	-950.2	-0.07

※ 17개시도 각각의 데이터에 나타난 플래그 값(flag value)은 전국 데이터 수치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해 중위도 값으로 처리됨

[그림 4-5]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 전체 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2)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분석

□ 고령친화요양산업

-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요양산업 관련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 11번째로 상대적 경쟁력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전남은 세종, 서울, 인천, 부산, 경기, 충북, 대구, 경북, 강원, 충남, 전북에 이어 울산과 함께 11번째로 고령친화요양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 수치를 보임¹⁷⁾
 - 전국의 경제수준이 상승됨으로써 고령친화요양산업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되고,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용이 증대하게 되는데, 전남의 고령친화요양산업 분야의 고용 변화 중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에 의해 증가된 고용인원은 약 236명
 - 산업구조의 변화 즉,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고령친화요양 산업구조에 의한 고용 성장은 대략 650명 정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의 고령친화요양산업의 경쟁요인에 의한 고용은 오히려 18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남의 지역할당 효과에 따른 성장 효과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지역에서 국가성장과 산업성장효과로 인해 요양산업 분야에서 886명 정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요양산업 분야의 지역할당효과로 인한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아 전남의 요양산업은 전국산업에 비해 더딘 성장을 이끄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역의 산업규모를 고려한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한 상대적 경쟁력 개념을 적용하며 살펴보면 전남 고령친화요양산업에서 지역할당효과(전남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고용은 2015년 대비 2017년 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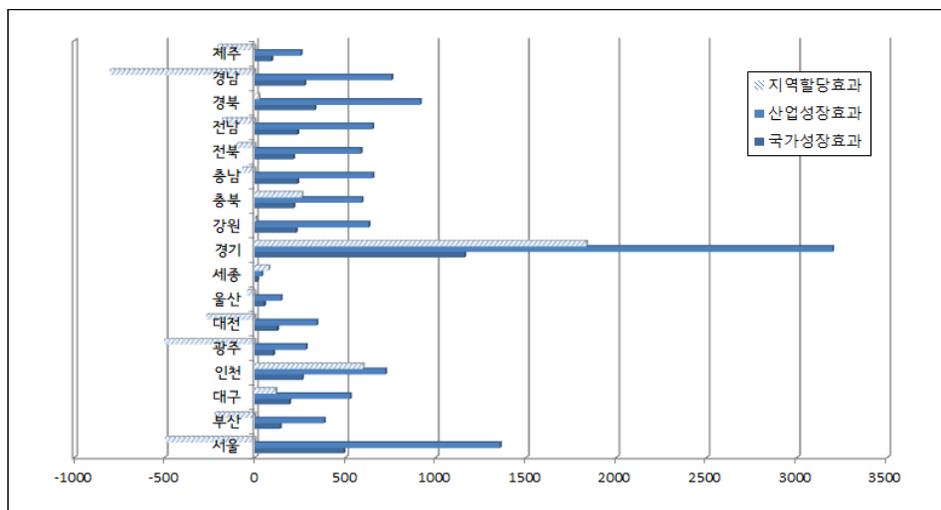
17) 전남의 고령친화식품산업 분야에서의 총 종사자수는 2015년 6,690명에서 2017년 7,394명으로 총 704명 감소함

[표 4-4]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요양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시도	국가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	지역할당효과	상대적경쟁력지수
서울	492.6767	1356.89	-497.567	0.09
부산	139.4128	383.9594	-222.372	0.07
대구	191.675	527.895	115.429	0.02
인천	262.087	721.820	599.092	0.08
광주	102.829	283.204	-501.03	-0.17
대전	124.157	341.945	-269.104	-0.07
울산	52.474	144.519	-43.993	-0.02
세종	13.701	37.734	76.564	0.19
경기	1160.644	3196.55	1834.807	0.05
강원	228.717	629.915	4.367	0.0006
충북	215.263	592.861	259.875	0.04
충남	236.945	652.575	-70.521	-0.01
전북	213.039	586.734	-99.773	-0.01
전남	236.239	650.630	-182.869	-0.02
경북	332.076	914.578	21.345	0.002
경남	274.835	756.929	-802.764	-0.10
제주	92.447	254.111	-206.559	-0.07

※ 17개시도 각각의 데이터에 나타난 플래그 값(flag value)은 전국 데이터 수치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해 중위도 값으로 처리됨

[그림 4-6]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요양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 고령친화의약품산업

-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의약품산업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매우 낮은 상대적 경쟁력지수 보임
 - 전남은 광주, 인천, 서울, 충북, 강원, 경남, 대구, 울산, 경기, 대전, 전북, 경북, 부산, 제주, 세종에 이어 16번째로 고령친화의약품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 수치를 보임¹⁸⁾
 - 전국의 경제수준이 상승됨으로써 고령친화의약품산업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되고,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용이 증대하게 되는데, 전남의 고령친화의약품산업 분야의 고용 변화 중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에 의해 증가된 고용인원은 약 10명
 -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고령친화의약품 산업구조에 의한 고용 성장은 대략 19명 정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의 고령친화의약품산업의 경쟁요인에 의한 고용은 오히려 10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남의 고령친화의약품 산업분야에서의 지역경쟁력에 의한 성장 효과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지역에서 국가성장과 산업성장효과로 인해 요양산업 분야에서 29명 정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고령친화의약품산업 분야의 지역할당효과로 인한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아 전남의 고령친화의약품 산업에서의 지역경쟁력에 따른 고용변화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 지역의 산업규모를 고려한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한 상대적 경쟁력 개념을 적용하며 살펴보면 전남 고령친화요양산업에서 지역할당효과(전남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고용은 2015년 대비 2017년 3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남의 고령친화산업의 9개 세부분야에서 가장 성장이 더딘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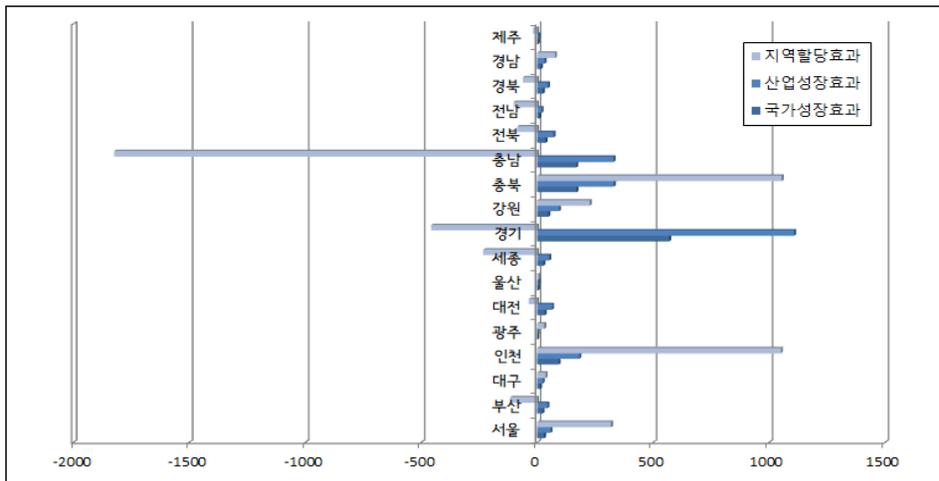
18) 전남의 고령의약품산업 분야에서의 총 종사자수는 2015년 282명에서 2017년 210명으로 총 72명 감소함

[표 4-5]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의약품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시도	국가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	지역할당효과	상대적경쟁력지수
서울	30.19199	58.74929	319.0587	0.37
부산	22.91766	44.59449	-116.512	-0.18
대구	12.42992	24.18684	37.38324	0.11
인천	93.436	181.8136	1051.75	0.40
광주	0.84749	1.6491	31.5034	1.31
대전	33.4054	65.00214	-35.407	-0.04
울산	3.213416	6.252849	6.533735	0.07
세종	27.08451	52.70258	-232.787	-0.30
경기	569.5162	1108.197	-456.713	-0.03
강원	48.58968	94.54857	226.8618	0.16
충북	170.1345	331.0574	1054.808	0.22
충남	169.428	329.683	-1824.1	-0.38
전북	36.6541	71.3237	-86.978	-0.08
전남	9.958059	19.37696	-101.335	-0.36
경북	24.33015	47.343	-60.6731	-0.09
경남	16.63208	32.36365	77.00428	0.16
제주	3.036855	5.909286	-16.9461	-0.20

※ 17개시도 각각의 데이터에 나타난 플래그 값(flag value)은 전국 데이터 수치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해 중위도 값으로 처리됨

[그림 4-7]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의약품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 고령친화식품산업

-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식품산업 관련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 7번째로 고용이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남
 - 전남은 세종, 강원, 대전, 충남, 제주, 경남에 이어 7번째로 고령친화식품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 수치를 보임¹⁹⁾
 - 전국의 경제수준이 상승됨으로써 고령친화식품산업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되고,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용이 증대하게 되는데, 전남의 고령친화식품산업 분야의 고용 변화 중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에 의해 증가된 고용인원은 약 121명
 -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즉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고령친화식품 산업구조에 위축에 따라 전남 지역의 고용이 대략 1,000명 정도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의 경쟁요인에 의한 고용증대는 대략 448명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전남의 지역경쟁력에 의한 성장 효과로 볼 수 있음
 -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 지역의 고령친화 식품산업 분야의 경쟁력에 의한 성장 효과로 볼 수 있어 국가의 전반적인 고령친화식품산업이 위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 고령친화식품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역의 산업규모를 고려한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한 상대적 경쟁력 개념을 적용하며 살펴보면 전남 고령친화식품산업에서 지역할당효과(전남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고용은 2015년 대비 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남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의 전반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고령친화식품에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개발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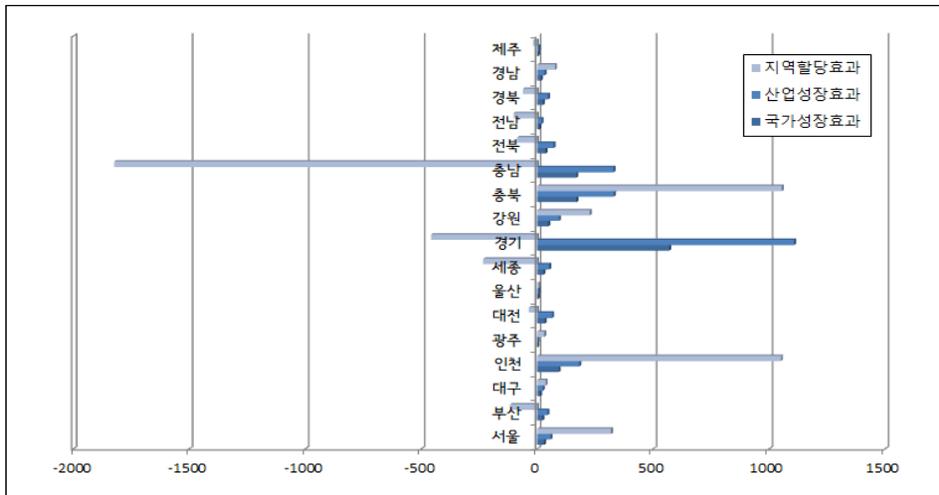
19) 전남의 고령친화식품산업 분야에서의 총 종사자수는 2015년 3446명에서 2017년 2015명으로 총 431명 감소함

[표 4-6]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시도	국가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	지역할당효과	상대적경쟁력지수
서울	98.90966	-813.541	-329.369	-0.11
부산	124.2286	-1021.79	-222.438	-0.06
대구	77.75761	-639.563	-412.195	-0.18
인천	78.21667	-643.339	-599.878	-0.27
광주	41.28	-339.53	-1.7481	-0.00
대전	35.48883	-291.899	202.4099	0.20
울산	26.27233	-216.092	-103.18	-0.13
세종	6.285583	-51.6995	57.41389	0.32
경기	467.04	-3841.44	-216.6	-0.16
강원	95.09593	-782.172	797.0764	0.29
충북	232.0016	-1908.23	-142.768	-0.02
충남	219.395	-1804.5	972.149	0.15
전북	153.361	-1261.4	-274.95	-0.06
전남	121.6861	-1000.88	448.1924	0.13
경북	227.5169	-1871.35	759.8296	0.11
경남	197.1484	-1621.56	803.4142	0.14
제주	31.60448	-259.95	142.3451	0.15

※ 17개시도 각각의 데이터에 나타난 플래그 값(flag value)은 전국 데이터 수치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해 중위도 값으로 처리됨

[그림 4-8]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의약품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 고령친화화장품산업

- 고령친화화장품산업 부분은 C20432²⁰⁾ C20433²¹⁾에 관련된 '17년도에 해당자료 부재로 분석수행 불가

□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

-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 관련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상대적 고용이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남
 - 전남은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제주에 이어 강원과 함께 5번째로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 수치를 보임²²⁾
 - 전국의 경제수준이 상승됨으로써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산업 성장을 유도하는 의미의 개념으로써,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에 의해 증가된 고용인원은 약 12명
 -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고령친화의료기기 산업구조에 의한 고용 성장은 대략 18명 정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의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경쟁력에 의한 성장 효과에 따른 고용증대는 대략 7명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지역의 고령친화 의료기기 관련 생산 환경 특징으로 인한 성장효과로 판단가능
- 지역의 산업규모를 고려한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한 상대적 경쟁력 개념을 적용하며 살펴보면 전남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에서 지역할당효과(전남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고용은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남의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절대적 수치의 규모자체는 작지만,

20)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1) 화장품 제조업

22) 전남의 고령친화식품산업 분야에서의 총 종사자수는 2015년 349명에서 2017년 387명으로 총 38명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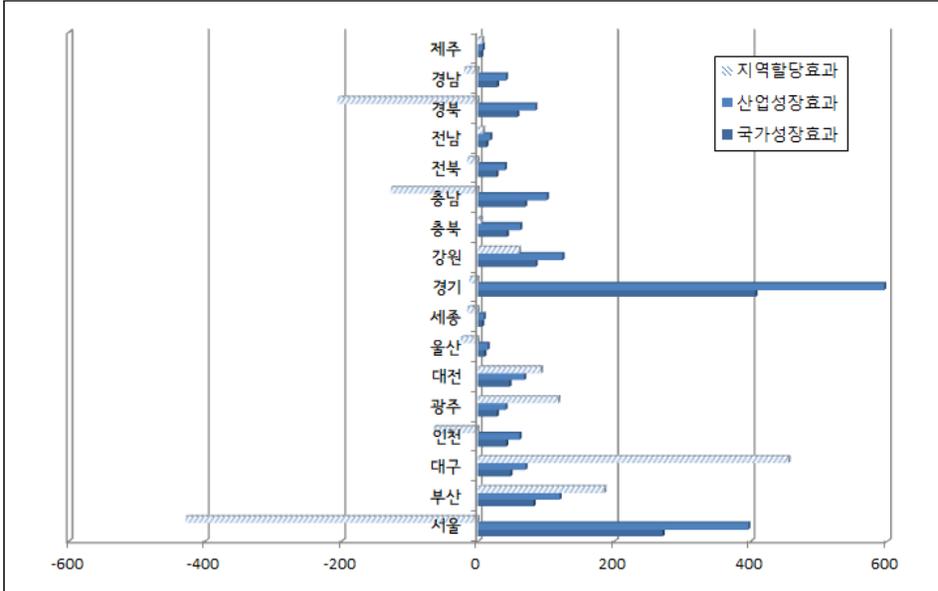
상대적경쟁력 지수를 토대로 살펴보면 성장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분야로 향후 IT 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을 접목해 원격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4-7]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시도	국가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	지역할당효과	상대적경쟁력지수
서울	270.951	396.3315	-428.283	-0.05
부산	81.85383	119.7311	185.4151	0.07
대구	47.7775	69.88617	455.3363	0.33
인천	41.63316	60.89859	-64.5318	-0.05
광주	27.7201	40.5474	117.732	0.14
대전	46.36501	67.82006	92.81494	0.07
울산	9.675561	14.15285	-24.8284	-0.09
세종	5.967773	8.729314	-15.6971	-0.09
경기	407.0092	595.3496	-12.3587	-0.00
강원	84.74944	123.9666	60.28397	0.02
충북	42.55128	62.24156	4.207159	0.00
충남	69.1414	101.136	-128.28	-0.06
전북	27.0845	39.6177	-15.702	-0.02
전남	12.32398	18.02681	7.64921	0.02
경북	57.59431	84.24563	-205.84	-0.12
경남	28.17919	41.21889	-20.3981	-0.02
제주	4.873093	7.128079	5.998828	0.04

※ 17개시도 각각의 데이터에 나타난 플래그 값(flag value)은 전국 데이터 수치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해 중위도 값으로 처리됨

[그림 4-9]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 고령친화용품산업

-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용품산업 관련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 3번째로 상대적 고용이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남
 - 전남은 경남, 경북, 전북에 이어 3번째로 고령친화용품 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 수치를 보임²³⁾
 - 전국의 경제수준이 상승됨으로써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산업 성장을 유도하는 의미의 개념으로써,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에 의해 증가된 고용인원은 약 34명
 -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고령친화용품 산업구조에 의한 고용 성장은 대략 27명 정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의 고령친화용품 산업 분

23) 전남의 고령친화용품산업 분야에서의 총 종사자수는 2015년 969명에서 2017년 1183명으로 총 214명 증가함

- 야의 성장효과에 의한 고용증대는 대략 152명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전남지역 내 고령친화용품산업 분야의 경쟁력에 의한 성장 효과로 볼 수 있음
-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용품 산업이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의 고령친화용품산업에서의 지역경쟁력에 따른 고용변화가 큰 폭으로 증가해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역의 산업규모를 고려한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한 상대적 경쟁력 개념을 적용하며 살펴보면 전남 고령친화용품산업에서 지역할당효과(전남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고용은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부분 중 고령친화금융산업 다음으로 가장 큰 상대적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현재 노인을 위한 실비용품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고령친화용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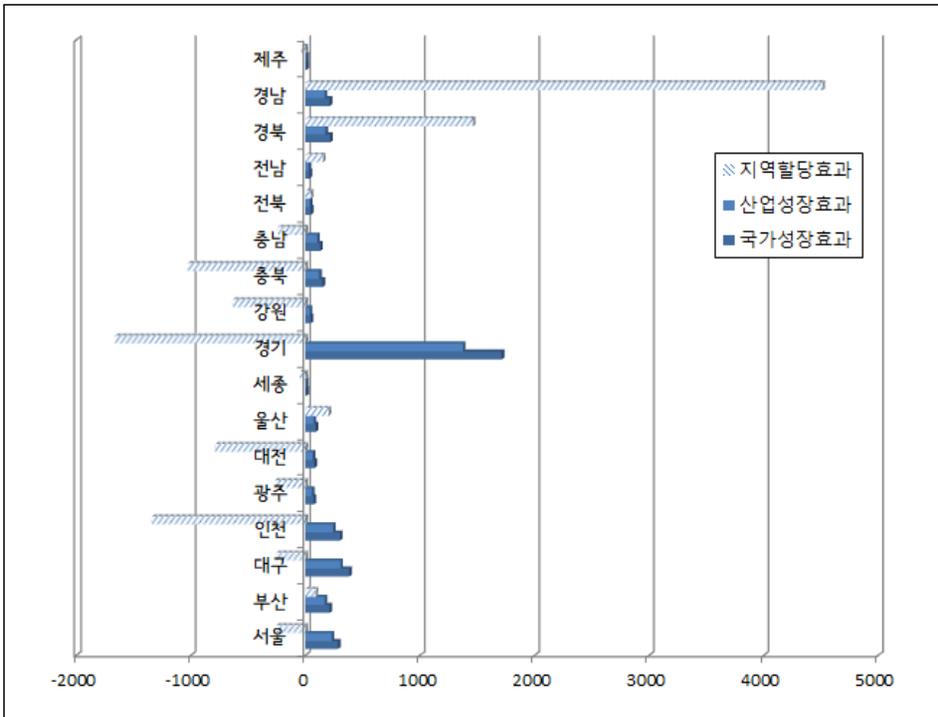
[표 4-8]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시도	국가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	지역할당효과	상대적경쟁력지수
서울	283.8047	227.6876	-253.492	-0.03
부산	209.4017	167.9965	89.6018	0.01
대구	382.679	307.0114	-257.69	-0.02
인천	300.6486	241.201	-1341.85	-0.15
광주	70.9423	56.9148	-268.86	-0.13
대전	77.89886	62.49582	-791.395	-0.35
울산	88.6691	71.13645	201.1945	0.08
세종	6.038397	4.844418	-46.8828	-0.27
경기	1,711.55	1,373.123	-1663.67	-0.03
강원	44.95251	36.064	-634.017	-0.49
충북	148.2762	118.9574	-1028.23	-0.24

시도	국가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	지역할당효과	상대적경쟁력지수
충남	128.007	102.696	-242.7	-0.06
전북	47.4597	38.0754	47.4649	0.03
전남	34.21759	27.4517	152.3307	0.15
경북	215.5814	172.9542	1,460.464	0.23
경남	210.567	168.9314	4,512.502	0.75
제주	7.133078	5.722645	-37.8557	-0.18

※ 17개시도 각각의 데이터에 나타난 플래그 값(flag value)은 전국 데이터 수치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해 중위도 값으로 처리됨

[그림 4-10]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 고령친화주거산업

-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주거산업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비교적 낮은 상대적 경쟁력지수 보임
 - 전남은 광주, 경북, 충남, 강원, 경남, 경기, 전북, 제주에 이어 부산 대구와 함께 9번째로 고령친화주거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 수치를 보임²⁴⁾
 - 전국의 경제수준이 상승됨으로써 고령친화의약품산업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되고,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용이 증대하게 되는데, 전남의 고령친화의약품산업 분야의 고용 변화 중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에 의해 증가된 고용인원은 약 19명
 -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고령친화주거 산업구조에 의한 고용 성장은 대략 10명(9.9명) 정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의 고령친화의약품산업의 경쟁요인에 의한 고용은 오히려 약 1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지역에서 국가성장과 산업성장효과로 인해 주거산업 분야에서 29명 정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고령친화주거산업 분야의 지역할당효과로 인한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아 전남의 고령친화주거 산업은 전국산업에 비해 더딘 성장을 이끄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역의 산업규모를 고려한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한 상대적 경쟁력 개념을 적용하며 살펴보면 전남 고령친화주거산업에서 지역할당효과(전남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고용은 2015년 대비 2017년 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남의 고령친화산업의 9개 세부분야에서 비교적 성장이 더딘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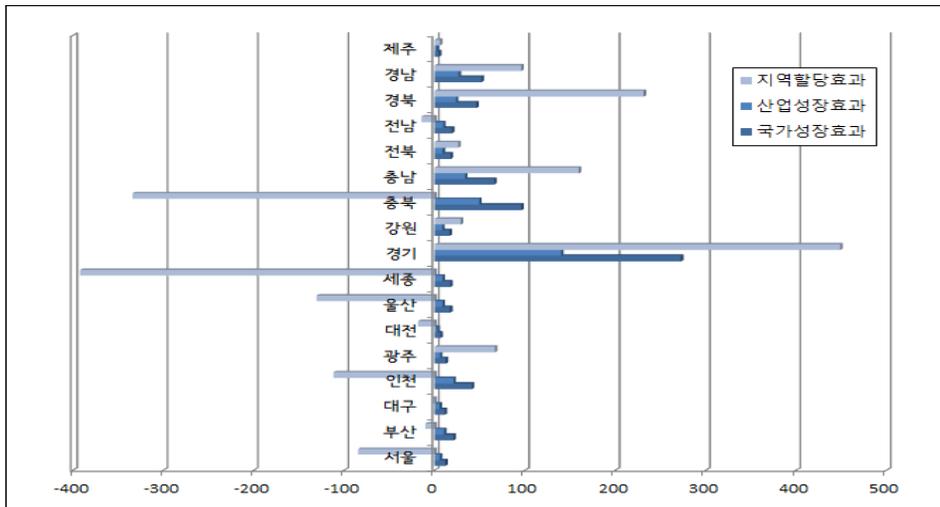
24) 전남의 고령친화주거산업 분야에서의 총 종사자수는 2015년 549명에서 2017년 564명으로 총 15명 증가함

[표 4-9]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주거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시도	국가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	지역할당효과	상대적경쟁력지수
서울	12.04148	6.185031	-84.2265	-0.24
부산	21.08142	10.82834	-9.90976	-0.01
대구	11.29993	5.804134	-3.10406	-0.01
인천	41.38598	21.25764	-111.644	-0.09
광주	12.5005	6.42082	67.0786	0.18
대전	6.603394	3.391791	-17.9952	-0.09
울산	17.40895	8.941994	-130.351	-0.26
세종	17.76207	9.123373	-391.885	-0.77
경기	272.8579	140.1517	448.9904	0.05
강원	16.91458	8.688063	29.39763	0.06
충북	96.29655	49.46211	-333.759	-0.12
충남	66.1752	33.9905	159.834	0.08
전북	18.0446	9.26848	26.687	0.05
전남	19.38643	9.957718	-14.3442	-0.02
경남	46.54157	23.90578	231.5527	0.17
경남	52.08559	26.75343	96.16098	0.06
제주	5.014342	2.575585	6.410074	0.04

※ 17개시도 각각의 데이터에 나타난 플래그 값(flag value)은 전국 데이터 수치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해 중위도 값으로 처리됨

[그림 4-11]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주거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 고령친화여가산업

- 전남의 고령친화여가산업은 9개의 세부분야 중에서도 관련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분야로서 2015년 대비 2017년 약 1,000명의 종사자수가 늘어 10%의 변화율을 보임
-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여가산업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비교적 낮은 상대적 경쟁력지수 보임
 - 전남은 세종, 광주, 충남, 인천, 전북, 대구, 부산, 강원, 경기, 충북, 대전 울산에 이어 13번째로 고령친화여가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 수치를 나타냄²⁵⁾
 - 전국의 경제수준이 상승됨으로써 고령친화여가산업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되고,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용이 증대하게 되는데, 전남의 고령친화여가산업 분야의 고용 변화 중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에 의해 증가된 고용인원은 약 368명
 -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고령친화여가 산업구조에 의한 고용 성장은 대략 747명 정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의 고령친화여가산업의 경쟁요인에 의한 고용은 오히려 약 11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지역에서 국가성장과 산업성장효과로 인해 요양산업 분야에서 1,115명 정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전남의 고령친화여가산업 분야의 지역할당효과로 인한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아 전남에서의 고령친화여가산업에서의 지역경쟁력에 따른 고용변화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역의 산업규모를 고려한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한 상대적 경쟁력 개념을 적용하며 살펴보면 전남 고령친화여가산업에서 지역할당효과(전남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고용은 2015년 대비 2017년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남의 고령친화산업의 9개 세부분야 중에서도 고령친화여가산업 분야의

25) 전남의 고령친화여가산업 분야에서의 총 종사자수는 2015년 10,428명에서 2017년 11,428명으로 총 1,000명 증가함

상대적 경쟁력 지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이는 전남의 관광객 변화추이와 전남의 관광 잠재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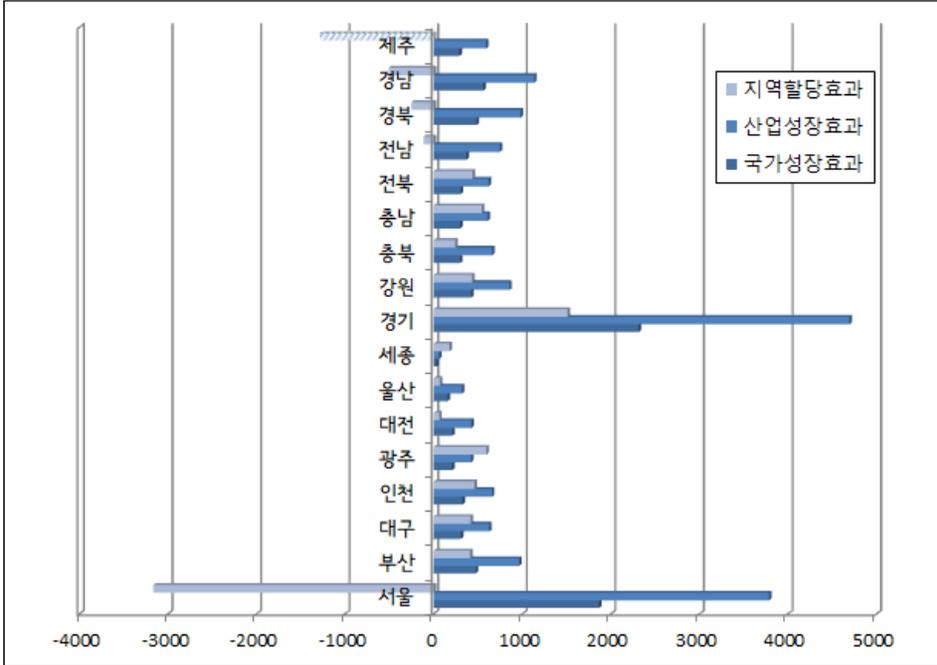
- 고령친화산업 중에서도 분야별 규모의 크기와 타지역에 비해 전남만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관광자원과 자연환경, 문화·역사·예술·자원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고령친화산업 중에서도 핵심 전략산업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으로 판단됨

[표 4-10]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여가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시도	국가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	지역할당효과	상대적경쟁력지수
서울	1,865.9	3,785.396	-3,166.3	-0.05
부산	475.1265	963.9006	411.9728	0.03
대구	308.4526	625.7653	416.7821	0.04
인천	324.2372	657.7878	460.9749	0.05
광주	207.071	420.09	593.839	0.10
대전	210.108	426.2511	62.64091	0.01
울산	156.6099	317.7183	70.67183	0.01
세종	30.40386	61.68104	177.9151	0.20
경기	2,313.095	4,692.631	1,510.275	0.02
강원	420.3925	852.8604	434.7471	0.03
충북	297.6118	658.4844	242.9039	0.02
충남	299.907	608.429	541.664	0.06
전북	305.592	619.963	437.445	0.05
전남	368.2263	747.0498	-115.286	-0.01
경북	484.0605	982.0252	-253.086	-0.01
경남	559.6641	1135.404	-509.068	-0.03
제주	290.9378	590.2324	-1285.17	-0.15

※ 17개시도 각각의 데이터에 나타난 플래그 값(flag value)은 전국 데이터 수치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해 중위도 값으로 처리됨

[그림 4-12]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여가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 고령친화금융산업

-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용품산업 관련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상대적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남
 - 전남은 고령친화금융산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상대적 경쟁력지수를 보이지만 산업규모 자체는 고령친화산업 전체의 0.3%를 차지하고 있어 절대적인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은 실정²⁶⁾
 - 전국의 경제수준이 상승됨으로써 고령친화금융산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산업 성장을 유도하는 의미의 개념으로써,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에 의해 증가된 고용인원은 약 2.8명

26) 전남의 고령친화금융산업 분야에서의 총 종사자수는 2015년 80명에서 2017년 239명으로 총 159명 증가함

-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고령친화금융 산업구조에 의한 고용 성장은 대략 13명 정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의 고령친화금융 산업 분야의 성장효과에 의한 고용증대는 대략 142명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전남지역 내 고령친화금융산업 분야의 경쟁력에 의한 성장 효과로 볼 수 있음
-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지역의 고령친화금융 환경 특징으로 인한 성장효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역의 산업규모를 고려한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한 상대적 경쟁력 개념을 적용하며 살펴보면 전남 고령친화금융산업에서 지역할당효과(전남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고용은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1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부분 중 가장 큰 상대적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연금상품 관련 서비스업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수치로 예측가능하며 향후 고령친화금융산업 중에서도 노령연금관련 서비스업을 구체적인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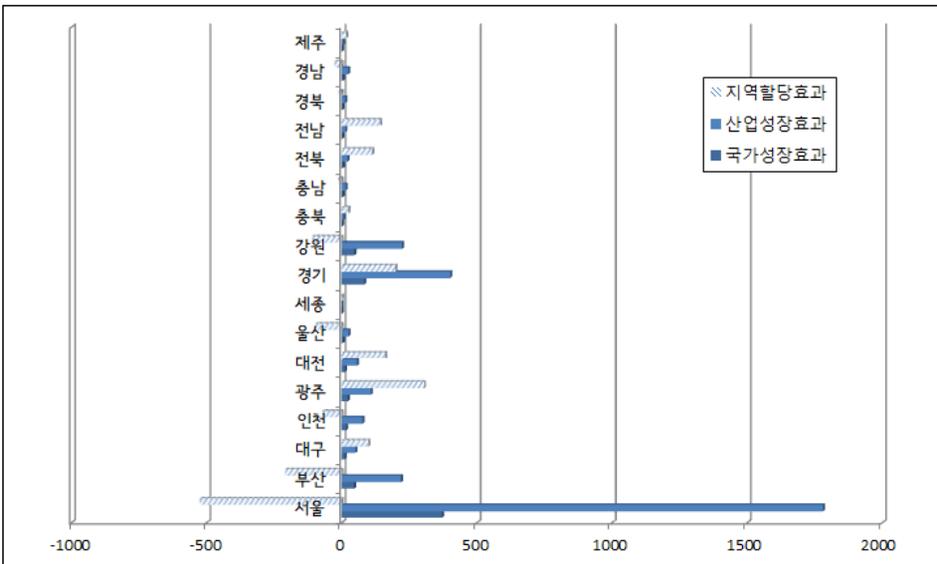
[표 4-11] 변이할당에 따른 고령친화금융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시도	국가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	지역할당효과	상대적경쟁력지수
서울	370.6729	1,780.092	-525.765	-0.05
부산	45.69407	219.4379	-210.132	-0.16
대구	10.62899	51.04389	98.32711	0.32
인천	15.92583	76.48105	-72.4069	-0.16
광주	22.388	107.514	304.098	0.47
대전	11.82961	56.80965	161.3607	0.48
울산	5.120279	24.58925	-97.7095	-0.67
세종	0.070625	0.339162	1.590213	0.79
경기	83.58413	401.3983	199.0175	0.08
강원	46.40032	222.8295	-109.23	-0.08
충북	1.377178	6.613661	25.00916	0.64

시도	국가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	지역할당효과	상대적경쟁력지수
충남	2.96623	14.2448	-14.211	-0.16
전북	4.51997	21.7064	112.774	0.88
전남	2.824981	13.56648	142.6085	1.78
경북	2.719044	13.05774	-11.7768	-0.15
경남	4.943717	23.74135	-26.6851	-0.19
제주	0.953431	4.578688	16.46788	0.60

※ 17개시도 각각의 데이터에 나타난 플래그 값(flag value)은 전국 데이터 수치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해 중위도 값으로 처리됨

[그림 4-13] 변이-할당 요인에 따른 고령친화금융산업의 지역별 고용인구 변화



2.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분석

□ 고령친화산업 전체 분석결과

- 한국은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에 따라 인구나 산업의 규모와 구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고용인구의 절대적 증감을 비교하는 것보다 지역 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Klein et al., 2009)
- 2015년과 2017년 간 지역할당 효과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절대적 고용변화를 2015년 고용규모 대비 상대적 변화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산업 전체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 8번째로 0.026의 경쟁력지수 보임
 - 전남은 서울, 경남, 부산, 광주, 경북, 대구, 강원에 이어 8번째로 고령친화산업분야 전체에서 높은 경쟁력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고용이 2015년 대비 2017년 기주 약 2.6%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추가적으로 서울은 24%, 경남 11%, 부산 5%, 광주 5%, 경북 4%, 대구 3%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경기 전북, 대전, 인천, 충남, 제주, 충북, 세종은 0.03%에서 28%까지 고령친화산업 규모가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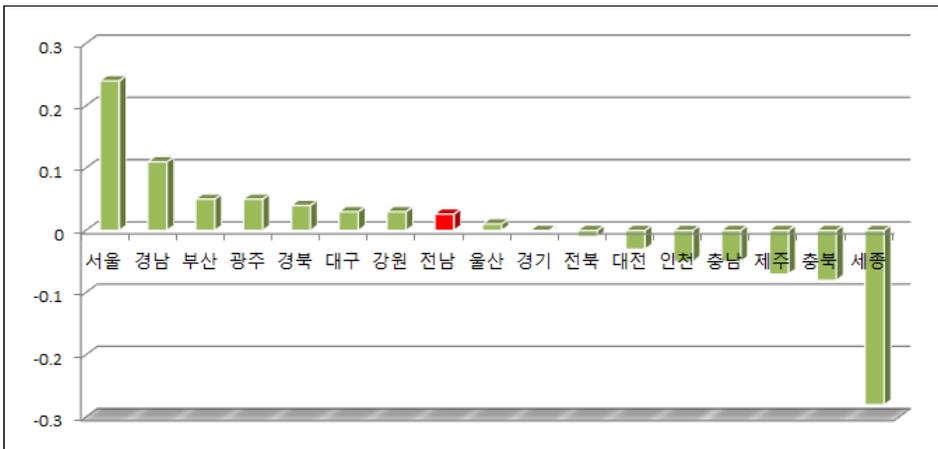
[표 4-12] 시·도 지역별 고령친화산업 전체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종합

시도	고령친화산업 전체
서울	0.24
부산	0.05
대구	0.03
인천	-0.05
광주	0.05
대전	-0.03

시도	고령친화산업 전체
울산	0.01
세종	-0.28
경기	-0.003
강원	0.03
충북	-0.08
충남	-0.05
전북	-0.01
전남	0.026
경북	0.04
경남	0.11
제주	-0.07

※ 17개시도 각각의 데이터에 나타난 플래그 값(flag value)은 전국 데이터 수치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해 중위도 값으로 처리됨

[그림 4-14] 시·도별 고령친화산업 상대적 경쟁력지수



□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분석결과

- 분석대상 시점 (2015년~2017년) 전남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가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나 우리나라 산업 구조적 변화의 효과를 제외하고 전남 지역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고용증대로 인한 산업규모가 성장한 분야는 **고령친화금융산업, 고령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친화의료산업** 분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고령친화산업 중에서도 노령연금 상품 관련 서비스업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과 노인을 위한 실버용품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음
 - 전남의 고령친화식품 산업은 전남지역의 다른 산업 자체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고용증대) 효과가 높았던 분야로서 고령친화식품 개발 및 제품의 생산 판매에 관련된 지역 업체를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전남의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절대적 수치의 규모 자체는 작지만, 상대적경쟁력 지수를 토대로 살펴보면 성장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분야로 향후 IT 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을 접목해 원격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4-13] 시·도 지역별 분야별 고령친화산업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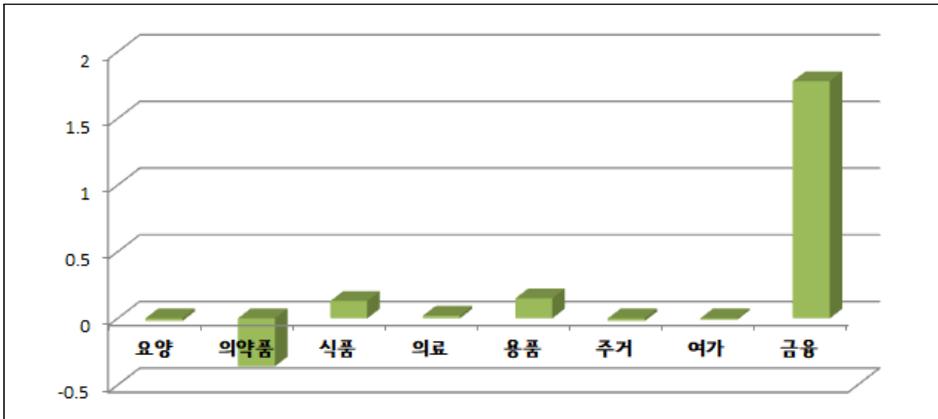
시도	요양	의약품	식품	의료	용품	주거	여가	금융
서울	0.09	0.37	-0.11	-0.05	-0.03	-0.24	-0.05	-0.05
부산	0.07	-0.18	-0.06	0.07	0.01	-0.01	0.03	-0.16
대구	0.02	0.11	-0.18	0.33	-0.02	-0.01	0.04	0.32
인천	0.08	0.40	-0.27	-0.05	-0.15	-0.09	0.05	-0.16
광주	-0.17	1.31	-0.00	0.14	-0.13	0.18	0.10	0.47
대전	-0.07	-0.04	0.20	0.07	-0.35	-0.09	0.01	0.48
울산	-0.02	0.07	-0.13	-0.09	0.08	-0.26	0.01	-0.67
세종	0.19	-0.30	0.32	-0.09	-0.27	-0.77	0.20	0.79
경기	0.05	-0.03	-0.16	-0.00	-0.03	0.05	0.02	0.08

시도	요양	의약품	식품	의료	용품	주거	여가	금융
강원	0.00	0.16	0.29	0.02	-0.49	0.06	0.03	-0.08
충북	0.04	0.22	-0.02	0.00	-0.24	-0.12	0.02	0.64
충남	-0.01	-0.38	0.15	-0.06	-0.06	0.08	0.06	-0.16
전북	-0.01	-0.08	-0.06	-0.02	0.03	0.05	0.05	0.88
전남	-0.02	-0.36	0.13	0.02	0.15	-0.02	-0.01	1.78
경북	0.002	-0.09	0.11	-0.12	0.23	0.17	-0.01	-0.15
경남	-0.10	0.16	0.14	-0.02	0.75	0.06	-0.03	-0.19
제주	-0.07	-0.20	0.15	0.04	-0.18	0.04	-0.15	0.60

※ 17개시도 각각의 데이터에 나타난 플래그 값(flag value)은 전국 데이터 수치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해 중위도 값으로 처리됨

※ 고령친화화장품산업 부분은 C20432 C20433에 관련된 '17년도에 해당자료 부재로 분석불가능

[그림 4-15] 전남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경쟁력 분석결과



제3절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특화도 분석

1. 지역 특화도 분석

1) 고령친화산업전체

□ 분석개요

-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중에서도 집중 육성되어야 하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해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 측정
- LQ 분석은 지역의 특화산업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볼 때 많이 이용되며 지역에 따라 전략산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사용(Miller et al., 1991)
- LQ 분석은 특정산업이 해당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해당산업의 지역 간 상대 특화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관심 산업의 분산정도를 입지계수로 나타냄(Miller et al., 1991)
 - 이러한 입지계수는 경제구조와 분화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서 특화산업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가짐(Miller et al., 1991)
- LQ지수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해당산업의 지역 내 특화도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1보다 작으면 해당 산업이 지역 내 특화도가 낮음을 나타냄

[그림 4-16] LQ(Location Quotient)지수 산출식

$$LQ_{ij} = \frac{Q_{ij}/Q_j}{Q_i/Q} = \frac{j\text{지역의 } i\text{산업 구성비}}{\text{전국의 } i\text{산업 구성비}}$$

□ 입지계수 분석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전체의 지역특화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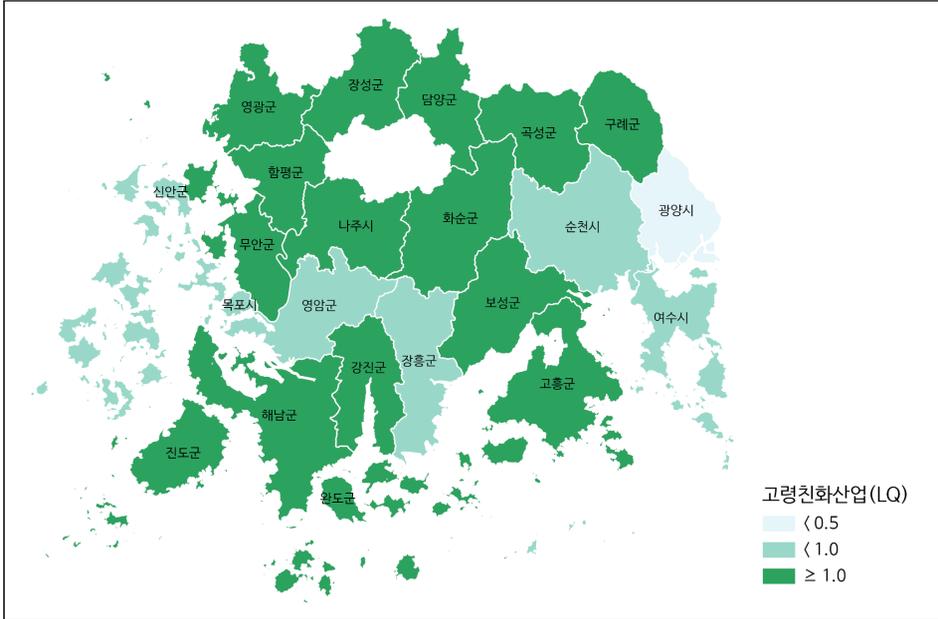
- 2015년도 기준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통해 살펴 본 고령친화산업의 상대적인 특화정도의 결과로 LQ지수가 1.0이 넘는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은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강진군, 나주시, 곡성군, 신안군, 장흥군, 장성군, 완도군, 보성군, 함평군, 무안군, 고흥군, 진도군, 해남군으로 나타남²⁷⁾
 - 이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종사자수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 2017년도 기준 고령친화산업 관련 종사자수 현황을 토대로 고령친화산업의 상대적특화도를 분석해본 결과 담양군, 구례군, 영광군, 화순군, 강진군, 나주시, 곡성군, 장성군, 완도군, 보성군, 함평군, 무안군, 고흥군, 진도군, 해남군 지역이 입지계수 1 이상을 보여 고령친화산업의 특화정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2015년 2017년 모두 입지계수 1 이상을 보인 지역은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강진군, 나주시, 곡성군, 장성군, 완도군, 보성군, 함평군, 무안군, 고흥군, 진도군, 해남군으로 나타남
- 그중에서도 **담양군, 곡성군, 함평군, 무안군**은 2015년 2017년 모두 입지계수 2 이상의 높은 특화도 지수 보여, 이는 고령친화산업 및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27) 2015년 기준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영광군, 광양시, 영암군, 1보다 작은 LQ지수 보임

[표 4-14] 고령친화산업 LQ분석결과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여수시	0.70	0.65
순천시	0.81	0.97
담양군	2.41	2.15
목포시	0.67	0.70
구례군	1.41	1.19
영광군	0.88	1.04
광양시	0.46	0.47
화순군	1.84	1.84
강진군	1.13	1.33
나주시	1.30	1.24
곡성군	2.22	2.12
신안군	1.16	0.97
장성군	2.06	1.73
완도군	1.18	1.16
보성군	1.02	1.26
영암군	0.75	0.90
함평군	2.14	2.61
장흥군	1.01	0.80
무안군	2.05	2.06
고흥군	1.13	1.29
진도군	1.45	1.60
해남군	1.27	1.29

[그림 4-17]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산업전체의 특화도 정도(2017년도 기준)



2)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분석

□ 고령친화요양산업

- 2015년 기준 고령친화요양산업의 지역별 현황을 통해 LQ값을 도출한 결과 고령친화요양산업의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에서도 곡성군으로 나타났으며 담양군, 함평군, 구례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완도군, 영광군, 장성군, 해남군, 나주시, 화순군, 강진군, 보성군, 진도군, 영암군,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광양시, 장흥군 순으로 높은 입지계수 나타남
- 2017년 기준 고령친화요양산업의 지역별 현황을 통해 LQ값을 도출한 결과 고령친화요양산업의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역시 곡성군으로 나타났으며, 함평군, 고흥군, 담양군, 무안군, 화순군, 완도군, 영광군, 해남군, 구례군, 장성군, 신안군, 진도군, 강진군, 나주시, 영암군, 보성군, 순

천시,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장흥군 순으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고령친화요양산업 부분에서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진도군(+0.6)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화순군(+0.53), 영암군(+0.34), 함평군(+0.23), 고흥군(+0.17), 순천시(+0.14) 순으로 나타남

[표 4-15]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요양산업 LQ분석결과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여수시	1.06	1.03
순천시	1.00	1.14
담양군	4.07	3.39
목포시	0.92	0.94
구례군	3.56	2.23
영광군	2.36	2.38
광양시	0.59	0.61
화순군	2.06	2.59
강진군	1.67	1.74
나주시	2.11	1.71
곡성군	4.40	4.12
신안군	2.84	2.03
장성군	2.30	2.05
완도군	2.71	2.50
보성군	1.36	1.27
영암군	1.13	1.47
함평군	3.64	3.87
장흥군	0.20	0.18
무안군	2.91	2.72
고흥군	3.31	3.48
진도군	1.25	1.85
해남군	2.18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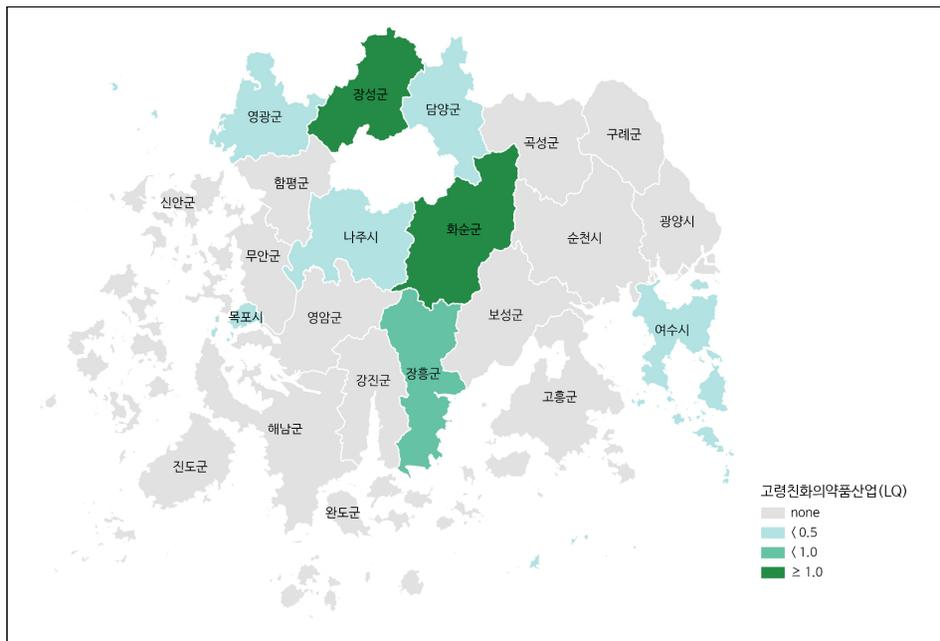
지역은 화순군과 장성군이 유일

-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고령친화약품산업 부분에서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상승한 지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화순군의 경우 지난 3년간 (-0.96) 정도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하락했으며 장성군의 경우 (-0.1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6]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약품산업 LQ분석결과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여수시	0.38	0.30
순천시	0.04	-
담양군	0.22	0.21
목포시	0.01	0.01
구례군	-	-
영광군	-	0.06
광양시	-	-
화순군	2.50	1.54
강진군	-	-
나주시	0.22	0.07
곡성군	-	-
신안군	-	-
장성군	1.26	1.10
완도군	-	-
보성군	-	-
영암군	-	-
함평군	-	-
장흥군	0.92	0.60
무안군	-	-
고흥군	-	-
진도군	-	-
해남군	-	-

[그림 4-19]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의약품산업의 특화도 정도(2017년도 기준)



□ 고령친화식품산업

-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식품산업 관련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 7번째로 고용이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남
 - 전남의 고령친화식품 산업은 전남지역의 다른 산업 자체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고용증대) 효과가 높았던 분야
- 2015년 기준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역별 현황을 통해 LQ값을 도출한 결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에서도 장성군으로 나타났으며 무안군, 담양군, 함평군, 고흥군, 신안군, 장흥군, 보성군, 진도군, 강진군, 화순군, 나주시, 해남군, 곡성군, 완도군, 여수시 영광군 순으로 높은 입지계수 나타남
 - 영암군, 순천시, 구례군, 목포시, 광양시는 1이하의 입지계수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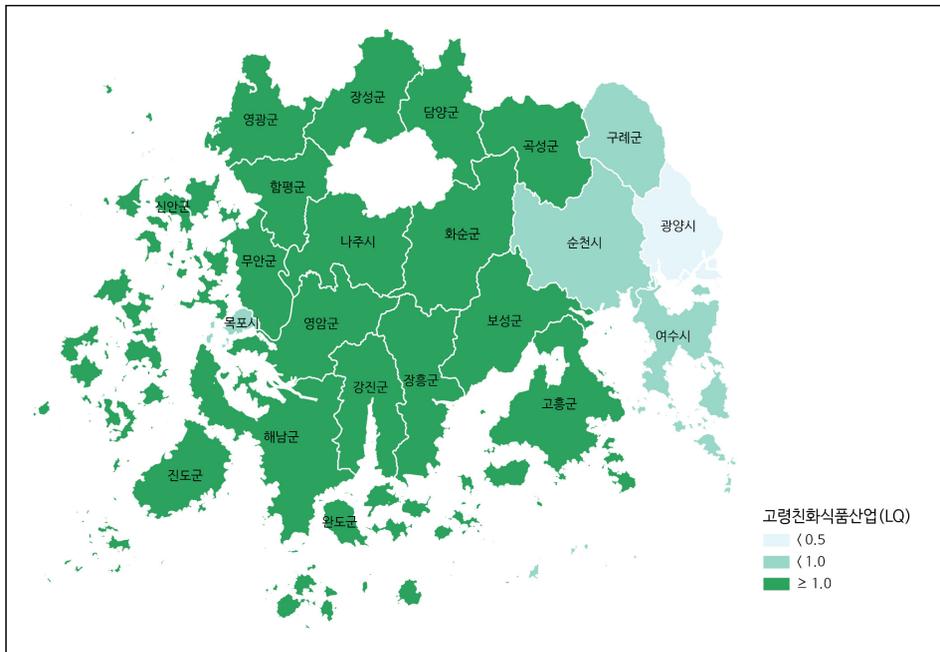
- 2017년 기준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역별 현황을 통해 LQ값을 도출한 결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역시 무안군으로 나타났으며, 담양군, 함평군, 신안군, 장흥군, 진도군, 고흥군, 해남군, 장성군, 나주시, 영광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완도군, 곡성군, 영암군 순으로 나타남
 - 여수시, 구례군, 순천시, 목포시, 광양시는 1이하의 입지계수 보임
-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고령친화식품산업 부분에서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담양군(+1.99)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함평군(+1.64), 진도군(+1.59), 영광군(+1.49), 신안군(+1.45), 무안군(+1.43) 순으로 나타남

[표 4-17]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식품산업 LQ분석결과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여수시	1.38	0.99
순천시	0.61	0.75
담양군	4.84	6.83
목포시	0.52	0.58
구례군	0.57	0.83
영광군	1.24	2.73
광양시	0.38	0.46
화순군	1.87	2.15
강진군	1.88	2.08
나주시	1.87	2.98
곡성군	1.48	1.39
신안군	2.66	4.11
장성군	7.44	3.01
완도군	1.48	1.80
보성군	2.30	2.63
영암군	0.66	1.24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함평군	3.13	4.77
장흥군	2.58	3.92
무안군	5.56	6.99
고흥군	2.74	3.81
진도군	2.25	3.84
해남군	1.86	3.24

[그림 4-20]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특화도 정도(2017년도 기준)



□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

-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 관련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상대적 고용이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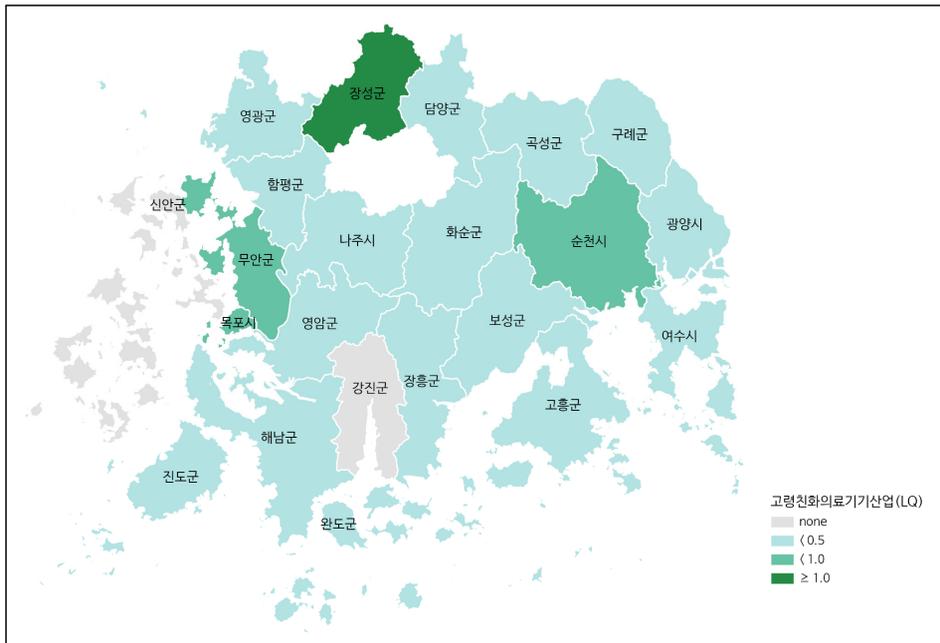
- 전남의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절대적 수치의 규모자체는 작지만, 상대적경쟁력 지수를 토대로 살펴보면 성장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분야로 향후 IT 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을 접목해 원격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음
- 하지만, 2015년 2017년 기준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의 지역별 현황을 통해 LQ값을 도출한 결과 전남의 모든 지역이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분야에서 1이하의 입지계수를 보여 의료기기 산업분야에서의 특화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 부분에서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상승한 지역은 장성군(+1.05), 곡성군(+0.36), 고흥군(+0.15), 구례군(+0.13), 해남군(+0.06), 담양군(+0.05), 목포시(+0.05), 영암군(+0.04) 순으로 나타남
- 영광군, 광양시, 보성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화순군, 나주시는 특화도 지수가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8]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 LQ분석결과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여수시	0.30	0.19
순천시	0.58	0.53
담양군	0.22	0.27
목포시	0.54	0.59
구례군	0.14	0.27
영광군	0.12	0.12
광양시	0.11	0.11
화순군	0.21	0.09
강진군	-	-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나주시	0.22	0.08
곡성군	0.10	0.46
신안군	-	-
장성군	0.35	1.40
완도군	0.08	0.07
보성군	0.09	0.09
영암군	0.09	0.13
함평군	-	0.10
장흥군	0.09	0.08
무안군	0.69	0.65
고흥군	0.06	0.21
진도군	0.12	0.11
해남군	0.09	0.15

[그림 4-21]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의 특화도 정도(2017년도 기준)



□ 고령친화용품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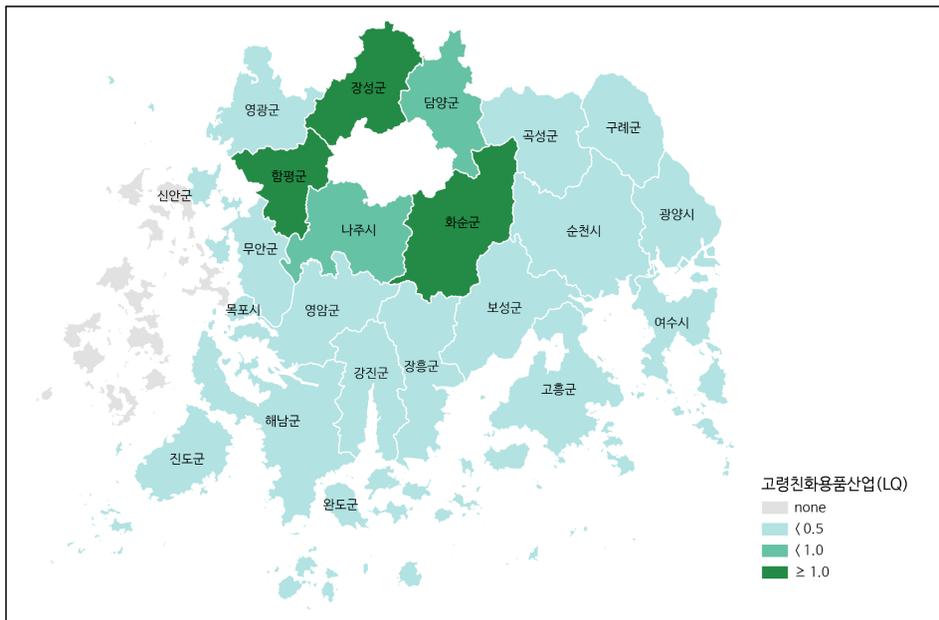
-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용품산업 관련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 3번째로 상대적 고용이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지역별 현황을 통해 LQ값을 도출한 결과 고령친화용품산업의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에서도 화순군으로 나타났으며, 1이상의 입지계수를 보인 지역은 함평군, 담양군, 장성군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지역별 현황을 통해 LQ값을 도출한 결과 고령친화용품산업의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함평군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의 결과값과 같이 1이상의 입지계수를 보인 지역은 화순군, 장성군이 유일
-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고령친화용품산업 부분에서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상승한 지역은 함평군(+0.38)이 유일했으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 지난 3년간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9]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용품산업 LQ분석결과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여수시	0.09	0.14
순천시	0.09	0.11
담양군	1.40	0.87
목포시	0.13	0.12
구례군	0.21	0.13
영광군	0.15	0.04
광양시	0.04	0.23
화순군	1.89	1.74
강진군	0.07	0.06
나주시	0.37	0.58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곡성군	0.29	0.10
신안군	-	-
장성군	1.00	1.65
완도군	0.03	0.02
보성군	0.25	0.03
영암군	0.27	0.17
함평군	1.65	2.03
장흥군	0.03	0.05
무안군	0.10	0.10
고흥군	0.04	0.15
진도군	0.08	0.17
해남군	-	0.07

[그림 4-22]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용품산업의 특화도 정도(2017년도 기준)



□ 고령친화주거산업

- 전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친화주거산업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비교적 낮은 상대적 경쟁력지수 보임
 - 지역의 산업규모를 고려한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한 상대적 경쟁력 개념을 적용하며 살펴보면 전남 고령친화주거산업에서 지역할당효과(전남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고용은 2015년 대비 2017년 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남의 고령친화산업의 9개 세부분야에서 비교적 성장이 더딘 부분으로 예측가능
- 2015년 기준 고령친화주거산업의 지역별 현황을 통해 LQ값을 도출한 결과 고령친화용품산업의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에서도 담양군으로 나타났으며, 1이상의 입지계수를 보인 지역은 나주시, 강진군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고령친화주거산업의 지역별 현황을 통해 LQ값을 도출한 결과 고령친화용품산업의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역시 담양군으로 나타났으며, 1이상의 입지계수를 보인 지역은 장흥군, 장성군, 나주시, 무안군 순으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고령친화주거산업 부분에서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장흥군(+0.38)이었으며, 장성군(+1.22), 보성군(+0.84), 무안군(+0.71), 완도군(+0.07), 목포시(+0.04) 또한 주거산업 분야에서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진도군, 고흥군, 여수시, 화순군, 영암군, 해남군, 순천시, 담양군, 나주시, 강진군은 지난 3년간 고령친화주거산업 분야에서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하락
 - 담양군의 경우 2015년 2017년 모두 고령친화주거산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특화도 지수를 보였지만,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0.32) 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지역을 고령친화주거산업의 선도지역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4-20]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주거산업 LQ분석결과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여주시	0.10	0.07
순천시	0.49	0.27
담양군	5.13	4.81
목포시	0.03	0.07
구례군	-	-
영광군	0.10	-
광양시	-	-
화순군	0.49	0.38
강진군	1.50	0.74
나주시	1.71	1.27
곡성군	0.60	-
신안군	-	-
장성군	0.61	1.83
완도군	0.75	0.82
보성군	0.15	0.99
영암군	0.29	0.18
함평군	-	0.65
장흥군	0.30	2.18
무안군	0.55	1.26
고흥군	0.22	0.21
진도군	0.20	0.20
해남군	0.89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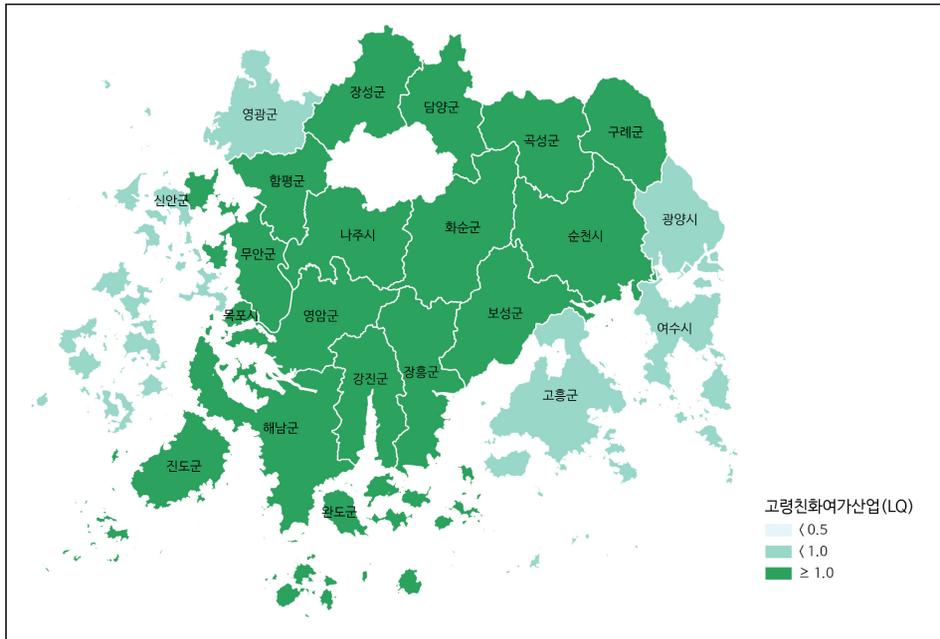
- 완도군, 보성군, 순천시, 영암군, 목포시 순으로 나타남
- 신안군, 여수시, 광양시, 영광군, 고흥군은 1이하의 입지계수 보임
 - 2017년 기준 고령친화여가산업의 지역별 현황을 통해 LQ값을 도출한 결과 고령친화여가산업의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역시 곡성군으로 나타났으며, 1이상의 입지계수를 보인 지역은 2015년과 동일
 -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고령친화여가산업 부분에서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보성군(+0.7)이었으며, 함평군(+0.62), 강진군(+0.54), 순천시(+0.2), 영광군(+0.2), 고흥군(+0.17), 영암군(+0.13), 무안군(+0.08), 여수시(+0.01), 목포시(+0.01) 순으로 주거산업 분야에서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장성군, 구례군, 광양시, 화순군, 나주시, 곡성군, 진도군, 담양군, 신안군, 해남군, 장흥군은 지난 3년간 고령친화주거산업 분야에서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하락

【표 4-21】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여가산업 LQ분석결과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여수시	0.82	0.83
순천시	1.25	1.45
담양군	2.00	1.78
목포시	1.04	1.05
구례군	1.71	1.66
영광군	0.74	0.94
광양시	0.77	0.69
화순군	2.08	2.00
강진군	1.52	2.06
나주시	1.53	1.41
곡성군	3.10	2.97
신안군	0.99	0.74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장성군	1.68	1.64
완도군	1.32	1.31
보성군	1.30	2.00
영암군	1.09	1.22
함평군	2.32	2.94
장흥군	1.74	1.00
무안군	2.36	2.44
고흥군	0.60	0.77
진도군	2.57	2.35
해남군	1.72	1.47

[그림 4-24]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여가산업의 특화도 정도(2017년도 기준)



□ 고령친화금융산업

- 전남의 고령친화금융산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7개 시·도 중에서 상대적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로 나타남
 - 전남은 고령친화금융산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상대적 경쟁력지수를 보이지만 산업규모 자체는 고령친화산업 전체의 0.3%를 차지하고 있어 절대적인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은 실정²⁸⁾
- 2015년 기준 고령친화금융산업의 지역별 현황을 통해 LQ값을 도출한 결과 전남의 모든 지역이 고령친화금융분야에서 1이하의 입지계수를 보여 금융분야에서의 특화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고령친화금융산업의 지역별 현황을 통해 LQ값을 도출한 결과 고령친화금융산업의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순천시로 나타났으며, 순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이하의 입지계수를 보여 금융분야에서의 특화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고령친화금융산업 부분에서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상승한 지역은 순천시(+1.41)가 유일
 - 광양시(-0.05), 목포시(-0.05)의 특화도 지수는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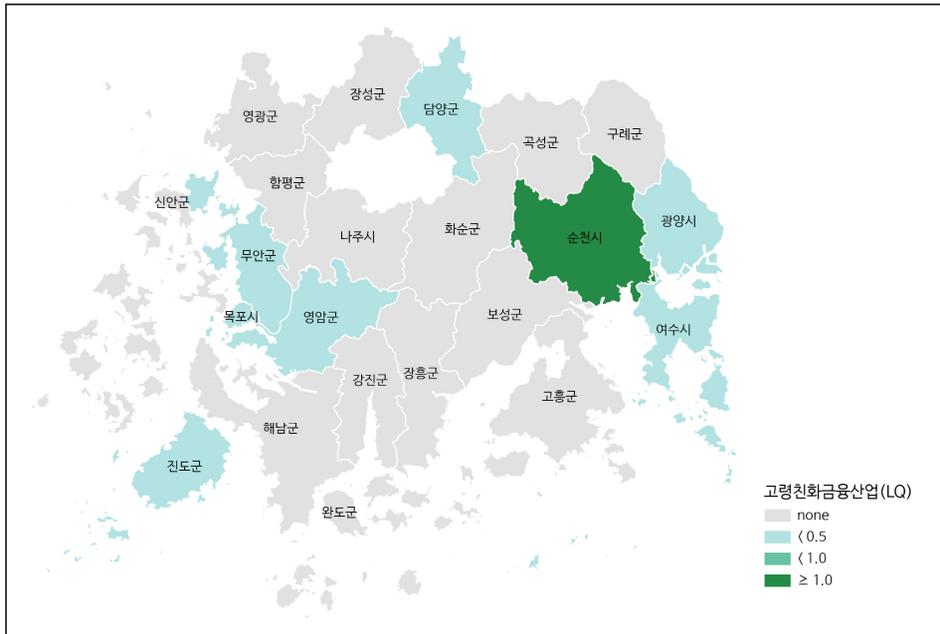
[표 4-22]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금융산업 LQ분석결과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여수시	-	0.03
순천시	0.84	2.25
담양군	-	0.11
목포시	0.07	0.02
구례군	-	-
영광군	-	-

28) 전남의 고령친화금융산업 분야에서의 총 종사자수는 2015년 80명에서 2017년 239명으로 총 159명 증가함

지역	Location Quotients	
	2015	2017
광양시	0.12	0.07
화순군	0.09	-
강진군	-	-
나주시	-	-
곡성군	-	-
신안군	-	-
장성군	-	-
완도군	-	-
보성군	-	-
영암군	0.06	0.06
함평군	-	-
장흥군	-	-
무안군	-	0.08
고흥군	-	-
진도군	-	0.41
해남군	-	-

[그림 4-25] 전남 시군구별 고령친화금융산업의 특화도 정도(2017년도 기준)



2. 지역 특화도 분석결과 종합

□ 전남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특화도 분석결과 유형화

○ 전남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지역별 특화도지수유형화

- 분석대상 시점(2015년 2017년) 전남 지자체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종사자수에 대한 특화도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령친화요양,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여가 분야에서 1이상의 입지계수를 가진 지역이 많이 도출됨
- 1이상의 입지계수를 나타낸 지역은 각 분야에서 1이하의 입지계수를 보인 지역에 비해 각 부분에 해당되는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각 산업의 성장에 있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4-23] 전남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특화도 분석결과 유형화

년도	부분	$0 \leq LQ < 0.5$	$0.5 \leq LQ < 1$	$LQ \geq 1$
2015	요양	장흥군	목포시, 광양시	여주시,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영광군, 화순군, 강진군, 나주시, 곡성군, 신안군, 장성군, 완도군,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 고흥군, 진도군, 해남군
	의약품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순천시, 여주시	장흥군	장성군, 화순군
	식품	광양시	구례군, 목포시, 순천시, 영암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여주시,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의료기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여주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

년도	부분	$0 \leq LQ < 0.5$	$0.5 \leq LQ < 1$	$LQ \geq 1$
	용품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주거	고흥군,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장흥군, 진도군, 화순군	곡성군, 무안군, 완도군, 장성군, 해남군	강진군, 나주시, 담양군
	여가	-	고흥군, 광양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강진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금융	광양시, 목포시, 영암군, 화순군	순천시	-
2017	요양	장흥군	광양시, 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의약품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여수시, 영광군	장흥군	장성군, 화순군
	식품	광양시	구례군,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의료기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장성군

년도	부분	$0 \leq LQ < 0.5$	$0.5 \leq LQ < 1$	$LQ \geq 1$
	용품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여주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주거	고흥군, 목포시, 순천시, 여주시,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강진군, 보성군, 완도군, 함평군, 해남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장성군, 장흥군
	여가	-	고흥군, 광양시, 신안군, 여주시, 영광군	강진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금융	광양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여주시, 영암군, 진도군	-	순천시

【표 4-24】 전라남도 시군구 단위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LQ분석결과

지역	요양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용품		주거		여가		금융	
	15	17	15	17	15	17	15	17	15	17	15	17	15	17	15	17
여수시	1.06	1.03	0.38	0.30	1.38	0.99	0.30	0.19	0.09	0.14	0.10	0.07	0.82	0.83	-	0.03
순천시	1.00	1.14	0.04	-	0.61	0.75	0.58	0.53	0.09	0.11	0.49	0.27	1.25	1.45	0.84	2.25
담양군	4.07	3.39	0.22	0.21	4.84	6.83	0.22	0.27	1.40	0.87	5.13	4.81	2.00	1.78	-	0.11
목포시	0.92	0.94	0.01	0.01	0.52	0.58	0.54	0.59	0.13	0.12	0.03	0.07	1.04	1.05	0.07	0.02
구례군	3.56	2.23	-	-	0.57	0.83	0.14	0.27	0.21	0.13	-	-	1.71	1.66	-	-
영광군	2.36	2.38	-	0.06	1.24	2.73	0.12	0.12	0.15	0.04	0.10	-	0.74	0.94	-	-
광양시	0.59	0.61	-	-	0.38	0.46	0.11	0.11	0.04	0.23	-	-	0.77	0.69	0.12	0.07
화순군	2.06	2.59	2.50	1.54	1.87	2.15	0.21	0.09	1.89	1.74	0.49	0.38	2.08	2.00	0.09	-
강진군	1.67	1.74	-	-	1.88	2.08	-	-	0.07	0.06	1.50	0.74	1.52	2.06	-	-
나주시	2.11	1.71	0.22	0.07	1.87	2.98	0.22	0.08	0.37	0.58	1.71	1.27	1.53	1.41	-	-
곡성군	4.40	4.12	-	-	1.48	1.39	0.10	0.46	0.29	0.10	0.60	-	3.10	2.97	-	-
신안군	2.84	2.03	-	-	2.66	4.11	-	-	-	-	-	-	0.99	0.74	-	-
장성군	2.30	2.05	1.26	1.10	7.44	3.01	0.35	1.40	1.00	1.65	0.61	1.83	1.68	1.64	-	-
완도군	2.71	2.50	-	-	1.48	1.80	0.08	0.07	0.03	0.02	0.75	0.82	1.32	1.31	-	-
보성군	1.36	1.27	-	-	2.30	2.63	0.09	0.09	0.25	0.03	0.15	0.99	1.30	2.00	-	-
영암군	1.13	1.47	-	-	0.66	1.24	0.09	0.13	0.27	0.17	0.29	0.18	1.09	1.22	0.06	0.06
함평군	3.64	3.87	-	-	3.13	4.77	-	0.10	1.65	2.03	-	0.65	2.32	2.94	-	-
장흥군	0.20	0.18	0.92	0.60	2.58	3.92	0.09	0.08	0.03	0.05	0.30	2.18	1.74	1.00	-	-
무안군	2.91	2.72	-	-	5.56	6.99	0.69	0.65	0.10	0.10	0.55	1.26	2.36	2.44	-	0.08
고흥군	3.31	3.48	-	-	2.74	3.81	0.06	0.21	0.04	0.15	0.22	0.21	0.60	0.77	-	-
진도군	1.25	1.85	-	-	2.25	3.84	0.12	0.11	0.08	0.17	0.20	0.20	2.57	2.35	-	0.41
해남군	2.18	2.26	-	-	1.86	3.24	0.09	0.15	-	0.07	0.89	0.78	1.72	1.47	-	-

제4절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1. 분석결과 종합

□ 전남 고령친화산업 규모 측정 종합

- 2015년 기준 전남의 경우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전체 종사자의 3.65%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12번째 해당
 - 2017년 기준 역시 3.66%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2017 사이 전남의 고령친화 산업 관련 종사자는 1,50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0.01% 증가율을 보임
-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부분별 현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군은 고령친화여가 산업으로 전체 47%(2017년 기준, 11,428명 종사)에 해당
 - 다음으로 고령친화요양산업(30%) 고령친화식품산업(12%)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고령친화용품산업(5%),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2%), 고령친화주거산업(2%), 고령친화금융산업(2%), 고령친화의약품산업(1%)은 고령친화산업 전체 5% 이하의 종사자 비율 보임

□ 지역경쟁력 분석결과 종합

- 2015-2017년 사이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양(+)의 지역할당 효과와 함께 타시도에 비해 전남의 고용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친화의료산업, 고령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금융산업** 분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양(+)의 지역할당 효과와 함께 전남의 고령친화식품산업 분야에서 2015년 2017년 모두 1이상의 지역 특화도 지수를 보인 지역은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상대적 특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장성군**으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고령친화식품 분야에서 특화도 지수가 가장 크게 성장한 지역은 **담양군**으로 도출됨
- 또한 양(+)의 지역할당 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난 고령친화의료산업 분야에서 2017년 기준 1이상의 지역 특화도 지수를 보인 지역은 **장성군**으로 나타남
 - 하지만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으로 증감율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0.96만큼의 상대적 특화도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용품 분야에서 2015년 2017년 모두 1이상의 지역 특화도 지수를 보인 지역은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상대적 특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함평군**으로 나타남
 - 함평군은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고령친화용품 분야에서 특화도 지수가 가장 크게 성장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장성군, 화순군은 지난 3년간 상대적 특화도 지수 하락한 것으로 도출됨
- 고령친화금융 분야에서 2015년 2017년 모두 1이상의 지역 특화도 지수를 보인 지역은 **순천시**가 유일
 - 순천시를 제외한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1이하의 입지계수를 보여 특화도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시사점

□ 정책적 시사점

- 전남의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친화의료산업, 고령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금융산업**은 타 시·도에 비해 경쟁 우위로 평가됨으로, 향후 전남의 고령친화고령친화산업 육성 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및 특성이 고려되어 도출된 위의 네 가지 분야에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

- 에 대한 신규 투자 유치, 고령친화산업 지원 확대 등에 관련된 지역 맞춤형 정책추진방안 마련 필요
- 또한 한정된 예산과 인력 등을 이용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친화의료산업, 고령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금융산업** 중에서도 전남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 있음
 - 시간의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방향 마련 필요
- 산업구조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우선순위결정 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 문화, 예술, 환경을 고려한다면, **고령친화여가산업** 또한 핵심 전략산업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 「제6차 전라남도 관광개발계획」과 「전라남도 권역별 관광개발 목표」를 토대로 전남은 **관광**을 중요한 핵심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전남 지역의 관광사업의 내용과 고령친화여가산업을 연계하여 추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표 4-25] 전라남도 권역별 관광개발 목표

권역	개발목표
광주근교권	대도시권의 체험 휴양관광 거점 조성
동부권	창조적 해양 생태관광 거점 조성
서남권	다도해 해양관광 및 대중국 교류거점 조성
중남부권	남해안 문화 웰빙관광의 거점 조성

자료: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년)

제5장

전라남도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제1절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방향

제2절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제5장 전라남도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제1절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방향

1. 복지가 아닌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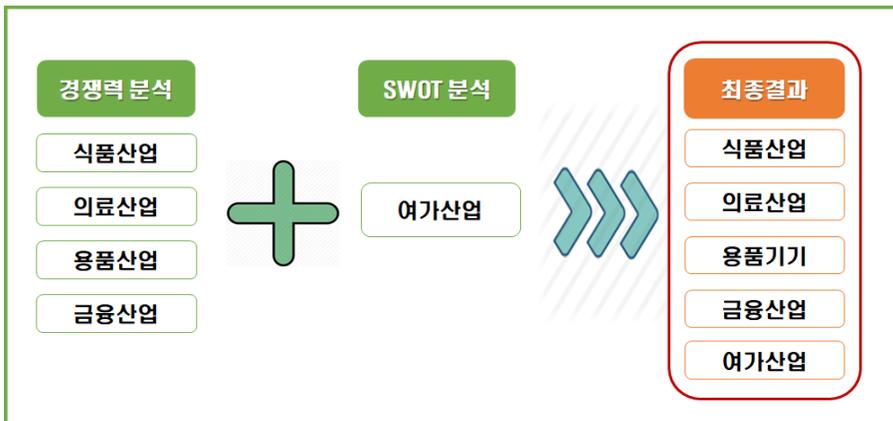
- 노령복지확대 측면이 아닌 산업육성, 기업·핵심인력 유치·지원측면으로 접근하는 방향 설정
 - 노령복지 측면이 아닌 산업육성, 기업·핵심인력 유치·지원측면으로 접근하는 방향 설정 필요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복지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은 부재되어 있는 실정
 - 전남에서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전남 지역 내로 유치하기위한 노력이 시행되어야 하며,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하고,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향설정 필요
 - 부산, 광주, 경기 정도가 고령친화산업 측면에서 R&D 지원, 인적자원지원 등과 같은 산업측면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
 - 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해외시장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필요
 -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령친화산업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구축 필요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시킬 필요 있음

2.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부문 육성 및 융합적 접근

특화·비특화 부분의 융합적 정책방향 설정

- 고령친화산업 중 타·시도에 비해 경쟁력 우위로 선정된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 고령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 금융산업 분야를 기반으로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동시에 전남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 문화 예술 환경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여가산업과 연계하여 전남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융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령친화 세부분야가 다른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해 세부적인 융합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그림 5-1] 전남 고령친화산업 특화분야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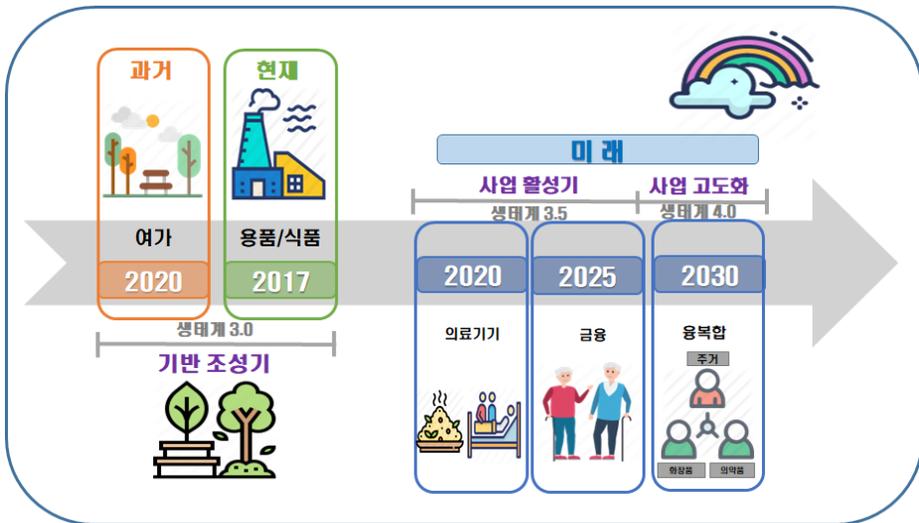
3. 분야별·단계별 추진

분야별·단계별로 발전계획 수립

- 한정된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여가산업, 고령친화용품산업, 고령친화식품 및

- 의료기기산업, 고령친화금융산업 순으로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할 필요 있음
- 현재 전남지역의 고용구조를 토대로, 고용비중이 높은 순으로, 분야별·단계별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정책방향성 설정이 필요함
- 전남지역의 문화, 역사, 예술자원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보이며 동시에 높은 고용창출력을 보이는 고령친화여가산업과 고령친화용품 산업을 시작으로 기반조성기를 설정하고, 사업의 활성화에는 고령친화의료분야와 고령친화 금융분야를 집중하여 육성하는 기본방향 설정 필요
- 그 이후에는 특화분야로 선정하지 않은 고령친화주거산업, 고령친화요양등과 융합하여 육성할 수 있는 전략마련 필요

[그림 5-2]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단계별 추진방향 로드맵



[그림 5-3]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목표 및 추진방향(안)



□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목표 및 육성방안 수립

- 전라남도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육성방향과 육성방안을 도출할 필요성 있음
 - 지역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성과 육성방안을 설정한 후 구체적인 시책마련 필요
 - 시책은 복지가 아닌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전남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부문과 비특화부문을 융합적·단계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토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

제2절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1. 전남 고령친화산업 특화부문 집중육성

1) 고령친화용품산업

□ 맞춤형 고기능·고품질제품 개발에 집중투자

- 고령자들이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니즈(needs)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
 - 고령자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선행적으로 실시한 후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고령친화용품산업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품목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
 - 전략품목 선정시에는 업체,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공급자 델파이조사 및 수요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
 - 전략품목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접근 필요
- 고기능 고품질 중심의 고령친화용품 개발에 집중
 - 고령친화산업 공급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실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관련 기업의 역량 제고를 통해서 차별적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고기능 고품질의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는 접근방향성이 필요
 - 고기능·고품질 중심의 고령친화용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는 중소·벤처기업간의 각종 협력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연구기관과 산업체(기업)간의 연계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음

□ 고령친화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단기·중기·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원 체계 마련

- 고령친화용품산업은 대량생산 라인을 가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
 - 고령친화용품산업은 타깃 고객의 까다로운 소비성향을 반영해야 하므로 중소기업 적합산업으로 분류됨
 - 전남 지역 내의 고령친화용품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중소기업형 특수산업이 주류를 이룰 수 있도록 전남지역 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지원을 확대해 가는 정책방향성 설정이 필요
-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 시킬 수 있도록 단기·중기·장기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장비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지식서비스지원, 마케팅 지원, 네트워킹 지원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성 필요
 - 동시에 지원된 중소기업의 실용화 및 상업적 성공 여부를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지원책이 동시에 연결되어 운영되는 접근 필요
 - 미국의 경우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단기·중기·장기성과를 평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표 5-1] 지원내용 제안

구분	지원내용
장비지원	시제품 및 생산장비 지원
	제품개발 장비 지원
인력지원	생산인력 배양
	인력의 교육
기술지원	애로기술지원확대
	시험분석 및 성능평가 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구분	지원내용
	디자인개발 지원
	품질관리 지원
지식서비스 지원	시장정보수집 및 분석지원
	특허분석 지원
	인허가 지원
	기업경영등 컨설팅 지원
마케팅지원	전시회/박람회 참가 및 홍보지원
	마케팅 교육지원
네트워킹 지원	임대공간 및 창업보육 지원
	협업차원의 기업간 정보
	지원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자료: 고령친화산업체 지원제도 현황분석(2017) 재구성

□ 기존의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정책」과의 연계하여 고령친화용품 유망 산업체 선정 검토 가능

-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1) 중소기업 경영안정 2) 소상공인 창업 3) 창업 및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4,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지원정책에 사용 중이며 지원대상 선정시 고령친화용품을 제작하고 개발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규정을 추가 마련하는 방안으로 연계하여 세부전략 수립 가능
- 현재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정책」의 지원대상 기준으로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한옥호텔 및 농어촌 버스 업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기준을 유지 중
- 이러한 기준에 고령친화용품 제품개발 관련 기업을 우대하여 선발하다는 세부 규정을 추가·마련하여 고령친화용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 나갈 수 있는 세부추진전략 수립 가능

2) 고령친화식품산업·고령친화의료기기사업

□ 바이오·의료기기 관련 R&D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는 전략마련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을 위해 전라남도 내에 위치한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에 새로운 일자리를 신설할 수 있는 방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전라남도 내의 바이오 핵심기술개발 중심의 연구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면역치료·노화·노인의 안티에이징을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풀(Pool)을 양성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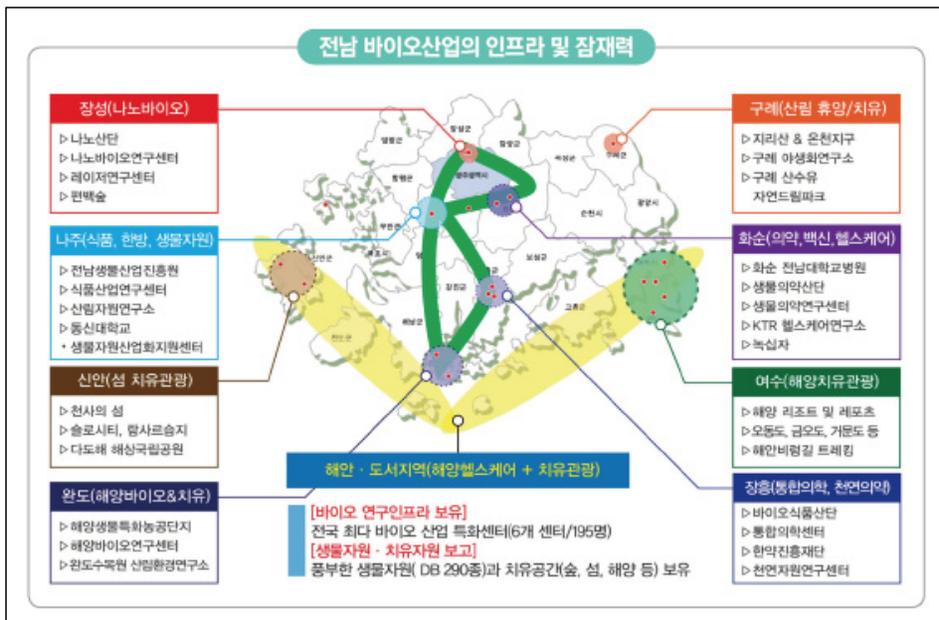
[표 5-2] 전라남도 지역내 위치한 바이오분야 연구센터 현황

기관명	위치
식품산업연구센터	나주
생물의약연구센터	화순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장성
천연자원연구원	장흥
한방산업진흥원	장흥
해양바이오산업센터	완도
생물방제센터	곡성

- 디지털 뉴딜시대 바이오·의료기기 분야에 관련된 R&D개발 위한 지역청년 스타트업·벤처·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검토 가능
 - 디지털뉴딜이란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R&D,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재정정책을 집중 투입하는 것을 의미
 -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들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도록 하며

- 이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구조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여 5G·데이터·AI관련 분야가 새로운 추진사업의 일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정책적 배경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바이오의료기술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계기 제공
 - 디지털 뉴딜시대 바이오·의료기기 분야에 관련된 R&D개발 위한 지역청년 스타트업·벤처·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가능성은 낙후된 고령친화식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R&D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서 역할 가능
 - 특히 현재 전남에서 추진 중인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식 공유형 청년 창업 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략마련 검토 가능

[그림 5-4] 전남 바이오산업의 인프라 및 잠재력



□ **바이오·의료기기 관련 고급인재 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마련**

- R&D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 및 연구역량 가진 핵심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지역에서 스마트한 첨단의료 및 바이오 의약혁신 생태계 구축 등에 관련된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면 산업구조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원천인 혁신활동 강화가 뒷받침 되어야 함
-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을 위한 핵심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 필요
 -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연구 잠재력에 중점을 둔 고학력 인적 자원 유입을 위한 세부전략 마련 필요
 - 4차 산업혁명 대표기술이 활용된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스마트헬스케어에 관련된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의료기기 연구 개발자 등을 지속적으로 전라남도 지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마련 필요
 - 특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120개의 중점 과학기술 목록 중에 생명·보건·의료에 해당되는 중점과학기술에 해당되는 연구 개발자를 지역으로 유입시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 필요

3) 고령친화금융산업

□ **고령친화금융산업의 대표적인 전략품목으로 「역모기지제도」 도입검토 가능**

- 전남 맞춤형 「역모기지제도」 는 이용대상층을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필요
 -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후보장이 불안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역모기지연금제도의 도입은 고령친화금융산업의 대표적인 전략품목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음

-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고령세대의 인지도, 이용의향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이용대상층에 대한 수요조사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노인의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남은 노년기 동안 필요한 지출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남 맞춤형 역모기지제도’에 관련된 추진 전략 수립·검토 필요
- 민간금융시장의 역모기지 상품의 한계점을 파악한 후 고령층의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이 다양할 수 있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역모기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리 및 주택가격이 안정성을 지녀야 하며 생의 마감과 역모기지 계약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핵심
- 해외사례: 미국의 공적보증 역모기지(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이하 HECM) 상품²⁹⁾
 - 6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이하 FHA) 보증함
 - 주택보유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 없음
 - HECM의 보증재원은 GIF(Growth Investment Fund)로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함이 원칙이나 결손금 발생 시 연방정부 예산으로 보조금 지원
 - 대출금융기관이 아닌 독립된 제3자인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 의무화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 인정한도(또는 대출가능한도)의 2%, 월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연 1.25%
 - 최대 대출가능한도는 62만 5,500달러

29) Reverse Mortgage Report(2014) “The Government’s Redesigned Reverse Mortgage Program” 재정리

2. 비특화부문인 고령친화여가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확충

1) 고령친화여가산업

□ 전남은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관광잠재력을 보유

- 문화, 역사, 예술 자원의 풍부
 - 전남은 해양, 섬, 숲 등 깨끗한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의 보고인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희귀지역에 속함
 - 남해안권 광역관광루트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해양 레저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해양 관광 레저 지대로의 발전을 위한 천혜의 잠재력 보유
 - 천혜의 도서 해양자원 보유로 크루즈와 항공관광 등이 연계 가능한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지대로 도약 가능
 - 전남 다도해권은 지역의 역사와 자연환경에 부합하는 관광루트 개발과 휴양 체험 생태벨트로 조성 중임

【표 5-3】 전라남도 SWOT 분석 결과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경제권시대 관문으로서의 지경학적 결절지 • 전국최대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 형성지역 • 세계적 수준의 해양자원과 친환경 생태자원 보유 • 서남해안 및 동북아 교통 항공 물류 요충지 • 융복합 생명산업 최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가용자원 한계 • 산업기반 취약에 따른 지역활력 저조 • 농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 신북방 남북정책 대비 전략적 대응체제 미흡 • 관광상품개발 미흡, 낮은 국제인지도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험요인(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의지 • 건강, 휴양 및 생태자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대 •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외부 접근성 향상 •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증가 • 지자체간 연계 협력 필요성 및 중요성 인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수요 증대로 지역개발 자원 감소 및 대규모 개발 지양 • 자치단체간 불균형 및 갈등요인 상존 •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경험으로 실행력 저하 우려 • 지역개발에 따른 생태환경 및 지역정체성 훼손 및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증대

자료: 김현호·임태경(2020) 서남해안 관광 콘텐츠 개발

□ 체류 기반의 숙박 인프라 확충 필요

- 전남지역의 여행의 경우 이동시간이 비교적 길게 소요되어 숙박을 동원하는 관광이 많으므로 관광활동이 복합되면서 다양하며 매력적인 숙박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 추진 필요
 - 전남의 경우 여수지역 주변으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들 지역에 호텔이라는 수준급의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임
 - 노령층 및 치유관광객들이 체류하고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호텔 등을 설립하여 고객을 확보하되, 독자적으로 호텔이 유지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호텔을 대체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건립, 운영 필요

[표 5-4] 전남지역 내 호텔업 등록현황(2019년도 기준)

전남지역 시군구	가족호텔	관광호텔	소형호텔	한국전통 호텔	호스텔업	호텔업	총합
강진군		1					1
고흥군	1						1
곡성군		1					1
구례군	2						2
나주시		2					2
담양군	1						1
목포시	2	5			3		10
보성군					2		2
순천시	1	7	1		58		67
신안군	1						1
여수시		17		1	160		178
영광군		1					1
영암군	1	1		1	1		4
완도군						3	3
장성군	1	1					2
장흥군		2					2
진도군		1					1
해남군		3					3
총합계	10	42	1	2	224	3	282

자료: 한국관광통계, 권역별 호텔업 등록현황(2019)

[표 5-5] 권역별 호텔업 등록현황(2019년도 기준)

시도	가족 호텔	관관 호텔	관광 숙박	관광 호텔	관광 호텔	소형 호텔	소형 호텔	전통 호텔	호스 텔	호스 텔	호텔 업	총합
서울	11	1	4	139	189	3	7		34	62		460
부산	1				81		3			72		157
대구			6		18					3		27
인천	2				84		2	1		70		159
광주					13					1		14
대전	1				15							16
울산	1				17							18
경기	14		3	4	116	1	7		4	12		161
강원	11				42		1	1		8		63
충북	2				19					2		23
충남	4			1	12		1			3	3	24
전북	6				27		2	1		8		44
 전남 	 10 				 42 		 1 	 2 		 224 	 3 	 282
경북	3		1		38		2	1		23	1	69
경남	21				49	1	1		19	9		100
제주	62				127		4	1		165		359

자료: 한국관광통계, 권역별 호텔업 등록현황(2019)

- 단순한 숙박시설의 확충이 아닌 관광을 하거나 숙박시설 주변에서 휴식 휴양을 즐기는 휴양형 숙박시설로 조성필요
 - 관광수요 패턴별로 숙박인프라를 육성하는 전략마련이 필요
 -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서 노인친화적 숙박형인 한옥 레지던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노령의료관광 또는 노령치유관광과 연계된 도심지 속 고급형 숙박시설을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전략마련 필요

[표 5-6] 체류기반의 숙박인프라 확충 방향성

유형1	유형2
전통숙박시설 개발	노령의료관광과 연계된 도심지 숙박시설 개발
가격이 비싸지 않은 노인친화적 숙박형 한옥 레지던스(residence) 개발	가격이 비싸지 않은 준 호텔급 숙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적 사례인 전북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한옥의 특징을 살리면서 숙박에 불편이 없도록 한옥시설을 관광객을 위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복수의 지역이나 권역별로 호텔에 준하는 숙박시설 설치 가령 보성, 장흥/해남, 진도, 완도 등의 지역이 활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전남개발공사」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건립,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

자료: 김현호·임태경(2019) 서남해안 관광 콘텐츠 개발 재인용

3. 블루이코노미와의 정책연계성 강화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친화의료산업이 「블루이코노미」 정책안에서 연계될 수 있는 세부추진전략 마련 필요

-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의 「바이오 메디컬 프로젝트」 안에서 고령친화 의료기기, 고령친화식품산업을 중점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되 신소재의약, 스마트헬스케어에 관련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고급 인적자원을 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마련 필요
 -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의 「바이오 메디컬 프로젝트」는 “전남형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과 “신소재 의약의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을 목표로 세부과제 추진 중에 있음
 - “전남형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과 “신소재 의약의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에 관련된 세부과제는 하드웨어적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역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우수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지만 첨단 의료기기 및 바이오 식품개발에 필요한 인재양성 및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대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부재한 상황

[표 5-7]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의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 세부추진 사업

중점 추진과제	세부추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전남의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 신소재 의약의 글로벌 생산거점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설립
	②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③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
	④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⑤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⑥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

자료: 전남 블루이코노미 정책

-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의 「바이오 메디컬 프로젝트」 안에서 고령친화 의료 기기분야, 고령친화식품 및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전남 지역 내의 핵심기업과 R&D 개발에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청년들과의 매칭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으로의 핵심인재를 유입 시킬 수 있는 세부추진 전략 마련 필요
 -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에 R&D개발에 관련된 창의적인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의 「바이오 메디컬 프로젝트」 안의 세부추진 사업으로 연계·추가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제고효과 기대

고령친화여가산업은 「블루이코노미」의 「신성장 관광벨트 프로젝트」 안에서 장수·건강·기능으로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하여 추가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구조를 반영하여 「블루이코노미」의 「신성장 관광벨트 프로젝트」 안에서 장수·건강 기능으로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의 「신성장 관광벨트 프로젝트」는 크루즈 관광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토대로 해양레저 체험에 관련된 관광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성 보임
 - 시간적 경제적 여유와 함께 적극적인 소비의지를 갖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가 반영된 관광프로그램 개발 필요

[표 5-8] 「신성장 관광벨트 프로젝트」 중점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부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지역의 거점은 정부의 어촌뉴딜 300 대상지를 매력이 넘치는 관광명소로 만들고, 영광에서 목포, 완도를 거쳐 여수까지를 서남해안 관광도로로 연결해 접근성 개선 • 목포와 여수에 크루즈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연안 크루즈 상품을 개발해 관광산업의 혁신 성장 모멘텀 확보 • 권역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남해안을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 관광지로 조성 	①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②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 국가계획 반영
	③ 크루즈 관광기반 조성
	④ 가고싶은 Blue-Way 조성
	⑤ 지속가능한 섬 발전 성장기반 구축
	⑥ 해양치유단지 조성
	⑦ 해양레저 체험장 조성
	⑧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⑨ 서남해안 섬 숲 생태복원사업
	⑩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⑪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추진
	⑫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
	⑬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⑭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

○ 장수벨트 지역현황

- 전라남도 구례, 곡성, 순창, 담양은 지역적으로 연접하여 장수 벨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
- 우리나라 대표 장수지역인 전라남도 내륙산간 장수벨트 지역을 배경으로 장수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 상품으로 활용
- 빠른 사회적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 장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토음식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개발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접근 필요

○ 장수 건강 기능으로 특화된 관광벨트 육성을 위한 세부전략 마련 필요

- 담양군 일대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와 장수음식을 연계한 루트개발
- 담양지역의 장수인들이 즐겨먹던 음식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장수 푸드빌리지 조성(김현호·임태경, 2019)

- 담양의 대나무축제를 통해 대나무의 이용가치를 알리면서 대나무(죽순)를 이용한 건강음식 조리 및 체험 프로그램 시행 가능
- 담양지역의 「죽녹원-죽향문화체험마을-죽순(장수)푸드」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조성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략 검토 필요
 - 전라남도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대나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대나무로 만든 제품 및 대나무를 이용한 음식³⁰⁾ 또한 널리 알려져 있음
 - 담양지역의 죽녹원 이라는 명소를 중심으로 죽순푸드 또는 장수푸드빌리지 조성 및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중이며 이와 연계하여 파급효과 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개발·검토 가능³¹⁾
-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학작품 속 음식을 조명한 후 장수음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 개발 가능
 -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하여 음식에 담긴 의미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하며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³²⁾
 - 담양지역의 상징적 인물인 미암 유희춘(문인)의 「미암일기」 활용 가능
 - 보물 제 260호 미암일기가 전해오는 담양의 「모현관」 또는 미암박물관에서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암일기」 체험 후 「미암일기」에 기록된 식재료를 활용해 장수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김현호·임태경, 2019)
 - 미암일기에 등장하는 「미암밥상」 또는 「메밀팔밥」 등과 같은 향토음식 체험 콘텐츠 개발 가능

30) 죽순요리 및 대나무 통을 이용해서 만든 대나무 통밥 등

31) 현재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일대에서 죽순푸드빌리지가 운영되고 있지만 관광인프라 시설의 부족으로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어려움(http://tour.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2705005003002)

32) 스토리텔링 기법은 식품산업과 마케팅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지역홍보에도 확대 적용되어 있음

[표 5-9] 장수·건강·기능으로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안)

추진가능 사업(안)	세부추진내용 (안)
담양 죽순 장수 푸드빌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죽녹원-죽향문화체험마을 관람 후 죽순요리 체험교실 운영 유튜브(YouTube)와 크리에이터(Creator)를 활용해 맛여행에 관련된 콘텐츠 제작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학작품 속 장수음식 체험 콘텐츠 개발	담양의모현관 → 미암박물관 → 미암유물전시관 관람 →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련 음식체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모집 사업	담양의 문화관광 자원을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해설사 채용의 확대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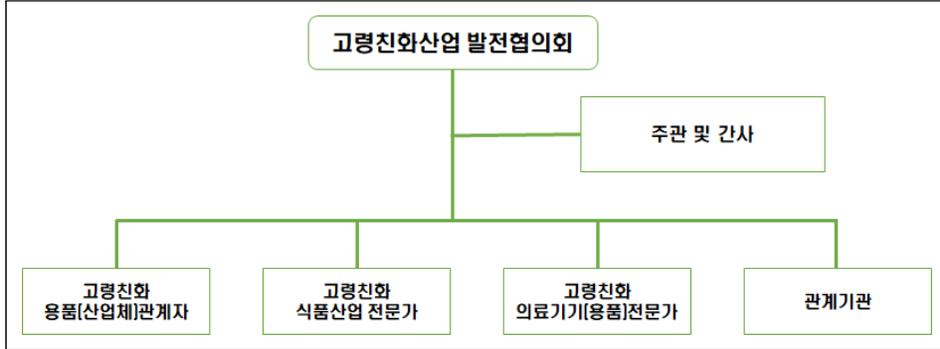
자료: 김현호·임태경(2019) 서남해안 관광 콘텐츠 개발 재인용

4. 고령친화산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기반 강화

□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서별/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고령친화산업의 융합적·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간의 협업, 민간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산·학·연)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상황
 - 다양한 의사주체들이 참여하여 협의적 의사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필요
- 고령친화산업 발전협의회(가칭) 설립운영 필요
 - 고령친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전남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 고령친화산업 발전협의회(가칭)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전남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능부여
 -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조항을 토대로 「고령친화산업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 추가 개정 검토 필요

[그림 5-5] 고령친화산업 발전협의회 구성(안)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³³⁾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 교류기회를 증대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 필요

- WHO 고령친화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면 인구고령화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국제사회 교류의 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해외 각국의 고령친화도시조성에 관련된 정보와 시책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얻음
 - 2019년 기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40개국 821개 도시가 있음
 - 2019년 기준 서울특별시(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정읍시, 경기도(수원시), 광주광역시가 가입되어 있음
- 또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고령친화도시로서의 국제공인 기구의 인정과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도시로서의 조성 가능해짐
 - 고령친화도시로의 이행과정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음

33)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이하 GNAFCC

[그림 5-6] WHO GNAFCC 가입현황



- 경기도 공고. (2020). 2020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사업 공모. 경기도 공고 제2020-380호
- 김현호임태경(2019). 서남해안 관광 콘텐츠 개발. 정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고승한. (2012). 고령친화산업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제주의 향후 과제. 제주발전포럼, 41: 58-67.
- 김도관. (2018). 부산지역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한일해협권연구 제18호: 39-61
- 김도형, 박승규. (2018). 경상남도 고령사회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18(0), 1-281.
- 김상우. (2018).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전략 보고서. 경상북도
- 김진기. (2006).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김정득 외. (2018).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설치운영 기초연구, 제주연구원.
- 대전광역시 의회. (2020).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20호. 대전광역시의회.
- 박민규함윤주. (2015). 대구 시니어체험관 운영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박승규김도형. (2018). 경상남도 고령사회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18, 1-281.
- 부산광역시. (2017). 부산지역 고령친화산업 수출역량 분석 및 해외적합시장 조사 보고서.
- 산업연구원. (2012).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 서울시. (2012)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 송순태. (2011).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이견직. (2006).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2006(3), 39-51.
- 이진경, 문정인 (2019). 키네틱 원리를 적용한 ICT 기반 고령친화 주거 리모델링 요
구조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5(7), 25-32
- 문혜선. (2019). 고령사회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친화산업 발전 과제와 시사점.
1-90
- 전라남도.(2013). 화순군 고령 친화산업 특화단지 구축 학술용역 보고서.
- 전라남도.(2016). 2015 전남지역 고령자의 삶 보도자료
- 전라북도. (2018). 제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라북도
- 정만태. (2012).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상북도.
- 진현정, 김병용, 우희동 (201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고령친화관련식품부문의 타
산업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6(3), 1179-1197
- 조현승, 고대영, 이동희, & 황원식. (2016).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소비구조
변화와 고령 친화 산업 활성화.
- 한국은행. (2007). 제주지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한국은행 제주본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보건산업분류체계 정립 및 통계연계 생산활용
_____. (2015). 고령친화산업 시장 동향.
_____. (2017). 2017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보고서.
_____. (2017). 2017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_____. (2019).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 발표 자료.
- 황남희, 변수정. (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복
지포럼, 258(0), 41-61.
- 황남희. (2016). 한· 중· 일 고령친화산업의 정책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6(3), 101-113.

〈신문 기사〉

경기평화신문. 경기도, 첫 고령친화산업 진행할 참가단체 공모. Retrieved from <http://www.ggpyeonghwa.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82> (검색일: 2020.03.27.)

경남일보. 양방향노화 의생명 R&D센터 구축. Retrieved from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37> (검색일: 2020.05.11.)

경남피셜. 세계가 인정한 고령친화도시 보물섬 남해. Retrieved from http://www.gyeongnam.go.kr/news/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049&menuCd=DOM_000001601003000000&startPage=1&dataSid=41249656 (검색일: 2020.05.11.)

금강일보. 대전 2047년 고령인구 36.4%. 고령친화산업 개발해야. Retrieved from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277760&memberNo=41661917&searchKeyword=%EC%8B%A0%EC%A4%91%EB%85%84&searchRank=248> (검색일: 2020.03.26.)

뉴스1. 김해시 특화형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유치 성공. Retrieved from <https://www.news1.kr/articles/?2997292> (검색일: 2020.05.11.)

대구신문. (2013.07). 고령친화산업, 경북 신성장동력으로. Retrieved from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75> (검색일자: 2020.03.31.)

동양일보. (2017.05). 10년 안 초고령사회 충북 ‘고령친화산업’에 관심을. Retrieved from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306> (검색일: 2020.03.30.)

매일신문. (2018.06). 대구시니어체험관, 개관 10년 만에 결국 문 닫는다 Retrieved from <https://news.imaeil.com/Society/2018062416325885028?ismobile=true> (검색일: 2020.03.24.)

보령뉴스. 고령친화도시 충남을 위하여. Retrieved from <http://www.boryeongne>

- ws. 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69 (검색일자: 2020.03.31.)
- 시사통신.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1기 모니터단 위촉. Retrieved from <http://www.sisats.com> (검색일: 2020.05.11.)
- 연합뉴스. 경남도 미래 먹거리 양방향노화산업 육성 박차.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5017900052> (검색일: 2020.05.11.)
- 연합뉴스. 광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한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6159900054> (검색일: 2020.03.26.)
- 연합뉴스. (2015.09). 대전 미래 신성장동력은 고령친화산업.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50909158200063> (검색일: 2020.03.26.)
- 전북일보. 전북도 실버산업 정책 낙제점. Retrieved from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63469> (검색일자: 2020.03.31.)
- 제주매일. 제주형 고령친화산업 육성 제기. Retrieved from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6014> (검색일자: 2020.03.31.)
- 중앙일보. 김해 의생명센터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지원사업 등.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1335550> (검색일: 2020.05.11.)
- 충북일보. (2016.01) 충북경제 4% 실현의 과제와 제안 - 고령친화산업. Retrieved from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30691> (검색일: 2020.03.30.)
- 충북경제신문.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센터 설치, 운영. Retrieved from <http://www.cb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23> (검색일: 2020.03.30.)
- 한국경제. 울산시, WHO 인증에 도전장. 어르신 모시는 '고령친화도시'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2116868i> (검색일: 2020.03.26.)

〈홈페이지〉

고령친화서울 홈페이지 <https://afc.welfare.seoul.kr/afc/about/progress.action>
(검색일: 2020.03.24.)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gstc.or.kr/about_3 (검색일: 2020.03.24.)

성남고령친화체험관 홈페이지. http://www.miraeseum.or.kr/contents/info_0102.php?breadcrumb=1_1_2 (검색일자: 2020.03.27.)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시, 고령친화제품 산업 도약의 기반 마련. <https://www.busan.go.kr/nbtnewsBU/1426203?curPage=&srchBeginDt=2020-03-17&srchEndDt=2020-03-24&srchKey=&srchText=> (검색일: 2020.03.23.)

세종시. (2020). 세종시 고령친화도시 정책모니터링단. https://www.sejong.go.kr/citizen/sub05_0403.do;jsessionid=wDwIoFnTe2MfMCl1PxvJtlR7VXI8XfhwNdDVU2B68fOqf7Rq4UO43CtUPMx0YXMH.Portal_WAS2_ser_vlet_engine5 (검색일: 2020.03.27.)

부산테크노파크. <http://www.btp.or.kr/?action=CM0010S&pagecode=P000000262&language=KR> (검색일: 2020.03.23.)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http://www.technopark.kr/businessboard/35843> (검색일: 2020.05.11.)

부록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9.]
(제정) 2019-07-09 조례 제 4884호

관리책임부서: 노인복지과
연락처: 061-286-5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대여 및 체험·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